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2004-8211~2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2월 19일(음력 11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658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기름 제거에 구슬땀 흘리는 스님들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복구 현장에 불자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 맨 오른쪽)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스님과 불자 1000여 명은 12월 14일 충남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기름제거 작업에 나섰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태안 바다 살리기’ 교계 팔걷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대책委’ 설치 복구활동 본격 지원
신도·스님 등 참여 줄이어…범종단 차원 지속적 봉사 필요

‘검은 바다’로 변모한 서해안에 전국 각지의 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사고 발생 나흘만인 12월 11일,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기름유출 사고지역 오염방제 작업을 시작했다. 이어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 인근에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설치, 체계적인 복구활동 지원에 나섰다. 전국의 사찰 및 단체에서 몰려드는 불자 자원봉사자들을 사전교육한 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종단 예비비 3000만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작업현장 인근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14일부터 자원봉사자를 위해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 파견이 이뤄진 12월 13일, 피해복구 현장을 찾았다. 이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봉사단원과 개인 봉사활동 신청자, 조계사 신도들이 주축이 된 긴급재난구호봉사대 100여명이 피해현장에 도착했다. 신두리 지역 오염 상황은 이미 많이 정리돼 있었지만 갯벌에 남은 기름 찌꺼기와 모래밭에 침투한 기름 닦아내기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초속 14~16미터에 달하는 강풍. 선발대로 현장을 지휘하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기름 냄새가 강하니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며 단단히 채비를 갖추고 봉사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름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부직포와 현수막, 헌 옷가지 등이 총동원됐다. 갖가지 천을 이용해 기름을 흡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미 모래에 깊이 흡수된 오염물질은 삽이나 쓰레받기를 이용해 퍼내는 수밖에 없다.

봉사활동에 나선 박명환씨(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는 “요즘 몸이 조금 좋지 않지만 텔레비전에서 연일 나오는 태안지역 피해 상황을 보니 봉사활동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동참 이유를 밝혔다. 대학입학 준비에 한창 바쁠 고3 학생들과 휴가를 낸 직장인, 기말고사가 끝나기 무섭게 달려온 대학생 등도 힘을 보탰다.

이미 5일간 현장을 지휘해 온 현대건설 배도환 현장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불자 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작업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반겼다.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직원 100여명이 14~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연수일정을 연기하고 복구활동을 펼쳤다. 지관 스님은 태안군청을 방문해 기름 흡착포 대용으로 사용할 옷가지 등 지원물품 15톤(3억 20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겨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불교환경연대,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 환경지킴이, 화계사 자원봉사단 등 서울지역의 불자 400여 명을 비롯해 마곡사 본말사 신도 300여 명, 동학사 학인스님 100여 명 등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대대적인 현장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동안거 결제 중인 수덕사 정혜사, 견성암, 보덕사 등에 방부를 들인 선방스님 100여 명도 현장을 방문해 힘을 보탰다. 천태종 사회복지재단도 14일부터 복구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좀 더 신속한 활동전개와 장기적인 지원계획이 절실하다. 복구현장의 한 관계자는 “원유 유출 2~3일 안에 봉사단이 파견됐으면 기름띠 제거에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긴급재난구호봉사대의 한 발 늦은 파견을 아쉬워했다.

현재 서해안은 안면도까지 기름이 떠내려가 2차 오염이 확산되고 있고, 전체 유출된 원유의 10% 정도 밖에 수거하지 못해 장기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02)723-5101

태안=김강진 ·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기사평가하고 푸짐한 사은품 받으세요

현대불교는 10명으로 구성된 독자운영위원회를 전체독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주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붓다뉴스(buddhanwes.com)에서 ‘독자위원회’ 코너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내용을 적극 반영해 보다 좋은 신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가자는 매월 추첨하여 푸짐한 사은품을 보내 드립니다. ◆참여 방법 –붓다뉴스(buddhanews.com) 좌측 독자위원회 코너 –> 기사 평가 항목설문 –>주소 남기기

종단청정위 구성 ‘없던 일로’

교단자정센터 “내년 부정부패 신고센터 만들 것”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계 8개 재가단체들이 조계종에 요청한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12월 12일 종단청정위 구성 무산을 선언하고, 내년 1월 초부터 가칭 ‘교단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비위 제보가 접수되면 사법기관 등에 의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교계단체들이 지난 3월 27일 조계종총무원에 종단청정위 구성을 촉구한 이후 연석회의와 면담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논의해 왔으나 총무원측은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향후 계획을 12월 12일 현재까지 답변해 주지 않아 사실상 종단청정위 구성이 무산됐음을 알린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자정센터는 또 “신고센터 개소 외에도 법률자문단 확대, 자정센터 신임 원장(최경춘)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중앙종회 불징계특권 폐지, 계파해체를 위해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스님은 “단체 대표자들과 구성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음에도 실무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단에 구성 무산을 통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社 告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교재: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5000원)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엠씨)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 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를 맞이하여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51(2007)년 12월 26일 (음 11. 17) 수요일

- 제 1부 : 사리탑 제막식 (오전 9시 30분)
- 제 2부 : 추 모 법 회 (오전 10시)
- 문 의 : 055)934-3000 (해인사 종무소), 055)932-7308 (원당암)
- 장 소 : 해인사 비림(부도전)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혜암대종사 문도대표 **성법**



종교계 대선후보 줄서기 '눈살'

개신교 각 단체들 이명박 후보 공개지지

불교계 특정후보 초청 행사·지지 선언도

대선 막바지 '종교계 대선 줄서기'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개신교의 경우 노골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개신교의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독교 사회책임' 등의 단체가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보내고 있는 한편, 서울 금란교회와 서울 소망교회 등 개별교회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라'고 설교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심지어 12월 10일 뉴라이트기독교연합이 주최한 '대선을 위한 특별기도회'에서는 "청와대에 찬송과 기도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13일 "일부 교회의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가 자칫 종교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교회에 자중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12월 13일 '희망 2008 부산불교지도자대회'에 이명박 후보를 참석토록 해 뒷말이 무성하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이 후보는 종교편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불교신자 못지않은 역할을 하겠다. 오늘 모임 참여를 계기로 이 시간부터 대한민국 불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날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스님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흥교 스님, 정각 스님, 정여 스님, 공병수 신도회장, 부산실업인회 김윤환 회장 등 부산지역 스님과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후보가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혜륜 스님은 "이 법회를 정치적 성향으로 오해하는 소리가 있지만 순수한 종교적 모임이자 2008년 새 설계를 위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행사에 이 후보만 참석한 이유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이 후보를 직접 초대한 적은 없다. 이명박 후보 측에서 알아서 찾아 온 것이다"며 "이 후보가 불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산 경남 지역의 정치 활동을 위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12월 12일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부산불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후보의 모습.

한편,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소속 스님 225명은 12월 13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불교계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갖은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그 아래 공직자들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이지 않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한 후보인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참가자 명단에 포함된 몇몇 스님들이 "지지를 한 적이 없다"며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12월 12일에는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장 의륜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교신자 2007명이 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서강대 교수)는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는 것은 결국 종교의 권력화를 부추기게 된다"며 "시민운동 차원이나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정교유착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 하성미 기자

조계종 교육원 제7기 위원 위촉

교육위원장 종석·교재편찬위원장 지현·역경위원장 통광 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제7기 교육원 각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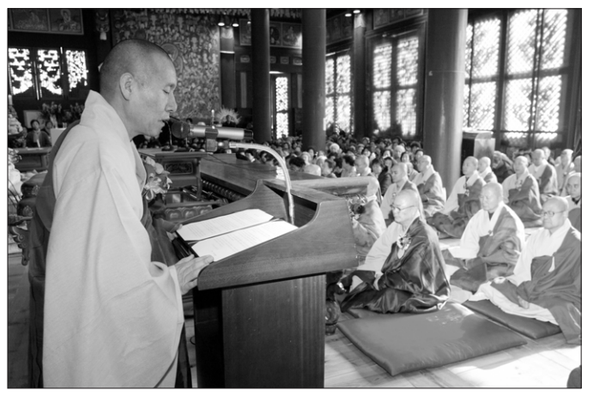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교육위원장에 종석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장), 교재편찬위원장에 지현 스님(송광율원장), 역경위원장에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위원회 임명은 12월 6일 제6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종단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구 수립하고, 교재편찬위원회는 종단 교육기관의 교재를 편찬하며 종단이 지정하는 출판물의 감수 및 편수를 맡는다. 역경위원회는 종단의 불전 번역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역경사 양성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명단이다.

▲교육위원회: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종호(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석(중앙승가대 대학원장) 법인(화엄학림 학장) 도일(파계사 율원장) 우진(통도사 승가대학원장) 덕문(중앙종회의원) 흥륜(운문사 승가대학 강주) 계호(중앙종회의원) 스님.

▲교재편찬위원회: 정인(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성본(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지현(송광율원장) 법장(선운사 승가대학장) 법진(해인사 승가대학장) 선행(백양사 강주) 원일(前 범어사 강사) 본각(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지형(청암사 승가대학장) 스님.

▲역경위원회: 통광(쌍계사 승가대학장) 정우(중앙승가대 교수) 지오(범어사 승가대학장) 학담(중앙종회의원) 정원(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지안(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덕문(통도사 율원장) 해주(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적연(봉녕사 승가대학 교수) 스님. 여수령 기자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이 12월 13일 대웅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불교 근본도량으로 거듭날 것"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 취임법회 대웅전서 봉행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취임법회가 12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법계위원장 천제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 김충용 종로구청장, 윤원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학 스님은 "전임 소임자가 일궈놓은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직영사찰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총무원장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근본도량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또한 각종 법회의 내실을 다져 인재불사에 힘쓰고 지역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선원 등의 불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포살법회를 정례화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종헌종법제개정특위 위원장에 정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는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종헌종법특위)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휴 스님을, 간사에 성효 스님(용덕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종회의원 9인으로 구성된 종헌종법특위는 지난 11월 종회 때 설치가 건의된 것으로, 입법사항 미비나 상충되는 안에 대한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여수령 기자

천태종 내년 예산 106억원

천태종의 2008년도 새해 예산이 105억9184만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는 12월 11일 구인사 관성당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차 정기종의회를 열고, 전년보다 7.6%(7억5582만원) 증가한 105억9184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천태종 내년 예산의 증액은 상월원각대조사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7억4000만원의 특별편성에 따른 것이며, 이외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종의회는 앞서 11월 29일과 30일 분과별 회의를 통해 총무원 각 부와 학교법인 ▲감사원 ▲금강대학교 등의 예산안과 업무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월정사 주지 후보에 정념·정수 스님

15일 산중총회서 주지후보 선출

조계종 제4교구본사 평창 월정사 주지후보에 현 주지 정념 스님과 원주 입석사 주지 정수 스님이 출마했다. 두 스님은 입후보등록을 하며 월정사의 총림 추진을 비롯한 교구 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월정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행)는 12월 15일 산중총회를 열고 주지후보를 선출한다(14일 현재).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183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자격을 확정하고 151인의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2008년부터 호적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거관리 시행규칙(10조 1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규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31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태고종은 내년 1월 23~24일 제31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개최한다.

1월 23일 오후 2시 입소해 24일 오전 10시 수계식이 봉행된다. 동방불교대학 승가학과 재학생중 행자습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참가가 가능하다. 수계득도신청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12월 27일까지 신청 마감한다. (02) 739-3450 혜철 충청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광주지사 : (062)268-1508
전북지사 : (063)910-519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행

대한불교선종 제3대 종정 효담 큰스님 추대식

모시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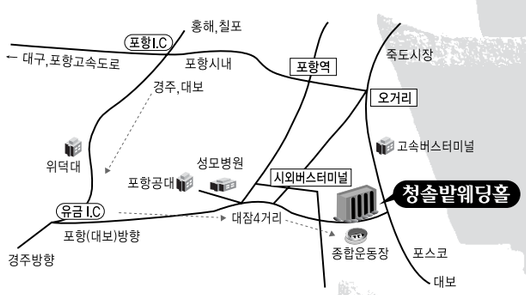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가람 수호와 수행 정진에 노고가
많으신 대덕 큰스님과 각 사암 주지스님
대표임원들께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충만하기를 발원하나이다.

오는 불기 2551년 12월 25일 전임 종정 도원 큰스님 입적으로
공석인바 제3대 종정 효담 큰스님 추대식과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등록 제2007-15호로 승인 축하법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암 주지스님들께 건강과 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각 사암 불자님들도 초청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 주최 :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총무원장 정관

■ 일 시 : 2007년 12월 25일(음력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포항시 공설운동장 앞 「청솔밭웨딩홀」
■ 문 의 : 총무원 054)748-0462 · 016-509-0462
총본산 054)261-7777 · 011-516-7474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2007-15호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종 [총본산 : 칠포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총무원 : 남산 천선사 (경북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교통편 안내
• 버스 : 102, 107, 200 (위치 : 포항종합운동장 정문 맞은편)
• 시외버스 :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이용 약1.5km)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이용 약2.5km)
• 자가운전 : 대구, 포항고속도로 이용
대련 I.C 경주, 대보방향 → 유금 I.C 포항방향 → 대잠사거리 우회전 후 직진 종합운동장 방면
• 청솔밭웨딩홀 TEL 054)283-0077~8



산사에서 번뇌 씻고 한해 갈무리

연말연시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다채

〈크리스마스·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사찰	프로그램	일정	전화번호/홈페이지	프로그램 내용
인제 백담사	크리스마스 템플스테이	12월22~25일	033-462-5665 www.baekdamsa.org	차훈명상, 다도, 걷기명상, 차명상
서산 부석사	크리스마스 템플스테이	12월24~25일	041-662-3824 wwww.busuksa.com	천수만 철새도래지 탐조·참선체험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7해넘이 08해맞이 템플스테이 고구마 가래떡 구워먹기, 전통놀이
	충효영어 교실	1월6일~12일		대상: 초등4~6학년 인원: 40명 영어교실과 전통예절 교실
연등국제선원	크리스마스 템플스테이	12월23~25일	032-937-7033 www.lotuslantern.net	염화미소 선 수련회 실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0~1월1일		참선, 불교입문과 아비라기도, 새벽 일출, 사경, 스님과의 다담
구례 화엄사	크리스마스 템플스테이	12월23~25일	061-783-7600 www.hwaeomsa.org	명상프로그램, 컵연등 만들기 등
	노고단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29일~1월 1일		노고단 산행, 일출, 새해 내게 쓰는 편지
	겨울선수련회	1월4~8일		참선수행의 고급과정으로 좌선위주의 참선프로그램이 진행됨. 참가기간 동안 묵언수행을 함께함
강화 전등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32-937-0125 www.jeondeungsa.org	고구마 구워먹기, 제야의 타종식, 떡국공양, 삼랑성돌이, 스님과 다담, 가족들을 위한 가족영화제
경주 골굴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54-744-1689 www.golgulsa.com	선무도 수련 및 시연관람, 1080배 서원정진, 좌선, 해맞이 기도 및 선무도 수련, 떡국공양
공주 갑사	새해소원기원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41-857-8981 www.gapsa.org	고구마굽기, 가래떡굽기, 죽공양, 축원 및 소원지소지공양
공주 마곡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41-841-6226 www.magoksa.org	해넘이 참회시간, 탑돌이, 촛불기원, 타종식, 떡국공양, 해맞이 걷기명상, 태화산정상법회, 108배
공주 영명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41-857-1854 www.youngmyungsa.org	생명의 소리와 함께하는 108배, 촛불공양, 새해희망발원1080배, 떡국공양, 장군봉 등반, 해맞이 기원법회
나주 심향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61-334-2880 www.simhyangsa.or.kr	금성산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진행함
부산 범어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51-508-3122 www.beomeosa.co.kr	윤좌법회, 타종식, 타종, 탑돌이, 산행
서울 홍국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2-381-7970 www.heungguksa.or.kr	소원등과 용채보 만들기, 연등 탑돌이, 새해맞이 발원문 쓰기, 북악산 일출 해맞이, 타종, 기원제
순천 송광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61-755-0107~9 www.songgwangsa.org	송사모와 함께 새해맞이 법회 실시, 조계산 대장봉 해맞이 등반
해남 미황사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12월31일~1월1일	061-533-3521 www.mihwangsa.com	참회정진, 스님과의 대화, 자유정진, 타종, 새해걷기명상, 영화상영, 달마산 등반

연말연시를 맞는 들뜬 마음을 사찰에서 추슬러보는 것은 어떨까? 전국의 각 사찰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에는 인제 백담사와 서산 부석사, 연등국제선원, 구례 화엄사 등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백담사에서는 '차(茶)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차훈명상, 다도, 차명상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서산 부석사에서는 천수만 낙조와 철새 탐조 템플스테이를, 연등국제선원이 12월 23~25일 개최하는 '염화미소 선 수련회'에서는 선원장 원유 스님과 외국인 스님들의 지도로 아비라기도를 배울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해를 넘기고 무자년 첫 태양을 맞이하는 '해넘이 · 해맞이 템플스테이'도 색다르다. 사찰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갖고 산에 올라 새벽해를 맞이하는 산행 템플스테이와 명상과 선무도 등을 배워보는 수련 템플스테이, 가족이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번잡함을 피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에게 템플스테이 체험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내년 2월까지 응모작 접수

사찰을 참배하거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추억을 새기기 위한 기념품을 구입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찰 내 불교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불구(佛具)나 기념품은 전국 어느 사찰이나 비슷한 것이 현실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우수한 불교문화원형을 발굴하고 한국불교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창의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제1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문화상품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화상품은 한국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것이면 소재와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의 경우 선택적으로 시제품을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불교문화상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2008년 2월 27~29일까지 응모를 받는다. 대상 1명 500만원을 비롯해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선정작품은 제품으로 만들어져 보급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참조.

문화사업단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불교문화상품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디자인이 낙후되어 있는 면이 있다"며 "참신한 디자인의 불교문화상품을 개발 · 보급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02)2011-1976

여수령 기자

불자 어린이청소년 불교영어 암송대회

참가신청은 12월 28일까지

영어에 자신있는 불자 어린이청소년이 주목할 만한 행사가 곧 있을 예정이다. 국제포교사회(회장 강영성)는 2008년 1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불교영어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부처님 생애(Biography of the Buddha for Children)>와 <본생담(Jataka)>이 암송원고로 제시된다. 원고는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부처님 일대기와 친숙한 동화가 주 내용이다. 제시된 총 7가지 이야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암송하면 되며, 표현력 · 발음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다.

원고는 국제포교사 홈페이지(www.idia.or.kr) 불교자료실에서 볼 수 있고 참가신청은 12월 28일까지다. (02)722-2206

김강진 기자

조계종 국제사회복지워크숍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한국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복지워크숍'을 개최한다. 재단은 이를 통해 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워크숍은 12월 22~23일 서울 도봉숲마을에서 '월드 시리즈 1: 공정무역으로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펼쳐진다. 참가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mahayana.or.kr)에서 할 수 있다. 사회복지재단은 몽골 · 스리랑카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02)723-5101

김강진 기자



조계종 인사동 남인사마당서 동지 행사

팥죽 맛보고 길놀이 구경하고

"인사동에서 팥죽도 드시고 길놀이도 함께 해요!"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이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오전 11시부터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2007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행사를 연다.

날마다좋은날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를 통해 민속절기의 의미를 살리고 동지 팥죽을 서울 시민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월 21일부터 새알 빚기를 시작, 1만5000인분의 동지팥죽을 쑤어 탑골공원 · 수유리 등에서 거리 배식을 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 · 선재동자원 등에도 배급할 예정이다.

팥죽나눔 뿐만 아니라 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한 줄타기 명인 권원태씨 초청 공연, 새해달력 나누기, 전통놀이마당 등도 펼칠 계획이다. (02)732-7272

김강진 기자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시청각 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

불교경전을 공부하시는 **학인(승려, 행자, 불자) 분들**이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해석 학습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시식 · 영반편 • 장의편 • 점안편 • 이운편 • 의식편 • 기타편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SD카드 지원,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전자북, 메모, 스케줄, 달력, 계산기), 영 · 중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종교인평화회의 충주서 운영위 개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의 7대종단 연합기구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산하 충북종교인평화회(kcrp)가 12월 11일 청주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종교평화 국제사업단 설립에 따른 충북지부등록을 결의하고 지부대의원 6명을 추천했다. <종교와 평화> 창간 1주년 기념행사는 2월 29일부터 1주일간 서울 인사동 경인화랑에서 열려 종단별로 작품을 출품했다.

또한 (가칭)남북누리나눔운동 사업에 회원가입과 적극참여를 결의했다. 이 사업은 북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이다.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게 목적이다.

한편 이날 종교평화회의 충북협의회 대변인에 혜철 불교공동대표(현대불교 신문 충청지사장)를 임명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치매 앓는 어르신들 가족에 음악 선물

어르신들의 음악회가 열렸다. 작은 종소리가 모여 음악을 만드는 일,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하다.

치매라는 병은 가족들에게 고통이다. 하지만 참석한 어르신들의 가족들은 음악회 내내 웃음 띤 얼굴로 흥겨워했다.

12월 7일 부산용호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치매어르신들과 가족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및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1년 동안 틈틈이 연습한 핸드벨과 타악기 연주는 참석한 모든 가족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춘성 관장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줄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용호복지관은 치매 치료를 위해 음악치료, 원예치료, 손맛사지, 기구운동, 물리치료를 실시해왔다. 하성미 기자

강원 파라미타 발대식 개최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가 12월 16일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으로 파라미타는 인천에 이어 13번째 지역조직을 결성하게 됐다.

강원파라미타 발대식은 낙산사 템플스테이와 병행됐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지부기(旗) · 현판 전달, 총재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한편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12월 23일 합천 해인사에서 합천지회 발대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02)723-6165 김강진 기자

익산 능인회 송년법회 봉행

익산지역 포교사들의 모임 능인회(회장 최학성)가 12월 8일 익산 한사랑 웨딩타운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심복사 화평 스님, 정각사 정산 스님과 한 해 동안 포교현장에서 수고한 포교사들이 참석해 정해년 한 해 동안의 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무자년 새해에도 알찬 포교활동을 다짐했다.

능인회는 군산교도소, 육군 부사관학교, 7공수여단 등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사상' 꽃피운 33인 조사스님 뜻 기린다

양산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삼삼조사 추모재'

석가모니 부처님은 문득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려 보였다. 모두들 침묵을 지키며 바라볼 때 마하가섭만은 뒤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의 눈이 마주치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언하셨다.

"나는 궁극의 진리와 깨달음으로 가는 비법을 갖고 있다. 모습 없는 모습이며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 문자나 말로 전할 수 없는 이 비법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禪)은 한 송이 꽃과 미소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후 부처님 이래 법등을 밝혀 온 제자들은 33인의 조사스님들로 이어졌고 현재도 그 법을 잇고자 많은 스님들이 정진 중이다.

선의 출발 마하가섭부터 아난, 나후라다, 달마, 혜능까지 33인의 조사를 생각하며 기리는 행사가 있다. 매해 음력 10월 그믐날 양산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선원장 명정)에서 개최하는 '삼삼조사 추모재'다. 이 추모재는 1955년 경봉 스님이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뜻을 이으며 중생들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 조사스님들의 진영(眞影)을 불화의 대가 덕문 스님에게 청탁하고 <전등록(傳燈錄)>을 따라 전법게(傳法偈)와 제작연대를 작성해 넣었다.

경봉 스님은 매년 추모재 봉행 때마다 "조사일거무소식(祖師一去無消息) 문외홍교여반월(門外虹橋如半月), 조사스님이 한번 간 뒤 소식이 없나 했더니 문 밖에 무지개다리가 반달 같더라"며 설법하셨다.

행사가 열린 12월 9일 극락호국선원 삼삼전을 찾았다. 영축산의 매섭게 춥던 날씨도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하고 따뜻하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극락호국선원 선원장 명정 스님,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였다.

"그동안 많은 스님들이 추모재에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옛날 송광사에서 열반하신 효봉 스님께서 추모재에 참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효봉 스님께서는 '오늘 방망이 34개를 가지고 왔는데 33개는 조사스님들께 다 드리고 한 개 남은 것은 누가 받아 갈 것입니까?' 하고 설법하셨지요. 추모재 후, 나가시는 효봉 스님의 손바닥을 경봉 스님이 세 번 탁탁탁 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삼삼조사 진영이 걸린 극락호국선원 삼삼전에서 추모재가 봉행됐다.

방장 원명 스님은 청중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옛 기억을 나누었다. 선원장 명정 스님은 추모재에 대해 "정법을 인식하는 참다운 의식으로 자리 잡고 조사스님들의 참된 가르침을 이어 수행하는 참다운 의식으로 자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삼삼전은 결제기간동안 스님들의 선방으로 정진하는 장소다. "조사일거무소식(祖師一去無消息) 문외홍교여반월(門外虹橋如半月)", 경봉 스님이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삼삼전은 선방 구도의 열기로 가득하다. 하성미 기자

선운사-동국대 복지포교 '맞손'

인적 교류 확대·시설 공동활용 등 상호협력 협약 체결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와 고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가 12월 9일 고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교육연구 강화와 고창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및 문화 봉사 지원 등을 기본으로 하는 '실천적 교류 협력'과 '상호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선운사와 동국대는 협정서에서 대학의 인적 교류를 위한 강원 교수스님과 불교관련학과 교수의 교류협력과 실무연수, 대학 도서관등 보유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 학인스님과 청년 불자 지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등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동국대와 고창종합사회복지관은 실천적 교류 증진을 위해 복지관에 대한 복지관련학과 기획, 연구지원과 의료 문화 봉사 지원, 복지관 직원 실무연수, 대학생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은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창지역 복지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복지관의 복지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운사·고창종합사회복지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선운사 주지 법만, 복지관장 무공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도 "전문적인 지식과 인적자원을 갖춘 종립대학과 상호교류와 복지를 통한 포교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정서 체결 후 동국대는 무료한방진료, 영정사진 촬영, 이미용 봉사, 무료 국악공연 등을 실시했다. 이로써 사회 복지관의 절실한 과제인 인적 자원의 부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포교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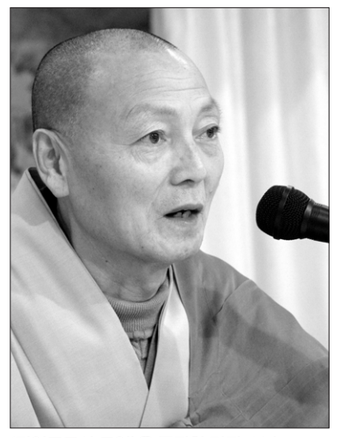
"직업 포교사 도입 검토해야"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직업 포교사를 두어 전문 인재를 길러 포교에 더욱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12월 11일 부산 불교회관 4층 교육관에서 동련과 울산 정토사가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한 세미나자리에서다.

덕진 스님은 "현재 포교가 미진하여 학생회 및 청년회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교종단은 아직도 고려시대의 교육제도와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포교현장의 인력이 많아야 불교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데, 스님들만으로는 역부족이니 동국대학 등 종단교육기관에서 불교교육을 받은 불자를 선발해서 스님을 돕고 포교일선에 직업적으로 나서게 하는 직업 포교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불교 포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덕진 스님은 불교발전을 위해 열 가지를 제안했다. ▲포교 지도자 수 증가 ▲불교의식 및 법회 우리말 진행 ▲비구니스님 종무직과 포교직 중용 ▲사찰재정 관리 스님 신도 함께 투명운영 ▲주말 가족법회 장려 ▲교육 복지시설 증대 ▲각 계층의 집단법회 장려 ▲선방수행승 해제철 포교 매진 ▲청소년 법회와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운영 ▲방송 인터넷 불교관련 보도 확장이다.



'직업포교사 도입'을 주장한 덕진 스님.

이번 세미나에는 동국대 이철헌 겸임교수가 '직업포교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를,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윤영애 교수가 '불교대학 졸업생의 사회진출과 그 개선 방안'을,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어린이 포교현장에서의 포교인력 현실과 어린이포교지도사 배출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하성미 기자

"난치병 환자와 함께 희망을 나눠요"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1400만원 성금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생명나눔광주전남본부의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가 12월 10일 '생명나눔 소아암 난치병 환우 치료비 지원 및 소아놀이방 장난감 지원'을 위한 지원금 1400만원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화순전남대병원 김영진 병원장 및 임원진,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현지 스님과 임원진, 자공스님(만연사 주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거행됐다.

특히 이 기금은 지난 10월 20일 화순 만연사에서 개최된 자선음악회의 수익금과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으로 뇌종양을 앓고 있는 이진호군 등 4명의 환우에게 치료비로 지원된다.

현지 스님은 축사를 통해 "난치성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자비의 후원과 도움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화순전남대병원장은 "마음은 있어도 행동하기 어려운 이때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고 보니 기쁘다"며 "임직원들도 환우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금조성에 많은 도움을 준 만연사 주지 자공 스님도 "소아암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7년 한 해 동안 100여 차례의 캠페인과 자선음악회를 벌여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중 가장 모범적으로 지원사업해 온 단체로 꼽히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교도소 법당서 독경대회

군산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성광문)는 12월 12일 군산교도소 법당에서 200여 불자재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선운사 지선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성광문 위원장과 지역 불자여러분들이 동참한 이날 독경대회는 예선을 거친 8명의 불자 재소자가 열띤 경연을 펼쳤다. 최우수상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경한 김 모씨가 차지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순간의 실수를 참회하며 살아가는 불자 재소자들에게 비누, 치약, 칫솔, 내의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다과가 베풀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후원: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정인 스님(왼쪽에서 네 번째)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자비' 양념 듬뿍 넣은 김장김치

광주불교사암聯 '김장 나누기' 행사

사단법인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가 12월 8일 불교회관 앞마당(치평동 무각사 內)에서 '희망과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규봉암과 증심사를 비롯한 사찰과 불교단체에게 기부한 김장김치와 현장에서 직접 담근 김치 400여 포기를 지역 불교복지단체를 통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정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예전부터 추운 겨울을 나기위한 준비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겨울김장담기'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의 · 식 · 주 준비를 할 수 없는 독거노인, 소년 · 소녀 가장 등 소외받는 이웃들이 존재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자비를 나누어 주는 것이 불자의 사명이다"라고 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스님들과 재가불자가 함께 '화합의 비빔밥'을 만들어 같이 공양하고 전통차를 무료 대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이들 '마음속 상처' 놀이로 풀어주세요

영주장애인복지관 '장애아 부모 일상탈출' 현장



12월 8일 영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도륜) 강당. 엄마와 장애아동 60여명이 모였다. 이날 프로그램은 '대집단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아 부모의 일상탈출'이었다.

이날 조현영(가명 · 38)씨는 아들 영우(가명 · 9)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가족구성원에 장애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신경쓰이기 마련이다. 내 아이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기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불편함에 대한 걱정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엄마의 생활환경 자체에 있다. 아이가 언어표현에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내내 부딪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조씨가 가끔 참다못해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날 프로그램을 통해 조씨는 스트레스가 가득 낀 눈을 씻어내고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 아이가 복지관에서 '놀이치료'를 하고 올 때마다 기분이 좀 풀려서 들어온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날 조씨는 '놀이'가 어떻게 아들의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됐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조씨 자신이 마음을 풀어냈기 때문이다. 아이와 엄마의 놀이 스킨십도, 옆자리 엄마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조씨에게는 모두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씨는 "이런 놀이가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일상탈출'이라는 이름에 끌려 참가했는데 속이 후련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 '놀이'란 '일'이라는 개념과 대비된다. 즉, 어떤 의무감도 억압도 없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유희를 즐기는 모든 활동이 놀이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놀이의 자유로운 특성을 활용, 정신치료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놀이치료'다.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약 10여년이 지났다. 이미 각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아니라면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영주시장애인복지관 놀이치료는 사실 원 개념 '놀이치료'의 파생 영역이다. 놀이치료의 대상은 거의 어린이청소년으로 국한시키기 때문이다. 이유는 어른과 아이에게 놀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른에게는 놀이가 단순한 유희지만 아이에게는 그 자체가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른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요즘 놀이치료의 대상은 확실히 넓어졌다. 얼마 전까지는 발달장애, 자폐증 등 뚜렷한 장애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만 그 대상이 되었다면 요즘은 장애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집중을 못한다던지, 야뇨증을 자주 일으킨다던지 하는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까지 놀이치료 대상이 된다. 즉, 평범한 아이라 할지라도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특정 행동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놀이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놀이치료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아이들을 이해하는 영역'이라는데 있다. 아이들에게 억압적으로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유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 울분 등의 부정적 감정을 용해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놀이치료의 종류에는 모래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미술놀이치료, 음악치료 등이 있다. 가끔 용어의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모두 이론적 배경의 차이에서 나온 치료기법들일 뿐이다. 아이들에게 미술, 음악도 예술이 아닌 놀이기 때문이다. 모두 '놀이'라는 큰 틀에서 세분한 기법들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중 가장 생소한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상자를 이용,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내면의 무의식 세계를 표출 ·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아이들이 모래의 촉감을 직접 느끼고 내면의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놀이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놀이치료지도자가 있는 복지관 및 시설(표 참조)을 찾아 우선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 적합한 놀이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 아이의 문제가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관여로 아이가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인심리상담연구소 박해숙 놀이치료사는 "아동의 성격형성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중요한데,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가족요인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억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놀이치료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강진 기자

〈표〉 놀이치료 운영 기관

기관명	연락처	치료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41-2077	유료
목동청소년회관	(02)646-0181	유료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02)248-4567	무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1-5001	무료
원광아동상담센터	(02)562-2082	유료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	유료
이대언어청각임상센타	(02)312-9656	유료
인간발달복지연구소	(02)584-9358	유료
한국소아정신건강크리닉	(02)393-7745	유료

* 그 외에 많은 사설기관과 일부 소아정신과내에서도 놀이치료를 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 '훈훈한 겨울나기'

교계 사회복지기관들 난방용품 지원 사업 팔 걷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돼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얼어붙지는 않았다. 불교계 각 사회복지 기관에서 연탄나누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난방용품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2월 14일 금호건설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누기'를 진행했다. 금호건설 직원 21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선 이 행사에서는 복지관 인근 창신동과 명륜동 거주 저소득층 어르신 5명을 대상으로 약 120장씩의 연탄을 전달했다. 내의, 이불 등의 겨울나기 용품도 연탄과 함께 보급됐다.

이에 앞서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12월 5~7일 한국마사회 시흥지점과 시흥시 1%복지재단 후원으로 시흥지역 저소득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행복을 전하는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총 25세대 5000장의 연탄이 지급됐다. 이 행사에는 마사회 자원봉사자 15명과 1%복지재단 직원 20명 등이 동원,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불교국제봉사단체 서울 반야라이온스클럽과 함께 12월 27일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독거어르신 100명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전기찜질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02)2282-1106

김강진 기자



⑧ 선재동자원 봉사자 윤선영씨

복지현장에서는 참 많은 칭찬들이 오고간다. 서로 묵묵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덕담 한마디가 원기를 북돋기도 하기에.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 그것 하나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번 이야기는 의정부 선재동자원(원장 지산) 봉사자 윤선영(48·사진)씨다.

"봉사하면서 되레 배우지요"



"아유, 부끄러워요. 우리 불자들 마음이 다 똑같지 저만 그럴까요."

선재동자원에서 만난 윤씨는 언제나처럼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미 내 살림인 듯, 자연스럽게 그릇을 부시고 깔끔하게 정리해 낸다. 수줍게 웃으며 자신은 인터뷰를 할 만큼 좋은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고개를 젓지만 그는 이미 아이들과 다른 봉사자들에게 인정받는 봉사자로 자리 잡았다.

의정부 선재동자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생활시설이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만 현재 48명. 젖먹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아이들 생활시설이라고 괜히 좀 우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얼마나 밝다고요. 우리는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될 정도인걸요."

2년째 선재동자원 봉사자로 활동
月 2회 식사 공양· 교복비 보시도

처음 유씨가 선재동자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5년 전이다. 유씨의 친구가 "아이들 돌보는 좋은 일 하는 스님이 계신다"며 선재동자원이 있는 통일안국사에 데려 온 것이 그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었죠. 좋은 일 하시는 스님이셔서 제 마음속에 절로 그 좋은 마음이 옮겨 오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찰을 열심히 찾고 금전적인 후원을 하다 2년 전부터는 선재동자원에 아예 봉사자로 자리를 굳혔다.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어 집이 가까운 이유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그를 선재동자원으로 불러들였다고 한다. 요즘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선재동자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 눈망울 보면 내가 더 할 일이 없을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다른 보살님들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현재 '선재회'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윤씨는 여기서 총무겸 장보기 담당을 맡고 있다. 항상 싱싱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 없단다.

윤씨가 소속된 선재회는 한 달에 두 번 선재동자원에 방문, 아이들 저녁 공양을 책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따로 조금씩 회비를 걷어 반찬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새학기에는 아이들에게 입힐 교복비도 200만원씩 내놓는다. 모두 아이들을 향해 한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는 바람들이다.

"지금 이대로, 다른 보살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배워가는 것이 많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동북아 역사 난장에서 일갈을 하다

김성철 교수,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수상



올 한 해도 불교 관련 논문들이 저명한 여러 학술지에 게재됐다. 그 논문들은 저마다 해당 분야에서 학문적 공헌을 했지만 대다수 논문에 쏟아지는 '상아탑에 갇힌 학문을 위한 논문'이라는 질책은 아쉽기만 하다.

논문이 상아탑의 담장을 넘어 대중적 공감을 형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가 발간하는 계간 <불교평론>이 올해 논문상으로 선정한 '삼론가의 호칭과 승랑의 고유사상'(<불교학연구> 제17집 게재)에 그 좋은 본보기가 있다.

승랑은 고구려 출신 승려다. 학술적으로 삼론종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하지만 그의 저서가 전해지지 않아 다른 이의 서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의 사상을 연구해야 한다.

특히 중국불교 문헌에 승랑 및 삼론종 논사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해 해석의 어려움까지 있었다. 여기에는 민족감정이 더해졌다. 중국과 일본 불교학자들은 삼론종에서 승랑의 비중을 줄여 해석했지만, 한국 학자들은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똑같은 자료와 인물을 두고 한 · 중 · 일 동북아 삼국의 민족적 감정이 반영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논문을 쓴 김성철 교수(동국대 · 사진)는 1년 동안 승랑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연구 목적을 승랑의 위상과 사상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데 뒀다. 기존 승랑과 관련된 몇몇 문헌들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삼론종 관련 문헌들과 승랑이 언급된 고승전 및 역사서, 비문들을 포함한 각종 자료에 대해 엄밀한 문헌학적 분석 작업을 했다.

그는 기존 연구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열거한 후 삼론종의 여러 호칭들이 사용된 용례를 분석했다. 각종 문헌들이 사용하는 호칭의 특성을 파악해 승랑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호칭을 추적했다. 그의 연구는 호칭의 정리를 넘어 승랑의 고유사상을 열두 가지로 서술했다.

<불교평론> 논문상 심사위원회는 "김 교수의 논문은 과소 · 과대평가됐던 승랑의 위상을 객관적 ·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논쟁의 한가운데서 잊혀지고 곡해됐던 승랑의 역사를 복원했다"고 당선 이유를 발표했다. 사회 이슈에 대한 불교학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논문이라는 것이 심사에 참가한 위원들의 평이다.

한편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불교평론> 조성택 편집주간(고려대 교수)과 편집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됐다. 조동섭 기자

누가 저 불상을 만들었을까?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 편찬돼



사찰마다 장엄하게 모셔진 불상은 사람들에게 환희심과 신심을 불러일으킨다. 불상은 그동안 어느 시대의 것인지만 중요했을 뿐 누가 만들었는지 주목받지 못했다. 불상을 보며 누구나 한번은 가졌을 "누가 만들었을까"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줄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그것은 바로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이다. 이 책에는 조선후기(1600~1910)때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과 이들 불상을 중수 · 개금한 승려장인의 활동이 나와 있다.

승장(僧匠)은 승려면서 장인을 일컫는 말이다. 사전의 시기가 조선후기로 한정된 것은 임진왜란 때 다수의 사찰이 소실돼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중창과 중건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책은 '언제 살았던 누가 어떤 불상들을 만들어 이것이 지금은 어디에 모셔졌는지'를 말해 준다. 한 예로 "계초(戒初:1754~1790)는 1754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곡성 수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고, 1757년에 수화승 상정과 전남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개금했다. 1790년 경기 화성 용주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중 석가불을 제작할 때, 전라도 정읍 내장사 통정대부로 언급돼 있다. 그는 18세기 전반의 조각승 진열과 상정을 계승한 대표적 조각승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스님이 조성한 불상 사진이 수록돼 있다. 연구자들을 위해 문헌기록과 참고문헌도 빠지지 않았다.

이 책에 수록된 승장은 모두 942명으로 조선후기 300여년동안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승려들이다. 불상을 조성한 승장 뿐 아니라 118명의 수화승(首畵僧:불상 조성의 책임자)에도 주목했다. 수화승을 함께 기록한 것은 불교조각품을 만든 조각승들의 행장과 사승(師承)관계의 파악에 도움을 준다.

책을 쓴 최선일 박사(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는 이들을 좇아 3년간 전국 사찰에 발품을 팔았다. 불상의 발원문, 불화의 화기, 사찰의 사적기 또는 비문 등 300여건의 기록을 정리했다.

김리나 명예교수(홍익대)는 "이번 인명사전의 발간을 계기로 조선후기를 넘어 전 시대에 걸친 조각승 뿐 아니라 불화승, 주종장(종 만드는 승려), 도편수(목수) 등 다양한 불교미술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교회화' 편이 출간될 예정이다. (02)718-4831

조동섭 기자

부여 왕흥사지 사리구 성분 확인돼

사리병 98%이상 순금 다른병 순도 99% 순은



백제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세웠던 부여 왕흥사지에서 지난 10월 발굴됐던 황금사리병(사진)이 순금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사리병 발굴 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 성분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12월 7일 발표됐다. 사리병은 98% 이상의 순금으로 제작돼 금제사리병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한 점은 은 순도가 99% 안팎으로 순은으로 제작됐다.

발굴 당시 사리구에는 백색미상물질이 있었다. 이것이 사리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납(Pb) 성분과 구리 성분이 검출돼 사리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12월부터 2차로 심초석 남측에서 출토된 유리 · 옥 등 구슬류, 금제환, 흑 · 백색 유기물질, 상평오수전, 사리병 내부 액체물질 등 27건 59점에 대해서도 성분을 규명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출토유물들의 재질규명, 산지추정, 제작기법 등이 확인될 것으로 학계는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익산 미륵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전북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한 제석사지 익산토성 무왕릉 등 백제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12월 10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려 익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시와 지역주민들의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올해 초 '고도(古都) 익산 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익산의 관련 유적과 유물 등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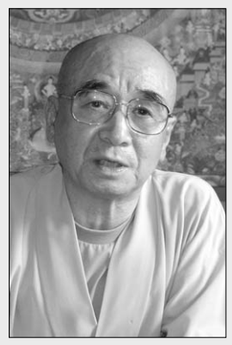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등재신청 대상 문화재로 선정된 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 파견 조사를 거쳐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마한 백제연구소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익산의 유적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다"면서 "엄격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단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익산 역사지구는 '고도보존 특별법'에 따라 경주와 부여, 공주 등과 함께 '고도(古都)'로 지정된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초산 스님 국민훈장 목련장 서훈

북관대첩비 반환 공로 인정받아



초산 스님(한일불교복지협회 이사장 · 사진)에게 국민훈장목련장이 서훈됐다. 스님은 일본에 방치됐던 북관대첩비의 국내 반환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승전기념비다. 임진왜란 때 정문부 의병장이 함경도 경성과 길주에서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숙종 34년(1707년) 길주군에 세워진 것이다.

1905년 러일전쟁 중 일제에 약탈돼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됐었다. 지난 2004년 금강산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된 이래 초산 스님은 '북관대첩비 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반환운동에 앞장섰고 지난 2005년 10월 20일 국내 반환을 이뤘다.

한편 12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2007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시상식'에는 초산 스님의 훈장 서훈과 함께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문화유산상 봉사 · 활용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탁본의 대가'로 알려진 스님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성보박물관장으로 전통문화재 보존은 물론, 여러 차례의 기획전을 통해 성보박물관 운영 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동섭 기자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종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게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제10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 062)362-8604 / 혜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학장 **혜공** 스님

진정한 은사님처럼 기소와 범패신동의식 교육을 잘 섞어 주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8년 제 10기 신입생 및 통신생 모집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각종소, 낭독하는법
- 겉채비 : 바라춤,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과 정 : 2년(4학기)
◆입 학 식 :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1학년
매주 월요일 오후3시 ~ 5시30분까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 4(우 502-242)
◆학 장 : 혜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8년 1월 9일 ~ 1월 12일 3박 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 : 강의, 오후시간 : 실기교육위주)**
- 1월 9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월 10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법종불사 의식하는 법
- 1월 11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상축하는법, 창홍의식하는 법, 부도 제막식하는 법, 삼재기도하는 법
- 1월 12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큰불사시 관음에 법하는법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일반불자 - 평상시 복장, 필기도구, 소형녹음기**


판전의 경판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봉사자들.


주련과 문살에 내려앉은 먼지도 붓으로 꼼꼼히 털어낸다.


봉은사 대웅전 부처님을 소제하는 모습.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동시에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한다.

"먼지 털며 번뇌도 쓸어냅니다"

['도량청정 마음청정' 봉은사 첫 소제법회 현장]

법당 부처님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는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

자칫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만 앞서 대충 물걸레로 불상이나 불화를 닦아 낭패 본 적이 사찰마다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문화재 청소법을 모르는 탓이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바른 성보(聖寶) 문화재 청소법을 배워보는 이색 '소제(掃除)법회'가 12월 9일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처음으로 봉행돼 눈길을 끌었다.

'소제'란 빗자루로 쓸고 버림을 통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다. 전통적으로 부처님오신 날이나 초하루법회 같은 큰 법회를 앞두고 사찰에서 행해왔다. 하지만 소제가 정기법회로 정착되지는 않아, 오늘날 정기적으로 소제 행사를 진행하는 사찰은 거의 없는 편이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1년에 한두 번 법당을 청소하거나 불상의 먼지를 떨어내는 정도로만 청소를 하고 있다. 실제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의 현장조사 결과 불화에 곰팡이가 피거나 불단 위에 쥐가 죽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예가 많았다.

조계종 문화부는 각 사찰이 성보문화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문화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제법회 의식을 마련했다. 이를 각 사찰마다 보급해 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단 차원으로 처음 소제법회를 봉행한 봉은사는 12월 9일 법왕루에서 소제의식을 봉행했다. 소제의식은 삼귀의와 신중청(神衆請), 거목(擧目), 향화청(香花請), 다게(茶偈), <반야심경>, 불설소재길상다라니(佛說消災吉祥多羅尼), 보회향진언(普回向眞言)을 외는 순서로 진행됐다. 도량을 청소하기에 앞서 사찰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 보호해달라는 뜻에서다.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소제가 먼지를 털고 때를 닦는 것이라면, 수행은 마음의 때를 털고 닦는다는 점에서 소제와 수행은 동일하다"며 "처음 출가한 이에게 소제를 시키는 것도 이러한 수행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법회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스님은 부처님이 제자 주리반특가에게 빗자루를 이용해 소제하는 법을 일러준 예를 들며 "비질을 하며 마음의 번뇌 · 망상을 떨쳐내는 소제법회를 통해 도량청정이 곧 마음청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청소 배우는 최초 '소제법회' 눈길
정갈해진 도량만큼 신도들 마음 청정해져

주지 명진 스님은 "일전에 한 신도가 영산전 불상을 물걸레로 닦아 얼룩진 예가 있었다"며 "다행히 이번에 조계종 문화부가 성보관리요령을 알려주는 기회를 마련해 부처님을 청정하게 잘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소제법회 봉행을 반겼다.

소제법회에 동참한 봉은사 국장스님들과 신도 100여 명은 4개 조로 나뉘어 대웅전과 판전(板殿), 사천왕상, 범종을 맡았다. 봉사자들은 장갑과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하고 자신들의 소제구역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붓과 청소기, 마른 걸레 등을 챙겼다. 소제는 문화재보존관리전문가 김홍식 위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의 지휘로 진행됐다.

대웅전 소제는 불단의 공양물과 촛대를 치우는 것으로 시작됐다. 붓으로 불상의 먼지를 털고 옆에서는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했다. 큰 붓으로 대강 쓸고 난 후 작은 붓으로 부처님의 머리인 나발(螺髮)과 옷주름을 세세하게 털어냈다. 붓자락이 스쳐지나가는 곳마다 켜켜이 묵은 먼지가 일었다. 소제를 시작한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장갑과 마스크에 먼지가 잔뜩 묻었다. 사찰 입구의 사천왕상에도 소제의 손길이 미쳤다. 빗자루로 거미줄을 제거하고 전각의 유리도 깨끗이 닦았다.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판전은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청소의 시작을 알렸다. 판전의 끝자락에 쌓인 묵은 먼지를 털고, 주련과 문살 위의 모래먼지도 깨끗이 털었다. 대강의 청소가 끝난 후 판전에 모셔진 불상의 좌복을 제거했다. 불상 아래 깔아두는 좌복은 습기를 흡수하고 수평을 이루지 못해 불상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습기와 얼룩으로 가득한 좌복을 보며 신도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두 시간여의 소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선불당에 모였다. 머리에 온통 먼지를 뒤집어썼지만 얼굴 표정은 더 없이 환하다. 봉은사 내의 9개 전각을 관리하는 모임인 전각부 부장 최무애지 보살은 "평소 전각 청소를 하며 먼지가 많아 안타까웠는데 올바른 소제 방법을 배워 여법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정갈해진 도량만큼이나 봉은사를 찾는 신도들의 마음도 청정해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국장 수경 스님은 "사찰 소제법회는 성보를 깨끗하고 여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소제 때마다 성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각 사찰마다 정기적으로 소제법회를 봉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앞으로 전국 사찰에 매뉴얼을 보급해 소제법회를 정례화 해 나갈 계획이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전국 사찰이 정기적인 소제법회를 봉행해 성보를 체계적이고 정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보 관리 이렇게 하세요

① 성보 소제에 앞서 장갑, 마스크, 덧버선 등을 착용한다.
② 성보 주변을 깨끗이 하고 성보를 소제한 후에도 다시 주변을 정리한다.
③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털어낸다. 먼지는 붓을 사용하되 먼저 큰 평붓으로 여러 번 부드럽게 먼지를 털고, 조각된 부분은 작은 붓을 사용한다. 붓은 직각이 되지 않도록 45도 정도 눕혀 사용한다.
④ 먼지를 털어내면서 동시에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먼지를 흡입한다. 청소기는 성보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유지한다.
⑤ 성보보존을 위한 적정 온도는 19±2℃이고, 습도는 55~60%를 유지한다. 습도가 70%이상일 때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습기제거에 만전을 기한다.
⑥ 불상 아래의 좌복은 습기를 흡수하고 수평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 불상 : 부드러운 붓으로 먼지를 제거한다. 습기찬 방석은 제거한다.
■ 불화 : 맑은 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뒤집어가며 건조한다. 붓으로 액자틀, 지지대, 고리 등의 먼지를 제거한다.
■ 불구 : 금속류는 깨끗이 닦아 청결을 유지하고 목조류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건조시키고 먼지를 제거한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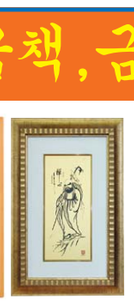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분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비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일주문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송년회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정념 스님은 12월 17~18일 평창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살자 위령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피살자를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제6차 간화선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12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기총회 및 송년법회 봉행
사단법인 우리는선우 성태용 이사장은 12월 8일 서울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정기총회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봉은사서 공개특강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2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무료 공개특강을 진행한다.(02)3218-4810

"지역 불교사회복지에 힘 실어주세요"

불교사회복지대회서 복지부 장관상 수상


중리사회복지관장 진홍 스님

"복지관훈인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이념 아래 복지에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1994년 마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11년째 이끌어온 관장 진홍 스님(사진)이 12월 14일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대상격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16년째 지역복지현장에서 일해 온 복지 베테랑이다. 스님의 이런 활동은 불교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큰 귀감이 돼왔다. 불교복지관계자들을 "스님의 수상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전할 정도다.

진홍스님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점점 더 다양화·전문화 되어가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 사업마다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만족하고 감동하는 복지관,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한걸음 가까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개금복지관 박용하 관장

"좋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큰 상을 받아 송구스럽습니다. 지역 불교사회복지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12월 14일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2007 불교사회복지대회' 복지유공자 포상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된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박용하 관장(사진)은 수상 소감에서 지역 불교사회복지실천가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박 관장은 20년 동안 복지현장에서 일하며 지역맞춤식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우수한 시설 운영 등을 인정받아 이번 불교사회복지 대상 격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관장은 어린이 포교에도 정진, 2년 전 어린이 포교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 종단과 함께 더 좋은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방분권화에 맞는 불교사회복지 정체성 찾기에 더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복지에 매진했던 열정 그대로 불교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했다는 박 관장은 "아직 불교사회복지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민족화해상 법륜 스님 선정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사진)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세현, 민화협)가 수여하는 제5회 민족화해상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12월 13일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한승헌 변호사)는 "법륜 스님은 1996년부터 식량난으로 어려운 북한 동포돕기에 나섰으며, 사단법인 좋은벗들 설립, '오늘의 북한소식' 발행 등을 통해 북한의 실정을 알려왔다"며 "또한 2004년부터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통일 정책을 모색하는 민간 연구재단으로서 국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단법인 평화재단'을 설립해 국제심포지엄, 워크숍, 전문가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고



12월 10일 입적한 선광 스님(서산 개심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사진)의 다비식이 12일 예산 수덕사에서 봉행됐다. 혜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선광 스님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개심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12대, 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법랍 43세, 세수 57세.

부산산업대상 부산불교계 실업인들 수상

근로복지대상 이영숙
봉사대상 김윤환





부산 불자 실업인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코모도 호텔 이영숙 대표(사진 왼쪽)와 (주)영광도서 김윤환 대표(사진 오른쪽)가 부산산업대상 근로복지대상, 부산산업대상 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부산산업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에서 1983년부터 제정하여 부산상공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해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상이다.

근로복지대상을 수상한 이영숙 대표이사는 남녀 고용기회 균등 제공과 고용차별 해소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원 사택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통한 자기계발과 각종 교육을 전산적으로 지원하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코모도 호텔은 무분규, 무교섭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모범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봉사대상을 수상한 (주)영광도서 김윤환 대표이사는 매년 소년소녀가장, 야간 근로 청소년, 군부대, 교도소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양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영세민, 장애인, 독거노인 75세대를 선정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및 '사랑의 겨울나기 운동'을 추진해 지역 상공인의 귀감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18년 간 '독서 감상문 현상 공모'를 실시하고 아울러 14년 동안 190여명의 유명 작가가 직접 참여한 '영광도서 토론회'를 세계적인 독서 토론회로 발전시켰다. 하성미 기자

"지역 내 이주민 포교에 역점"

횡성불교연합회 초대회장선행 스님



"농촌지역인 횡성군은 많은 동남아 처녀들이 시집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몽골, 태국, 미얀마 등 대부분 불교국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역불자 포교는 물론 이들을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새해부터 한글학교 및 불교교리 강좌 등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12월 7일 횡성불교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선행 스님(죽림산사 주지·사진)은 이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현재 횡성지역 사찰은 대략 40여개 정도.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세가 강한 지역이라 그동안 각 사암들은 연합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불교포교에 나서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었지만 엄두를 못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생각한 선행 스님은 각 사찰을 돌아다니며 연합회 결성 의지를 알렸다. 순식간에 80%가 넘는 사찰이 동참 의사를 밝혀 연합회가 결성됐다.

내년 1월 9일 지역 군수 등 단체장들과 불자들을 초청해 신라타운에서 연합회 창립법회를 열 예정이다. 선행 스님은 "처음 창립한 만큼 큰스님 초청 대법회와 산사음악회 같은 큰 규모의 행사를 자주 열어 지역민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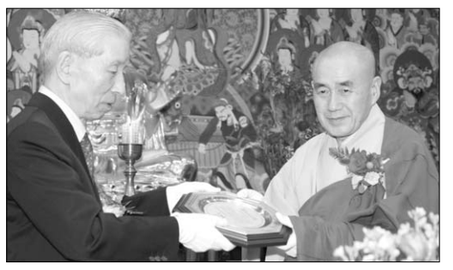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학인에 장학금 지원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중앙승가대에 재학 중인 학인 234명에게 30만원씩, 총 70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중앙승가대학 이사장)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달식을 열고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보각 스님(불교복지학과 교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호압사 범종루 낙성 및 타종법회


서울 금천구 호압사(주지 지정)는 12월 10일 범종루 낙성 및 약사여래신종 타종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호압사 회주 정휴 스님과 한인수 금천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호압사 약사여래신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원광식 종장이 제작했다.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시상식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12월 7일 다보원 대법당에서 '제5회 대원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과 (사)동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대상을 받았다.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개최


제15회 불교언론문화상(대표 수불) 시상식이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상을 받은 KBS '차마고도-순례의 길'을 연출한 서용하 PD를 비롯해 TV·라디오·신문·출판 등 4개 분야 10명의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재) 한국불교총화종 유지재단 선포식 및 전남정 총무원장 출판기념 법회

모시는 글

大望의 戊子年 智慧의 해를 맞아 各 宗團에 無窮한 發展과 內外 貴賓의 각 가정에 健康과 多福과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늘 함께 하시기를 합장 祝願드립니다. 이번 저희 종단이 수십 년 숙원 끝에 財團法人 한국불교총화종 有志財團을 설립하여 宣布式 및 현옹 남정 큰스님 출판기념 法會를 奉行하오니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 2008년 1월 19일(음, 12월 12일) 오후 4시 정각
장 소 : 세검정 하림각 2층 대강당
(☎ 02-396-2442 종로구 부암동 188)
연락처 : 총화종 총무원 사무실 031)592-8891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봉행위원장 최만재 집행위원장 이남은 준비위원장 이만오

종 정 이동광
부 종 정 주인현, 최혜산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종회부의장 기혜성, 김운산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기획실장 박현오

문화원장 백만우 / 총무부장 엄남오 / 교육원장 이남은
사회부장 윤대암 / 호계원장 김혜각 / 호법부장 조민호
감찰원장 김혜암 / 교무부장 조관오 / 포교원장 정일광
재무부장 강설오 / 선원장 이만오 / 조직부장 이여산
포교부장 이지우 / 포교기획부장 / 문화부장 김지혜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 호계부장 황해월 / 호계기획부장 박보광
감찰부장 이법오 / 조사부장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서울(남)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경기(북부)종무원장 유법경
경기(동,남)종무원장 최일광
경기(성남)종무원장 정법연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대전교구종무원장 윤법전
충청교구종무원장 김법현
경북종무원장 정일광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박심공
부산교구종무원장 최만재
강원 제1교구 종무원장 정혜산
강원 제2교구 종무원장 한만혜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김현산
제주교구종무원장 김봉도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

해외불교칼럼

기독교신약성전에서 사라진 예수의 몇 년을 채우고자 마침내 할리우드가 나섰다.

2009년 개봉될 영화 애퀘어리언 가스펠(Aquarian Gospel)에서 예수는 인도의 불교사원들에 머물며 운수행각을 하는 신비주의자로 등장, 부당한 카스트 계급제도에 저항한다. 기독교성전을 새롭게 발굴 해석하는 개역학계에 심층 접근한 제작진은 기존의 성전에서 누락된 그의 13세부터 30세까지 공백을 매울 자료들을 죄다 끌어 모았다. 총제작비 2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영화는 예수를 수많은 인도 종교에서 영적 감동을 얻은 성자이자 스승으로 그려낸다.

영화 타이틀은 미국의 리바이 다울링목사가 기독교의 동양적 근원을 집중탐구, 1908년 초판을 발행한 후 현재까지 53쇄를 찍은 그의 저서 제목을 따랐다.(역자 주: 다울링은 18세에 목사, 남북전쟁 당시 군목으로 종군, 링컨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설교, 두 곳의 의과대학을 마친 개업의 및 저술가). 첨단애니메이션기법을 동원해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그리스 간 테르모필레전투를 재현할 제작진은 아랍어로 예수라 판단되는 예슈아(Yeshua)의 중동부터 인도까지 행적을 추적하며, 할리우드는 물론 인도판 할리우드인 발리우드에서 배역선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예수의 인도 시절을 담은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예수가 인도로 들어간 통로가 표시된(굵은 선) 지도.

영문기독교성전에는 예슈아의 초기인격형성기에 대해 일곱 낱말만 적혀있다. '그 아이는 지혜롭고 당당하게 자랐더라.' 2006년 인연의 신비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크리트(the Secret)로 컬트스크린 계를 뒤흔든 이 영화의 감독 드루 헤리엇은 예수가 동방여정을 통해 이질문화와 접하며 세계적 종교들의 기본원칙들을 발견해간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세 사람의 현인을 스승으로 섬긴 그의 삶을 환상적이며 박진감 넘치게 처리하며, 젊은 미녀가 등장하나 그가 그녀에게 애정적 관심을 갖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작진은 불교철학과 인도의 여러 종교가 그의 사고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 제작자 시즈키넌은 '우리는 정전 건너편에 실종된 진실을 찾아 나섰으며 그가 인도의 불가촉천민계급들 감싸 안는 모습 등을 그릴 것이다'고 밝혔다. 그야 어떻든 이 영화로 인해 자칫 관람거부 등 제2의 다빈치코드소동이 터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와 유사한 소재들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허구한 날 여기저기서 티격태격 중이다.

제정러시아의 귀족출신으로 장교, 스파이, 언론인이던 니콜라스 노토비치의 1890년 선구적 저서인 <예수그리스도의 미지의 생애>, 홀거 커스텐의 <인도의 예수>를 비롯해 <예수는 두 번 인도에 갔다>, <예수의 무덤> 등 아래 사이트에는 상세한 여행경로지도가 포함된 것도 있다.

또한 조던 맥스웰의 '벗겨진 진실'과 영국BBC의 '인도캐슈미르의 예수' 및 '예수가 안 것은 인도에서 배운 걸까?' 등 영상다큐멘터리는 연휴 때 온가족이 함께 즐길만한 볼거리다.

편역:성휴 스님

관련저서

Unknown Life of Jesus Christ, sacred-texts.com/Jesus in india, eocities.com/Jesus went to India, twice, salagram.net/Tomb of Jesus, tombofjesus.com *영상다큐멘터리 Youtube.com:The Naked Truth with Jordan Maxwell/ Jesus in Kashmir, India/Did Jesus learn what he knew from India?)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❺

불자는 승리를 훔치지 않는다

타이거 우즈가 고교에 진학하면서 골프훈련의 강도도 급상승했다. 그러나 그는 연습하기 쉬운 코스를 살살 챙기는 따위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 게다가 최악의 조건에서 특유의 도전의식마저 발동한 그는 상급반 때는 대학수준의 경제와 행정을 추가 선택했다.

"그는 최고의 스포츠맨이었지만 학업에 대해 늘 경건한 자세를 지녔죠." 그가 고교1년 때 세계사를 가르친 우드 선생님은 지금껏 찬탄을 금치 못한다. "우즈 그 친구의 두 눈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교실에서나 골프코스에서나 똑같이 진지한 눈이죠."

특히 졸업반 때 행정과목담당 버터필드선생님은 그의 올곧은 학구정신을 기억한다.

"전 우즈만 생각하면 '양심적'이란 단어가 떠올라요. 토너먼트가 낼모레로 다가올 때였죠. 공부는 해야겠고 시간은 쫓기고 몹시 고민하던 우즈가 제게 오더니 자신이 최선을 다할 테니 수업을 따라 잡으려면 뭘 어떻게 할지만 가르쳐 달래요. 우즈는 골프를 핑계로 교과과정을 어물쩍 넘어가거나,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 적당히 학점을 때워보겠다는 식의 비열한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죠."

불자 타이거 우즈는 골프코스에서는 물론 교실에서도 승리를 훔치려 하지 않았다. 여느 체육인이든 연예인이든 그에게서 배울 것이 참으로 많다.

마치 성난 수탉처럼 사지 멀쩡하게 경기장이나 무대 위를 펄쩍펄쩍 누비며 카리스마니 뭐니 으스대다가 막상 군 입대 얘기만 나오면 느닷없이 허리가 비끗했느니 발목인대가 늘어졌느니 비 맞은 병아리마냥 비실대는 이른바 병역회피 공인들, 타이거 우즈는 그들에게 '훔친 승리나 인기는 좀도둑질'임을 가르친다.

또한 그는 골프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맹훈련으로 극복했듯 학업도 가장 힘든 과목에 연속집중타를 퍼부었다. 그의 스페인어 담당 맥기니스선생님의 회고다.

"스페인어에 무척 애를 먹더니 한 학기 내내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또 같은 반 스페인어권의 친구들이랑 줄곧 어울리며 결국 회화까지 깔끔하게 끝내버리더군요. 제가 원래 학점이 짜기로 소문났지만 A를 안 줄 수가 없었죠. 학기 말이 될 즈음, 전 마침내 제자인 우즈를 존경하게 됐어요."

영원한 우등생 타이거 우즈를 키워낸 스승들의 위대함, 또한 초대강국 미국의 원천이 교육임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다시 우드 선생님의 말씀이다.

골프 핑계 대지 않고 학업에 충실

올곳은 학구정신에 교사도 감동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 중 예닐곱 명을 일생동안 기억합니다. 제게 타이거 우즈가 바로 그 중 한 명이죠. 그가 골프토너먼트에서 단 한 번의 우승을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필드에 나선 선수는 타이거 우즈라는 개인이다. 하지만 그의 영원한 챔피언트로피는 그를 곱고 굳세게 키워준 부모님, 그를 올바르게 가르쳐준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내 뜻대로 성공해주는 자식에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을 타박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무엇을 어찌 해왔는지 돌아보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스승님의 마음가짐 또한 마찬가지리라.

성휴 스님

'쭈치기금회' 국적·종교 초월 자원봉사 실천

남아공 줄루원주민 봉사요원 임명

세계적 불교자비재단인 '쭈치기금회(慈濟基金會)'는 지난 11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원주민 8명을 2년간 교육 끝에 봉사요원으로 정식임명, 현재 타이완 본부에서 최종연수 중이다. 45번째 쭈치봉사단 파견국이 된 짐바브웨에 거주하는 타이완출신 사업가들을 포함한 동 연수과정 수료 후 이들은 현지로 복귀, 고아보육, 에이즈환자후원, 직업교육 분야에 봉사한다.

쭈치재단은 현재까지 약1만4천명의 줄루원주민의 보건위생관리, 생계보조 등을 실시했다. 동 재단은 1966년 타이완의 비구니 청옌(證嚴) 큰스님이 중생구제즉불심(衆生救濟卽佛心)이란 신념으로 가정주부인 보살 35명의 작은 보시를 모아 설립,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청년봉사기구(慈濟大專青年聯誼會)등 450만 회원들이 자비행을 펼치며, 쓰나미재난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국가의 긴급지원은 물론 이슬람사원을 신축해주는 등 국적,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한 순수자원봉사를 실천한다.

비영리다국적자비기구인 동 재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각급 교육기관 및 장학기금조성, 그리고 병원과 보육시설들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참여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출처:CNA

불교센터 신축부지 구입 개축불사

지난 2005년 아프리카대륙의 심장이라 일컫는 우간다의 카웸페에 최초로 설립된 불교센터가 태국, 일본, 브라질, 미국불자들의 지원으로 신축 부지를 구입, 지난 11월부터 빅토리아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수도 캄팔라국제공항 인근의 산사로 개축불사에 들어갔다.

태국불자협회는 정치경제사회 불안정으로 정신적 공황에 시달려온 우간다국민들을 위해 현지어로 평화를 뜻하는 '미렘베' 청동불상을 봉헌했다. 붓다라키타 주지스님은 동 센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불교단체들과 더불어 아프리카 포교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 밝혔다. 출처:UPI

중국 황금사찰모형 스웨덴서 재조립

1933년 시카고세계박람회에 전시됐던 18세기 중국의 황금사찰 모형이 동부 스웨덴의 말라렌 호반에 재조립된다. 80년 전 스웨덴의 탐험가 스벤 헤딘이 스웨덴 계 미국인 발명가인 빈센트 벤딕스의 재정 후원을 받아 중국의 본 사찰을 미국에 이전하고자 했으나 중국 측에서 단호히 거부, 그 대신 축소형 모형을 양도하여 당시 세계박람회에 조립 전시된 후 1985년까지 창고에 소장되어 왔다. 출처:U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t will pass soon –곧 지나가요

A young monk asked a serious Dharma question to his master, but he kept laughing and walked away. Much disturbed, the monk couldn't eat, sleep nor think for a couple of days. Finally, he returned to the master," Venerable, I should say you hurt my ego indeed."The master chuckled again,"You fool!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worse than a clown!" The monk ground his teeth with anger,"Venerable, how can you say such a thing?! How can I be worse than a clown?"The master kept laughing, "Listen, you idiot! A clown enjoys seeing people laugh. But you got hurt because I laughed. Tell me, are you not worse than a clown?" Upon hearing this, the monk laughed together and found himself suddenly enlightened.

젊은 행자가 불법에 대해 자못 진지하게 묻자 스승님은 껄껄대며 저리 가버렸다. 속이 확 뒤집힌 행자는 사나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고 아무 생각도 못했다. 마침내 그는 스승님을 다시 찾았다. "큰스님께선 저의 존재를 심히 깔아뭉개셨나이다." 스승님은 또 껄껄댔다. "멍청하긴, 넌 광대만도 못한 너석이야, 그게 문제야!" 잔뜩 열을 받은 행자는 빠드득 이를 갈았다. "큰스님, 어인 말씀을 그리 하시나이까? 왜 제가 광대만도 못해요, 에!?" 스승님은 줄곧 웃었다. "잘 들어, 이 돌대가리야! 광대란 사람들이 웃어주는 걸 좋아하지? 헌데 넌 내가 웃어준다고 삐친 너석이야. 그래도 네가 광대보다 낫다는 게야?"그 말에 함께 따라 웃는 순간 그 행자는 큰 깨우침을 얻었다. 번안:성휴 스님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행자) 모집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로 나이 학력불문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琪 무사암 주지)
◆ 특강교수 : 법봉, 무송, 마정, 법인, 구화, 법천, 지고, 덕진 대명스님 등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서울 접수처 : 02)496-3951 마정 부산 접수처 : 051)335-2210 법봉
경북 접수처 : 011-548-3664 법인 호남 접수처 : 011-619-1322 법천
경남 접수처 : 055-583-8170 무송 강원 접수처 : 033-342-6940 지고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중앙불교대학원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번뇌 털어버리는 두타수행

二者如迦葉常受頭陀法 但畜糞掃三衣 不畜餘長

두 번째로 중근기가 두타수행을 하면서 입는 의복문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가섭존자는 세존의 제자로 한문으로 번역하면 음광(飮光)이라고 한다. 그 빛이 일체광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음광이라고 한다.

출가이전에 그의 집안은 상당히 부자였다. 그러나 출가 후엔 두타(頭陀)수행을 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고행을 한다는 의미이다. 범어의 두타는 한문으로 두수(抖擻)라고 하는데 번뇌를 털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타수행법은 열두 가지가 있는데 의식주 세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음식과 관련해 두타수행을 하는 데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걸식인데, 다른 사람에게서 음식을 구걸해서 먹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구걸을 행함으로써 아만을 조복받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 때문에 스님을 걸사(乞士)라고 한다.

구걸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밖으로 음식을 구걸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법식을 구걸하여 혜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걸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걸식을 할 때에는 빈부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차례로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빈부를 가리면 평등심을 잃기 때문이다.

대가섭은 오로지 가난한 집만을 찾아서 걸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자가 보시를 행함으로써 복을 얻게 함 때문이었고, 수보리는 오로지 부귀한 집에서만 걸식을 했는데 부귀한 사람은 죄를 지어 쉽게 타락하기 때문에 일부러 부귀한 집에 가서 걸식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속 복을 구해서 재앙을 면케 하려했기 때문이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분별심이 있었는데 수보리는 가난한 사람은 버리고 부귀한 사람을 좋아했다는 혐의가 있고, 가섭은 부귀한 사람은 버리고 가난한 사람만을 구제했다는 혐의가 있어 그 걸식이 차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이 둘을 모두 꾸짖었다. 때문에 걸식은 반드시 빈부를 가리지 말고 차례대로 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항상 거르지 말고 걸식법을 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염부제 중생들은 용맹심이 쉽게 일어나 일정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오늘은 걸식을 하고 다음 날은 걸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와 서로 일치하겠는가.

세 번째는 정오에 하루 한 번씩만 음식을 먹어야만 된다.

네 번째는 양식을 절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한번 구걸해온 음식을 네 번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또는 세 번 혹은 두 번 나누어 먹어야 만이 음식을 조절해서 먹는 것이 된다. 이것도 역시 두타행 가운데 하나이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으면 욕심이 증가하기 쉽고 음식을 적게 먹으면 지혜가 쉽게 열린다.

다섯 번째는 오후에는 음료수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시가 지난 이후에는 쌀밥이나 국수 등의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유 등 모든 음료수까지도 마셔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두타행으로 머무는 처소도 역시 다섯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항상 앉아서 눕지 않아야만 한다. 즉 종일토록 결가부좌를 하고 단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뿐 육진경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나무아래서 좌선을 해야 된다. 큰 나무아래는 바람이 불고 그늘이 지는데 시원한 곳에서 고요히 앉아 마음의 번뇌를 씻어야 만이 이익을 얻기가 매우 쉽다.

세 번째는 평편한 땅위에 앉아야만 된다. 밤이 깊고 인적이 고요할 때 전체가 드러나는 노지에서 앉아있으면 하늘에서는 달과 별이 빛나고 내 마음도 텅 비고 정신도 화기로워 수행하기에 좋다.

네 번째는 무덤사이에 앉아야 한다. 무덤사이는 죽은 사람의 처소이므로 가서 앉아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이미 죽었다면 난들 어찌 죽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제법무상관을 닦아야만 한다.

다섯 번째는 고요한 처소를 찾아야 하는데, 고요한 처소는 바로 청정한 곳이다. 따라서 티끌세상과 서로 떨어져 있는 이곳이 머물면서 수행하는 적합한 처소인 것이다.

밖으로 음식을 구걸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안으로는 법식을 구걸, 혜명을 자라게해야

마지막으로 두타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복에도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분소의(糞掃衣)인데, 이 분소의는 다른 사람이 버린 더러운 베를 주워서 깨끗이 일곱 차례 세탁을 하고 바늘로 꿰매서 옷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옷을 세 벌만 지녀야만 하는데, 이는 오조가사 · 칠조가사 · 이십오조가사를 말한다.

오조가사는 평상시에 입는 옷인데 다섯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칠조가사는 경전을 독송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불사를 할 때에 착용한다. 이 가사는 일곱 조각으로 이루어진 옷이다. 이십오조 대가사는 범어로 승가리(僧伽黎)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의(祖衣)라고도 하는데 법상에 올라 설법할 때에 착용한다. 이 조의는 스물다섯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의 의복은 잠시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되며 그 나머지 의복은 절대로 축적해서는 안 된다. 가섭존자는 단지 이 세 가지 옷만을 축적하고 스스로 도를 이루었는데 이를 두고 두 번째 중근기인이 착용하는 옷이라고 한다.

인간세간에는 모두 생활이 있다. 그 생활내용은 의식주에 국한한다. 때문에 이 세 종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의복과 음식이 없다면 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초연하게 물질욕을 벗어나 의복과 음식이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바라고 구하는 바가 없다. 그 때문에 의복과 음식을 구하려고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 경지가 아득히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출가한 비구 · 비구니와 재가인인 우바새 · 우바이는 마땅히 생사의 일이 크다는 것은 뼈아프게 깨닫고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 의식을 담박하게 한다면 도의 성취가 멀지 않을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치심(癡心)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닌 '치심(癡心)'은 모든 사물과 이치를 완전히 미혹하여 껌껌하게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치심은 밝은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장애하여 일체의 번뇌가 이를 근본으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 현실적인 행위, 즉 행업(行業)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무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무명 때문에 사물과 이치를 밝게 통달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거나 아예 무지하여 잘못 전도된 허망한 분별 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탐심 · 진심 · 아만심 · 의심 등도 모두 이 치심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무명이야말로 세간 일체 모든 번뇌의 원초적인 근본이며, 그 때문에 치심은 번뇌의 모습으로 떠오른 끝없는 생사유전의 최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무명의 어리석음이 지중하여 극에 달한 자는 옳다고 공인된 것을 틀렸다고 부정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올바른 진리에 대한 미혹과 혼란을 야기하여 올바른 도리를 어기게 됩니다.

미혹으로 껌껌하게 어두운 마음 끝없는 생사유전의 최초의 근원

때문에 그들은 보잘 것 없는 소소한 원한은 반드시 보복을 가하면서도 꼭 보답해야 할 커다란 은혜는 정작 망각을 하며, 광명정대하고 평탄한 길은 두려움으로 여기고 반대로 험난한 길을 편안히 쉴 집으로 여기며,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아첨하는 말에 솔깃하여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치심을 따라서 일어나는데도 죽을 때까지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중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무명이야말로 모든 유정들을 생사의 세계로 장구하게 몰고 가는 근본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의 맹렬한 세력은 우주가 무너지는 괴겁(壞劫)에 수미산(須彌山)을 거꾸러뜨린다는 무서운 겁풍(劫風)으로도 비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명이 모든 미혹의 근본이므로 탐심과 진심도 일어났다 하면 이 무명과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번뇌도 이 무명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2일개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 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이평래(충남대 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종석(금강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2 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감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서성운스님(삼천사주지) · 김형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7년 12월 15일~ 2008년 1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8년 2월 2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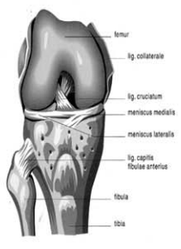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선지식을 찾아서

“내 안의 중심으로 나아가라”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간절히 참구해야
‘본래지’ 증득하는 것이 독거락자 되는 지름길



본래지당(本來知堂).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이 주석하는 당우에 걸린 현판이다. ‘본래지당(本來知堂)’이라고 다시 한 번 읽으며, 영주암 대웅전에서 왼쪽으로 돌아앉아 있는 정관 스님의 거처가 불현듯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래지,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가야 할 본향이자 귀의처이기 때문이다. 본래지에 머무는 것, 본래지로 돌아가는 길이 정관 스님이 손수 써놓은 현판에 담겨 겨울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초하루 법문을 마친 정관 스님과 마주 앉았다. 바로 전날 성지순례에서 돌아왔음에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다. 본래지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싱그러운지를 스님의 환한 얼굴에서 읽는다.

“본래지 마음이 신(神)입니다. 마음 밖의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어요. 부처님 법에는 자성이 신이지 그 자리 따로 신 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불교가 가야 할 길은 본래지의 증득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보니 다신(多神)을 숭배하면서 여기 저기 신을 모시는 탑을 조성해놓고 신에 대한 공포심에 시달리며 살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에 대한 공포 대신 본래부터 밝고 밝은 본래지를 향하는 바른 정진, 바른 지혜를 닦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님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했다. 어리석은 소견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안식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진정한 행복에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식(安息), 그것은 인간의 구경입니다. 왜 참선을 해서 본래지를 증득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물질이나 계급이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물질도 계급도 늘 변화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가진다는 것이 일시적인 위안은 되겠지만 안식을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세계대통령이 되어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왕궁도 마다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지를 증득해야 안식자가 됩니다. 안식자, 독거락자(獨居樂子)가 되는 길은 지식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밝고 밝아 있는 본래지가 우주에 가득하니 간절한 신심을 일으켜 하루하루 꾸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진을 해야 합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결과를 바라지도 말고 그저 묵묵히 하는 그것뿐입니다.”

사탕을 물고 있는 아이의 표정은 행복하다. 그러나 사탕을 빼앗기면 아이는 금방 울음을 터뜨린다. 우리의 인생은 사탕에 연연하는 아이를 닮았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웃다가 그것을 놓치면 울고 마는 끝없는 반복, 그 반복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길이 불교의 구경이고 인간의 구경이다.

“사람들은 태풍을 겁내요. 그러나 진리에서는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변화입니다. 갑자기 변하면 더 무서워요.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안보이게 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 환자가 되거나 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요. 그 변화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늘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그 변화가 자신에게는 안 올 줄 알아요. 부처님께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설하시고 수 천 년 전부터 변화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알아듣고 곧바로 발심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은 드물잖아요. 이 몸뚱이는 변화합니다. 아무리 애지중지 보살펴도 늙어서 병들어 나를 배신해요. 잘 들리던 귀도 나를 배신하고 잘 보이던 눈도 나를 배신하는데 발톱에까지 꽃을 그려 넣고 야단법석을 떨면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영원한 친구를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을 친구, 그 친구가 바로 본래지다. 스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본래지를 찾으라고 간곡히 권했다.

“세상은 바뀌어도 따뜻한 것을 따뜻하다고 알고, 찬 것을 차다고 아는 냉난자지(冷暖自知)는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갖추고 있느냐하고 물어봅시다. 언제부터가 없어요. 본래부터지. 언제부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본래부터는 언제까지냐. 그 끝도 안 나와요. 억만년이 흐른 뒤에 딴소리를 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이고 진리에는 고금이 없어요. 본래지가 바로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찬 것을 차다고 알고 뜨거운 것을 뜨겁다고 아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 자리는 바뀌지 않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눈물이 핑 돌만큼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본래지는 책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모양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곳에 있거나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 그러나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이 시작된다.

“부처님이나 우리나 축생이나 모두 똑같은 본래지의 자리는 있다거나 없다고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점을 찍었다면 지금쯤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어디에 점을 찍지 않았기에 진공묘유입니다. 점을 찍으면 상이 되고 개체가 되어 버려요. 허공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엇이든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전체가 본래지입니다.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진공묘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은 쉽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이 손으로 만지듯 실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경전 공부도 하고 참선 공부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직접 체험을 해야 합니다. 공덕을 짓고 수행하는 것이 본래지를 향한 끝없는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스님은 지금까지 오늘의 정진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성지순례 동안, 호텔에서도 하루 정진을 거르지 않았다. 스님은 정진에 ‘이유를 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정진을 이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야생화하고 자주 얘기를 나눕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때가 되면 피고 지는 야생화를 보면 공부도 야생화처럼 해야겠구나 하고 배우게 돼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수행해야 합니다. 요즘 신도들 중에는 하루 철야정진하고 그 다음날 쓰러져 자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한 사흘 열심히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렇게 정진해선 안 돼요. 언제나 처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히, 또 간절히 참구하는 그런 정진을 해야 합니다. 이유를 달지 마세요. 정진을 못할 이유는 백 천 가지도 더 넘어요. 그냥 이유를 달지 말고 하는 것 그 즐거움에 빠져야 합니다. 밤길을 가다보면 환하게 날이 새듯이 그 즐거움이 바로 최고의 길이고 목적지입니다.”

스님은 홀로 있어도 즐겁다. 그렇게 홀로 선 사람은 바깥으로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다.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다. 늘 바깥으로 구하고 타인을 괴롭힌다. 스님은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년에 대해 우려했다.

“사람 몸뚱이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늙으면 쓸쓸하고 고독해요. 그렇게 믿었던 육신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좋은 음식도 맛나게 먹을 수가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미있게 쓸 수도 없게 됩니다. 자기에게 남는 것은 고통, 슬픔, 그리고 중한 병뿐입니다. 평생을 육신에만 탐착하고 육신의 주인공인 본래지를 신(信)하지 않고 살아왔으니 의지처가 없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쫓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내 마음의 주인을 구해야 합니다. 본래지를 섬기고 본래지를 사랑하고 본래지를 신행하고 본래지를 참구하고 본래지를 관조하고자 발심한다면 무상의 재앙을 벗어나게 됩니다.”

세세생생 동반자가 되어 줄 친구를 만나, 더 이상 사탕에 연연하지 않기,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고 홀로 서는 일임을 본래지당을 나서며 다시 새긴다. 독거락자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걷게 되길 발원하면서 우주의 중심에서 내 안의 중심으로 나아간다.

글·사진=천미희 객원기자(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정관 스님은 매일 새벽, 하루 일과를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며 시작한다. 오늘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고맙기 때문이다. 매일의 정진, 붓글씨, 보건체조 등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은사스님인 동산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매일 마당을 쓸고 어디에 가든 예불을 잊지 않았던 은사스님을 세월이 갈수록 닮아 간다. 수행지침서인 〈간화선의 길〉로 참선자들에게 길을 열어보였던 스님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죽음이 없는 낙〉 〈인도성지참배〉 〈하늘같은 자유〉 등 간단명료하면서도 시원한 문장으로 진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을 여러 권 펴냈다. 또한 〈본래지는 마음이 신이다〉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성지순례의 느낌과 감상도 펴낼 예정이다. 1933년 경주에서 태어난 정관 스님은 1954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14안거를 성만하고 금정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등 포교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제 본래지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본래지의 길을 묻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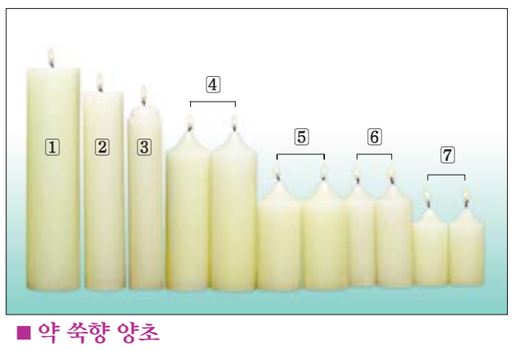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불교 제대로 알리고 싶어 한평생 불서 보시"

데스크 초대석

한진영상 한갑진 회장

한해가 저물고 있다. 새해를 설계하는 여유 보다는 못 다 한 일을 정리하는 마음이 더 바쁘다. 거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해가 지는 서해 바다는 시커먼 기름에 뒤덮여 신음하고 있다. 2007년이 이렇게 스산하고 어수선하게 저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춥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언 손을 녹일 작은 모닥불 같이 아름다운 일들도 많다. 180편의 영화를 제작한 원로 영화제작자 한갑진 (주)한진영상 회장. 불교계에서 한 회장은 영화제작자라는 이름보다 '책 보시'를 하는 전법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손수 집필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한진출판사)에서 간행한 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찰과 불자들에게 보시해 온 한 회장이 올 겨울 펴낸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 700권을 조계사에 기증했다. 이제 해가 바뀌면 85세가 되는 한 회장이 책을 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불교와…' 700권 조계사에 보시
소·대승불교 '새 패러다임' 승화 주장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은 어떤 책입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의 육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는 근본불교와 그 후대에 일어난 새로운 불교운동의 결과인 대승불교가 하나로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소승불교(근본불교)와 대승불교라는 말로 두 가지의 불교를 얘기 해 왔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한 뿌리이고 한 줄기란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근원에 대한 고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승과 대승이라는 개념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소승과 대승의 개념과 역사적 종교적 의의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둘을 새로운 불교의 패러다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논지로 쓰여 진 것입니다.

–소승(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 가능성을 어디서 보셨는지요?

교리적으로나 역사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려면 책을 다 읽어 드려야 하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불자들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승에 해당하는 남전(南傳)과 대승에 해당하는 북전(北傳)의 전통은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등의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 제한이란 결국 경전의 이질적인 해석과 유통이 핵심인데 이제 그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 즉 다양한 문헌에 대한 연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등에 전해지는 수많은 근본불교 경전들과 한역을 중심으로 전해 온 경전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정립할 수 잇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승(근본)과 대승의 분별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반합의 논리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원음인 근본불교와 그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불교운동인 대승불교를 정과 반의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합의 불교 즉, 소승과 대승불교가 회통 된 불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불교는 이런 종교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다면?

'인간의 종교'입니다. 근본불교도 대승불교도 모두가 인간의 불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다를 뿐 근본은 같다는 겁니다. 불교는 결코 하늘 저편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 안쪽에 있는 무한한 진리를 깨우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게 돌아가(歸依)야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지혜가 바로 불교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自歸依)는 부처님의 유훈은 바로 인간의 종교로서 불교적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적 해석이 우주의 진리를 깨우치는 근간이라는 것도 불교만의 우주관입니다. 깨달음의 종교라는 말이 진리로 돌아가는 길의 자각을 말한다면, 그 역시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많은 불서를 저술하시고 보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있으신지요?

제가 처음으로 쓴 불교서적은 <알기 쉬운 불교>(1975년)입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반야심경을 읽어 드렸는데 매우 편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계속 들려 드렸고 아버님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신촌 봉원사에서 49재와 1년 탈상을 하게 되어 거의 매일 봉원사를 다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보자가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사 일로 일본을 드나들며 일본에서 발간된 불교 교리서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나 인도 등지를 다니면서 자료를 모으고 일본의 서적들도 모아 읽고 연구했지요.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고 신심도 깊어졌습니다. 강남 봉은사 신도회장도 하게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불자가 되었고,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불자들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쓰고 전해야겠다는 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알기 쉬운 불교사> <부처님의 생애> <인도와 불교>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 등 10권이 넘는 책을 쓰거나 편찬해서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 보시했습니다. 책을 써서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그저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신심을 깊게 다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바라는 것이 없었으므로 늘 마음 편하게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대한민국 불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가 어떤 존재인가를 들여다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교는 매우 존중받던 시절도 있었고 말 할 수 없이 억압 받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불교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이끌어 오며 민족의 중요한 본질을 지켜 주었거든요. 신라불교의 그 찬란한 정신과 문화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불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 저는 총체적인 역사 인식 아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특별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적당한 운동과 먹는 것 조절하고 잠 잘 자는 것이지요. 나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3Km 정도를 걷고 나서 목욕을 한 뒤 아침예불을 합니다. 그런 뒤에 야채를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하는데 하루 중 아침을 가장 든든하게 먹습니다. 대략 20가지가 넘는 야채와 곡물들을 조금씩 챙겨 먹거든요. 점심은 간단히 그리고 저녁은 과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낮의 일과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지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고 화를 자주 내면 육체적으로 조절한 건강도 금방 상해버립니다. 자주 병원에 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늙은 육신이 의지할 곳으로 병원보다 좋은 곳이 없잖아요? 자주 검진을 하고 몸의 상태를 체크하면 그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문의전화:02)585-1141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구입시 할부가능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룸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2004Korea Consumer Best Awards 한열나무보일러 스포츠서울 라이프선정 2004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2005년 히트상품&서비스경영대상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동파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어기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창업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망해마을 모습.


망해사지 석조부도(보물 제173호).


탑이나 석조부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단.


소형 석조부도.

처용 설화의 고향

불교문화콜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8 영축산 망해사



망해사 대웅전.

헌강왕 '용 위해 절 지으라' 명
13가구 마을 사람 모두 불자

울산 영축산에 있는 망해사는 처용설화와 관련이 깊다.

신라 49대 헌강왕 때는 태평성대였다. 하루는 헌강왕이 개운포(開雲浦)에서 놀이를 즐기다가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일관(日官)에게 물으니, "이는 동해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해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왕이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절이 망해사다. 이에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개운포'의 지명 유래는 이 설화와 관계된다.

그러자 동해의 용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리고 아들 중 하나가 왕을 따라 경주로 들어가 왕의 정사를 도왔다. 그때 왕을 따라간 용왕의 아들이 처용(處容)이다. 이러한 처용설화는 망해사 대웅전 외부 벽화에 잘 나타나 있다.

망해사에서 동해안을 바라보면 청량천을 따라 개운포가 보인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처용암도 보인다고 한다. 대웅전 뒤로 언덕을 하나 올라가면 망해사지 석조부도(보물 제173호)가 있다. 보기 드물게 이 부도는 동부도와 서부도가 나란히 있는데, 두 부도의 모양이 유 사 하다. 마치 쌍 둥 이 같은 모습이다. 언제 조성된 것인지, 어느 스님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묵묵히 세월을 견디고 있다. 특히 동부도는 무너져 있던 것을 1960년에 복구하였다고 한다.

절을 나와 마을로 내려오니,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어느 집 앞에 몇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다. 망해마을이다.

"주로 여기도 용왕제 위주로 많이 하대, 칠석 백중 때 용왕제를 주로 올리대요."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설화를 뒷받침하듯, 절에서는 지금도 용왕제 위주의 제를 올린다고 한다.

"전에는 작았습니다. 아홉 가구에서 열 세 가구로 늘었어요. 옛날에는 이 동네 없었거든, 동네 주차장 있는 데(마을 이) 있었고, 인자 이 마을은 한 오십 년 됐지."

고속도로 너머에 있는 마을이 원래 있었던 마을이고, 마을이 커지면서 한 집 두 집 이쪽에 터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옛 마을과 새로 생긴 마을 사이로 도로가 뚫리게 되었다.

"임진 때 불 태와뿌고, 새로 지아가, 지금 지아가 있는 절은 몇 십년 안 되었다. 절에 일 있을 때 참 마이 해줬어. 요새는 안 해준다."

이내 이야기는 스님들에 대한 것으로 이어진다.

"절 아래 있으면서, 유래고 뭐고 밝히는 거, 이웃사촌으로 할 말이 아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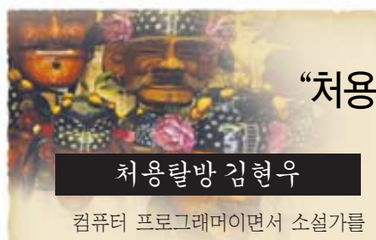
대를 이어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력을 밝히게 되면, 이웃 간에 얼굴이 붉어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나온 말이다. 더 묻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 물었다.

"이 동네는 다른 교는 없심다. 다 불교지. 다른 절로 가더라도 다 불교지."

천 년 전 한 사내는 자신의 부인과 놀아난 역신을 용서하였다. 그 용서의 춤사위를 떠올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각박한 삶은 내가 만든 것이다. 얽히고설킨 마음의 실타래를 가만 내려두고 볼 일이다. 용서를 모르고서 어찌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차가운 겨울날, 용서의 맨살로 눈물 흐르는 자신의 볼을 부빌 일이다. 용서는 힘이 세다.

울산=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처용의 미소 되살리고 싶어"

처용탈방 김현우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면서 소설가를 꿈꾸던 한 청년이 어느 날, 펜을 잡던 손으로 조각칼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 가까이 조각에 미쳐 작업을 해 오던 그가 1회 전시회(1995년)를 열게 된다. 처용탈을 복원한 김현우(53 · 사진)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김춘수 선생의 시집 <처용단장>이라고 있어요. 어느 날 그것을 보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삼국유사>를 보면, 동해 용왕이 나타난 곳은 울산시 개운포. 헌강왕이 용왕을 위해 절(망해사)을 지으라 하자, 용왕은 아들들과 함께 나타나 감사의 춤을 추었다. 그 아들 중 하나가 처용.

그의 작업이 더욱 소중한 것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처용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처용의 모습을 복원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복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처용과 관련된 글이라면, 고서나 논문을 가리지 않고 찾아보았다. 어쩌면 그는 처용의 모습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행을 하고 있는 셈.

"향가라고 떠드는 것은 일연 스님이 만든 것이지. 일연 스님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재편집 했거든요."

향가로 남은 '처용가'와 고려가요로 남은 '처용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나서 그가 부연한 말이다.

"처용은 아랍상인이란 말은 안 맞다 생각해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처용이 서울이 아니고, 울산에 나타났다는 것은 좀 그래요. 또 <악학궤범>에 있는 그림은 부적으로 내려오면서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처용탈을 나무 조각으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옻칠한 삼베로 만든다.' 그렇게 <악학궤범>에 나오거든요. 삼베 한 겹 모시 한 겹, 삼베, 모시 이렇게 네 겹으로 하고 그 위에 황토를 발라서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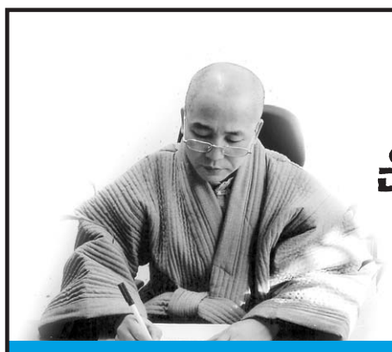
그의 공방에는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처용탈이 가득하다.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 조선시대 풍속화 같은 데서 처용탈을 발견하면, 그는 곧장 작업에 들어간다. 그렇게 조금씩 처용의 얼굴을 찾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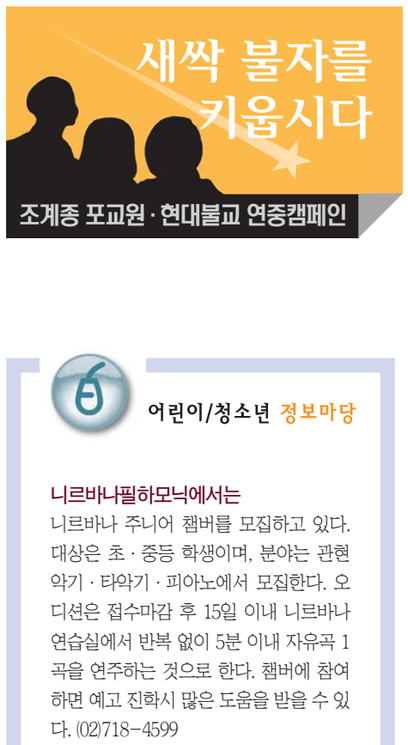
처용의 미소를 되살리고 싶다는 그가 처용처럼 환하게 웃는다.

"우리 아(아이)가 후계자 자처하대."

자식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가 크게 웃어도 좋을 날이다.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니르바나필하모닉에서는
니르바나 주니어 챔버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초 · 중등 학생이며, 분야는 관현악기 · 타악기 · 피아노에서 모집한다. 오디션은 접수마감 후 15일 이내 니르바나 연습실에서 반복 없이 5분 이내 자유곡 1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한다. 챔버에 참여하면 예고 진학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2)718-4599

양재동 aT센터에서는
'러시아 자연사박물관전'이 2008년 2월 10일까지 열린다. 국내 전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고생물 진품 9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박물관전에서는 전시 공간을 '지구의 탄생' '선캄브리아누대와 고생대' '중생대' '빙하기' '신생대' 등으로 구성했다. (02)336-1584

인천시민문화센터 아트홀 소풍에서는
극단 동이의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연극시리즈' 연극 '동승'을 올린다. 12월 25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 · 7시, 일요일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펼쳐질 이번 공연은 가족과 함께 보고 정담을 나눌 수 있도록 꾸몄다. (032)442-8017

어린이대공원 아트스테이션에서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하는 '아이러브 크리스마스'가 2008년 1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 전시와 크리스마스 씰 이야기, 산타할아버지 변신 이야기 등이 마련돼 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주말에는 트리만들기, 음악회 등도 준비된다. (02)466-2606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물의 멸종위기를 경고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 친환경 물품 전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획전 '자연과 더불어 살아요'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패션페인팅, 양초 · 비누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방도 운영된다. 공방 운영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051)553-4944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신나는 겨울 방학, 수련관과 함께 OK~?

어린이 청소년 방학특집 1-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불교계 수련관 겨울특강 마련
이번 겨울 방학 특강과 신나게

와~ 드디어 겨울방학이다! 기다리던 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방학동안 학원과 보충수업에 꽉 잡혀 더 괴로울 것이라 항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학'에는 낭만이 있다.

각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겨울방학을 기회로 성적을 올리겠다 다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성공으로 몸짱이 될 것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방학을 생각해 보자. 아무 것도 하지 않아 후회스러운 기억도 있을 수 있다. 너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몰두해 지나고 보니 스스로 한심해졌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혹시 그렇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활발한 야외 · 실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도 생길 것이다.

학창시절이면 매년 있는 겨울방학이지만 그 시간은 잘못하면 그저 후딱 지나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평소 배워 보고 싶은 분야를 탐구하는 것이 좋다. '나도 뭔가 했다'는 기분을 만끽하며 겨울방학이 지나서 만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기분도 괜찮다.

날이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은 사람도 물론 있을 터. 하지만 추운 날씨 덕분에 스키나 눈썰매 같은 야외 스포츠도 즐길 수 있지 않은가.

어린이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각 수련관에서도 정규 프로그램은 물론 겨울 특강 등을 마련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련관 체력실이나 체육관을 이용해보자.

소개하는 프로그램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냥 무작정 가서 배워보자. 그리고 각 수련관마다 소개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으므로 혹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부지런히 찾아보는 노력을 할 것도 권한다. 그런 노력이 겨울방학을 소중하게 가꾸는 첫걸음이기에.

먼저 서울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는 12월 28일~1월 18일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역사연표 만들기' '우리 지도 만들기' 등의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평소 역사나 지리에 자신이 없다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연표와 지도를 만들면서 취미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혹 우리 소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국악교실을, 운동을 좋아한다면 수영 · 농구 ·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국악교실은 12월 27일, 겨울방학 특강은 12월 31일부터 시작된다.

따뜻한 나눔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 곳도 있다. 구로청소년수련관에서는 겨울방학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 골라하는 재미가 있다'를 1월 15일부터 진행한다. 그냥 시간만 채우는 자원봉사가 아닌, 진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을 주목해보자. 또 중국 내몽골지역 청소년을 초청,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월 21~25일 '내몽골국제교류 한류와 친구들'을 통해서다.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몽골청소년들과의 교류를 정례화시켜 매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에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방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다. 부산 양정청소년센터에서는 '몸짱'이 되고픈 초등학생을 위해 체형교정발레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월요일 매직 잉글리시, 금요일 단편영화만들기 · 캐릭터 그리기, 토요일 힙합댄스 등 다양하게 준비했다. 청소년 미디어체험 '무한도전 UCC프로젝트'를 통해 애니메이션 및 영상편지도 제작할 수 있다. 또 센터를 찾으면 열린노래방 · 열린도서실 · 보드게임방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보령지부에서 운영하는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12월 27일부터 다도교실,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다양한 악기연주를 위한 배움터도 있다. 기타에 관심있는 이 지역 초등5~6학년은 '스쿨 오브 기타'를, 평소 드럼을 연주해보고 싶었던 청소년이라면 '스트레스 제로 드럼교실'을 통해 악기를 접할 수 있다.

전주에 살거나 가보고 싶은 어린이라면 주목하자.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불교문화체험학교'를 열기 때문. 꼭 불자가 아니라도 좋다. 절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 '강추'한다. 자비명상, 열반체험 등의 불교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시청, 풍물놀이, 솟대만들기 등도 함께 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체험학교는 1월 5~8일 열린다.

이밖에 더 많은 불교계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을 것. 이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02-723-5165)나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02-735-8165)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20개 구단위 청소년수련관에 겨울방학 스키캠프 · 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스키는 너무 비싼 스포츠여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가 보다는 저렴하게 스키를 즐기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이다. 숙박캠프를 즐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당일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김강진 기자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서울	강북청소년수련관	(02)900-6650
서울	용산청소년수련관	(02)749-0102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	(02)838-1318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	(02)550-3600
보령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041)934-1434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051)868-0750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	(031)716-4215
전주	참좋은 우리절	(063)236-6633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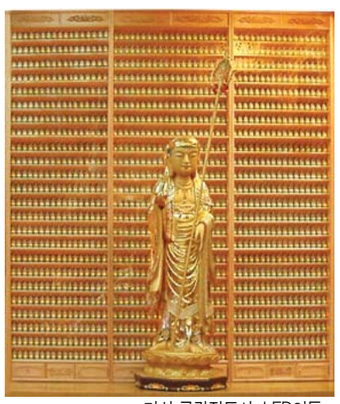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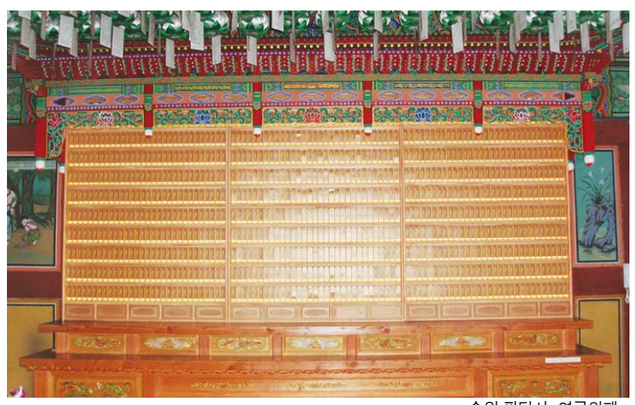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아름다운 세계 꿈꾸는 원미동 시인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겨울나무를 보면 벌 서는 내가 보여요. 저렇듯 두 팔을 들고 서서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네요. 반성하는 나무는 다시 내년 봄이 오면 연둣빛 새 생명을 잉태하며 찬란하게 부활하겠지요. 용서하는 일도 참 힘들지만, 용서해주는 마음도 서로를 따스하게 해주는 삶 같아요. '클클하'더라도 '뜨악한' 일이 있어도 '만수받이'가 되어 주는 일도 괜찮지 않나요?

클클하다 : 마음이 시원스럽게 트이지 못하고 좀 답답하거나 궁금한 생각이 있다.(넓지도 못한 좁은 방에서 그 잘난 얼굴과 늘 맞대고 있어야 하니 클클하달 정도 아니라 정말 견뎌낼 도리가 없었다.)<김이석, 흐름 속에서>

뜨악하다 :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주막 여주인은 별로 탐탁스럽지가 않다는 듯 뜨악한 얼굴로 천 서방 부녀를 가볍게 흘려 보았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마음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 서먹하다. 또는 사귀는 사이가 떠서 서먹하다.(여란이에게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한 후 종삼이와의 관계도 뜨악하고 면목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박완서, 미망>

만수받이 : 아주 귀찮게 구는 말이나 행동을 싫증 내지 않고 잘 받아 주는 일.(그는 늘그막에 낳은 막둥이에게도 만수받이 한 번 하지 않는다.) 토속 신앙에서, 무당이 굿을 할 때 한 사람이 소리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서 소리를 받아 하는 일.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양귀자作 '원미동 시인'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은 1986년 <한국문학> 152호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연작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11편 중 하나에요. 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 억압당하고 무기력해져 가는 현대 소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우수 어린 모습으로 그려낸 세태 소설이지요.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공간은 소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원미동'이란 문자 그대로 '멀고 아름다운 동네'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름같이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폭력과 방관, 비정함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나이에 비해 매우 조숙한 '나'는 청소부인 아버지와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싸움질 잘하는 원미동 똑똑이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들은 나를 철부지인 꼬마로 알겠지만, 눈치가 빠른 '나'는 집안 사정, 동네 사정에 대해 이것저것 훤히 알고 있는 아이다. '나'에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언니 선옥이 있다. 언니를 마음에 두고 있는 김 반장과 시를 사랑하고 약간 돈 것같이 보이는 몽달씨가 내 친구다. 몽달씨라는 별명을 가진 원미동 시인은 김 반장 가게에 들락거리며 소일하고 있다. 어느 날, 자칭 시인이라는 몽달씨가 '나'를 부르더니 시라면서, '너는 나더러 개새끼, 개새끼라고만 그러는구나'고 했을 땐 기가 찼다. 김 반장은 가겟집을 하고 있어서 '나'에게 군것질거리를 많이 준다. 그는 선옥 언니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터라, '나'더러 처제라면서 언니 소식을 묻곤 했다. 사실 나도 은근히 그가 '나'의 형부이기를 바랬다.

그런데 열흘 전 김 반장의 치사한 행동을 보고 난 뒤엔 '나'는 그가 싫어졌다. 엄마와 아빠가 싸움을 하는 사이에 집을 빠져나온 '나'는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슈퍼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내 둘에게 쫓겨 그들에게 맞은 듯

폭력과 방관이 존재하는 비정함 일상화
소시민의 작은 희망 통해 삶의 가치 조명

온몸이 엉망인 몽달씨가 다급한 얼굴로 김 반장에게 구원을 청하나, 김 반장은 그를 모른다고 한다. 코피가 범벅이 되어 젊은 사내들에게 끌려가게 되자 '나'는 지물포 아저씨에게 구원을 청하여 가까스로 몽달씨를 구했다. 그런데 그때서야 얼굴을 내민 김 반장은 몽달씨를 위하는 척 안타까워하며 "빨리 가서 잡아야지, 저런 놈들 그냥 두면 안돼요!"하고 흥분하면서 청년들을 쫓아가는 시늉까지 하는 것이다.

열흘 뒤 몽달씨는 상처가 다 나은 후에 또 다시 김 반장의 가게에 나와 여느 때처럼 김 반장을 거들며 박스를 나르고 있다. 그런 몽달씨에게 '나'는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며 흥을 보지만, 몽달씨는 계속 딴전만 피우며 시를 읊는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 하는 순교자 같다…." 몽달씨는 미치거나 돈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이 순수하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수룩한 몽달씨라는 인물을 통해 이유 없이 한 개인이 당해야 하는 폭력의 모습과 함께 이 폭력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김 반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모순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합법적 폭력과 이 폭력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모순된 사회에서도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할 우리들의 동네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원미동은 비록 우리의 삶 가까이에 폭력과 방관이라는 추한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시민들의 작고 아름다운 희망 또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겉보기에는 한없이 어수룩해 보이는 원미동 시인 몽달씨는 김 반장 같은 속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언제나 시를 읊으며 시처럼 맑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이죠. 몽달씨의 삶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속물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내면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시'를 통해 관용과 이해로 이를 감싸 안음으로써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통해 사회의 모순된 구조와 함께 인간의 위선과 나약함을 드러내 보여 주죠.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와 싸웠는데, 생각할수록 분해요. 꽤 친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항상 시비조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쌓인 것 같아요. 주로 제가 참는 쪽이었는데요, 이제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어요. (ID: 미워할거야)

손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우정

친구 마음이 참 많이 아팠겠네요. 싸움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싸움을 통해 서로 가슴 속에 있는 불만을 털어놓고 더 친해지는가 하면 또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도 하니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친구도 그럴 거에요. 그 친구와 싸우기는 했지만 그 친구는 얼마전까지 친구에게 참 많은 의지가 된 사람일 거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붙어다니지 않았겠지요.

이 글을 볼 때쯤이면 친구는 그 친구와 싸운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싸움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말걸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한 발만 물러서면 되는데 말이에요. 때로는 쓸데없는 자존심, 남의 이목 때문에 소중한 존재를 잃기도 합니다. 살다가 때로는 어려울 때 부담없이 손 내밀 수 있고, 그 손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우정이 있다면 참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그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한 번 싸웠다고 모두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친구도 친구가 편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을거에요. 서로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 번 씩 웃어보세요. 그 친구가 있음으로해서 즐겁고 행복했던 나날들도 한 번 떠올려보시고요. 친구가 먼저 기분 좋아질만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거제 바름정사 혜진님)**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 보아털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특무명
사계절단화 • 풍산동 99% • 지압식 깔창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봉 스님(3)

향곡, 어째서 정상철가를 벗지 못합니까?

경봉, 절을 하고 묻게나

(향곡 스님이 절을 하자, 경봉 스님은 한 대 때렸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과 여러 선승들이 차담을 나누는 가운데 벌어진 선문답이다.

먼저, 향곡(香谷, 1912~1978) 스님이 물었다.

"어째서 정상철가(頂上鐵枷: 정수리 위의 쇠로 된 형틀)를 벗지 못합니까?"

"절을 하고 묻게나."

향곡 스님이 절을 하자, 경봉 스님은 한 대 때렸다.

그러자 덩치 큰 향곡 스님도 경봉 스님을 한 대 치며 응수했다.

"그것은 죽은 사자입니다. 어떤 것이 정상철가입니까."

"눈이 열리지 못하였군. 손으로 잡아서 밀고 끌어 앞에 놔 둘 테니 보거라."

향곡 스님은 계속 같은 질문으로 맞섰다.

"어떤 것이 정상철가입니까?"

"그렇다면 손으로 잡아서 끌고 밀어 뒤에 둘 테니 보거라."

"설봉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바람이 소슬하게 불고 물이 차디차게 흐른다."

이번에는 경봉 스님이 향곡 스님에게 물었다.

"어째서 정상철가를 벗어 버리지 못하는가."

"땅을 파고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차나 한 잔 하게. 석가여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동서남북!"

경봉 스님은 솔가지를 들어 보이며 다시 물었다.

"여기에 조사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에 향곡 스님은 침묵하였다.

향곡 스님은 1947년 어느 날, 문경 봉암사에서 도반 스님이,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하여야 산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하여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하는 법문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몰록 화두 일념삼매에 들었다가, 21일 만에 화두를 타파하고 오도송을 읊었다. 위의 문답은 3년 후 20년 연상인 경봉 스님을 만나 탁마하는 장면이다.

향곡 스님이 거량에 있어 공격 무기로 택한 '정상철가'란 <무문관>에 나온 말로써, '철가'란 철가무공(鐵枷無孔)의 준말로 구멍이 뚫리지 않은 철로 된 칼(형틀)을 말한다. 죄인은 구멍이 뚫린 칼을 쓰고 있는 법인데, 구멍이 뚫리지 않은 칼을 쓰고 있으니 사량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화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경봉 스님은 가볍게 받아넘긴다. "절을 하고 묻게나"라고 말하거나, 한 대 때리는 지혜작용이 '정상철가' 화두에 대한 답 아닌 답이라 할 수 있다.

'철가'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형틀

정상철가 화두에 '답 아닌 답' 제시

이에 향곡 스님은 물러서지 않고, "설봉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라며 두 번째 펀치를 날린다. 여기서 '설봉 선사의 본래면목'을 묻는 질문은 모든 사람이 가진 불성을 상징한다. 경봉 스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참마음(眞心)은 '바람이 소슬하게 불고 물이 차디차게 흐르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과 다름없음을 암시한다.

이번에는 경봉 스님이 "석가여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역시 본래면목을 묻는 질문을 던지자, 향곡 스님은 "동서남북!"이라고 답한다. 솔가지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조사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는 양구(良久)로써 답을 대신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수행은 끝이 없으니 쉼 없이 정진해야"

정종회 전병롱 회장에서 듣는 '염불삼매' 수행

12월 8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위강원한의원은 위장전문 치료에 소문난 한의원답게 환자들이 계속 밀어닥쳤다. 바쁜 진료시간에 짬을 내어 인터뷰에 응한 홍원(弘願) 전병롱(全炳弄, 55) 원장은 자비롭고 평온하면서도 빛이 나는 얼굴이 마치 생전의 청화 스님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청화 스님으로부터 염불선을 배워 염불삼매를 체험하여 얼굴이 점점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여겨졌다.



염불선 수행으로 '삼매'를 맛봤다는 전병롱 회장.

홍원 거사는 그 바쁜 한의원 일 가운데서도 1주일에 두 번은 삼각산 토굴에서 철야정진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3일 단식을 한다. 5년 전부터 하루 1~2시간만 자고 오후불식과 채식을 하면서도 보통 사람 보다 건강하다. 이러한 엄청난 정진력은 물론 억지로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다. 오욕락 보다 즐거운 법희선열(法喜禪悅)에서 나오는 '함이 없는 수행(無修之修)'이다.

1952년 해인사 인근 합천에서 태어난 그는 대대로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 본격적인 수행은 40년전 남해 보리암에서 관음정근에 들어간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기도가피로 강원도 태백산의 숨은 도인이었던 향성 스님으로부터 염불을 배운 그는 경봉, 성철, 서암, 청화, 탄성 스님 등 당대의 고승들을 친견하며 참선과 염불수행에 매진했다. 티베트, 중국, 대만 등 해외 고승들까지 친견하며 수행에 매진해온 홍원 거사는 아미타불 3000일 기도를 봉행하던 중, 일천 일쯤 지난 2002년 음력 11월 보름 마침내 염불삼매를 체험한다. 염불삼매를 얻고도 가행정진을 하는 이유를 묻자, "10지 보살, 등각보살도 수행을 하고 중생제도를 쉬지 않는다"며 수행은 끝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리심을 갖추고 대승경전을 절대적으로 믿고 공부하면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야만 바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지난 해 12월, 염불선 수행자들의 모임인 정종회(淨宗會)를 창립해 회장을 맡은 홍원 거사는 조만간 종로에 기증한 아미타사를 허물고 3층 건물로 확장해 수행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02-745-3351)

-20년간 간화선을 닦은 후 염불선으로 전향한 까닭은?

큰스님들의 가르침대로 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었지만 깊은 선정에 들기가 쉽지 않았다. 스님들처럼 한동안 집중적인 가행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화두삼매에 드는 것이 어려움을 느꼈고, 수행입문 30년 만에 청화 큰스님을 뵙고 염불이 말법시대 근기에 맞는 수승한 수행법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육진(六塵)경계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 때 번뇌 · 망상에 물들지 않고 정(定)에 들기 위해서는 염불만한 방편이 없다. 처음엔 타력(他力)인 정토염불로 시작하더라도 마침내 자력(自力) 수행인 염불로 들어서면, 타력과 자력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된다.

-초보자는 어떻게 염불해야 하나.

<법화경> <화엄경> <정토삼부경> 등 대승경전을 깊이 믿고 읽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하심하고 검소하고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진여자성(眞如自性)에 마음을 두고 염하라. 처음에는 염불에 취미를 붙이고, 그런 다음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저절로 일심삼매에 들게 해야 한다. 맑고 고요한 광명의 자리에 이르면 퇴보 없이 공부가 절로 된다.

-염불선정은 어떤 상태인가.

삼라만상이 고요해진 깊은 밤에 선정에 들면 모든 번뇌 · 망상이 씻은 듯 사라지고 쉽게 일념(一念)이 되고 정념(淨念, 正念)이 된다. 점점 깊어져 무념(無念)이 되면 나의 육신도 벗어버리고 나라는 생각조차 없어져 버리는 공적(空寂) 영지(靈知)한 참마음의 세계에 이른다. 이것이 진여실상(眞如實相)의 세계, 성성적적(惺惺寂寂)한 참마음의 세계, 불성(佛性)과 부처님의 세계, 우주생명의 본질 세계인 것이다.

-염불삼매에 든 체험을 말씀해 달라.

2002년 음력 11월 보름 7일간의 정진에 들어갔을 때였다. 새벽 2시경 염불선정(念佛禪定)에 들어 깊은 삼매에 들었는데, 갑자기 온 우주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轟音)과 함께, 한 줄기 빛이 솟아 점점 커지면서 온 천하대지가 황금으로 되었다.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아미타불을 염(念)하고 관(觀)하니, 눈앞에 맑고 깨끗한 큰 연못이 나타나는데, 희고 붉고 푸른 빛깔의 여러 가지 연꽃이 보이고, 꽃마다 여러 가지 밝은 빛을 발하여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연꽃 위에는 동자(童子)들이 보였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놀라워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찬란한 광명을 발하는 아미타부처님(보신불)이 계시고 관세음 · 대세지 두 보살님께서 양옆에 계셨다. 관세음보살님을 뵈니 이내 마음이 안정되었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아미타부처님께 예를 올리라 하시기에 삼배를 올리고 장궤합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미타부처님께서 정수리에 감로수를 부어주시는데, 나와 우주전체가 밀이 빠져버려 텅 빈 허공이 되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아미타부처님께서 "너는 숙세의 선근이 깊어 이곳에 왔으니 여러 가지 수행문 중에 정토와 선정(念佛三昧)을 겸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수승하니, 정토를 선양하고 네 가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다. 눈물을 흘리며 예를 올리는 순간, 새벽 대종소리에 선정에서 깨어났다. 아직도 부처님 광명이 남아 있는 듯하고, 석불(石佛)님 주위로 (향이 피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단향 내음이 가득했으며 주위는 적막하고 고요하기만 했다.

-평상시 어떻게 마음을 닦고 마음을 써야 하나.

내 목숨을 바쳐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을 갖추는 것이 수심(修心)과 용심(用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초와 향은 자기를 태워 세상에 빛과 향기를 남긴다. 자기(我相)를 버려서 무아, 무소유가 되어야 영원한 도(道),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 현상세계의 번뇌 · 망상에 물들지 않고 늘 자기의 본심이 시 · 공을 초월한 아미타불임을 자각하며 정진해야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일승(一乘) 법문과 문답**=현정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3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대우 거사의 참선법문과 문답 시간을 갖는다. (02)582-9371

●**대다라니 108편 독송 정진**=일산 덕양선원은 12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108편 독송 정진을 실시한다. (031)907-7172

●**주말 위빠사나 수행**=부산 위빠사나선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황세란 강사의 지도로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016)460-2378

●**행복명상 수련회**=서울 행복명상치유센터는 자비관과 지관수행법을 위주로 행복명상 2기 수련회를 연다. 12월 21~23일, 28~30일, 내년 1월 4~6일, 18~20일 2박3일간의 일정. (02)6081-7227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무자년 새해선물!!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엮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저중간에는 사찰과 불자가정의 비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학2마리"가 비상을 하며 손잡이 하단에는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육자대명왕진언"옴"자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다니"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3,5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2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50,000원, 100Set 10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속설로 2007년 12월이 되면 정해년의 기운은 다해 떠나가고 무자년의 새로운 기운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해야한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이럴수가! 이번엔 꼭 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㊸ 실패를 이기는 마음의 힘

실패해도 마음 다스리기

“아니, 이럴 수가….” 대학교 졸업반인 J군은 이번에는 꼭 취직될 줄 알았었다. 확실히 들어갈 자신 있는 회사였다. 자기 소개서도 15번이나 고쳐 쓰며 공을 들였다. 그런데 3차 면접 결과 낙방이었다. 정말 뜻밖이었다. 그 동안 다른 회사들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술 마시고 한참 힘들어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대신 마음을 다스리고 힘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얼마 전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토론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음은 각 학생들의 의견의 일부이다.

확신했던 회사 낙방…마음 다스리기로
“내안에 좌절하지 않는 힘과 에너지 잠재”

‘성공의 힘’ 내 안에 있다

새옹지마란 말처럼 당장의 실패가 새로운 성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대범해지자. 지금은 거부당한 그 회사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지만 세상에는 그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넓고 직장은 많다. 정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내 처지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을 떠올리자. 아프리카에선 아직도 굶고 있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 등.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용기를 내자.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도전, 도전, 도전!

여행을 떠나보자.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자.

그 때만 슬퍼하자.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냥 실패하기엔 억울하다. 성공한 실패로 만들자.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자.

잘못된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그냥 실망하며 흘려보내고 있기엔 아깝다. 무언가를 시작하라.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한다. 성공의 디딤돌로 삼자. 배움과 교훈은 어디에나 있다.

항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는 없다.

건강한 것만 해도 축복이다. 두 눈과 손발 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실패 좀 하면 어떤가. 인생은 훈련이고 연습이다.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길이를 줄이자.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급해서 잘 될 것은 없다. 그럴수록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자.

실패와 싸우려 하지 말고 흘러가자.

따뜻한 마음을 보시하라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에는 천억 개나 되는 별이 있고 우주에는 우리 같은 은하계가 또 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생각하면 인간은 너무도 작은 존재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법의 실상으로는 이 작은 내 마음 속에 광대무변한 우주가 들어있다고 한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육신은 작으면서도 마음은 무한한 존재이다. 자기 마음 깊은 속에 불보살의 마음과 똑같은 무한한 힘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에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길이다. 내 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잠재해 있다.

부처님 마음은 자비롭게 나누는 마음이다. 주변에 대학 입시나 취업 등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는 것이 커다란 보시가 된다. 어쩌면 당신의 한 마디가 인연이 되어 곤경에 처한 한 사람의 일생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성륜사 참마음수련회=곡성 성륜사가 12월 18~23일, 25~30일 참마음수련회를 개최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참마음수련회는 2월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일요일 열린다. (061)363-0081

●광주불교교육원 디지털카메라 사진반 모집=광주불교교육원은 디카 사진반을 개설한다. 디지털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찍는 법부터 포토샵을 이용한 보정작업까지 수업한다.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강좌가 열린다. 현장실습도 할 예정이다. 최근 인권영화제 사진전을 개최한 사진작가 최진호씨가 강사로 나선다. (062)228-9098

●법왕사 삼천불 점안법회=대구 법왕사가 ‘1인 1원불 모시기’ 점안법회를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매달 한 차례 정기적으로 삼천불전에서 봉행해온 점안법회는 앞으로 1만불, 10만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1인 1원불 모시기’ 불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무 스님이 증명법사로 점안법회를 이끈다.(053)567-0070

●법장사 가족송년법회=서울 법장사가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족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한 해 동안의 신행생활을 점검하고 불자로서의 마음을 다잡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02)971-0303

●홍법강원 건립불사=역경불사를 계속하기 위해 내세에서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발원했던 운허 스님의 일화가 남양주 봉선사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온다. 남양주 봉선사가 월초 스님과 운허 스님의 교학도량의 맥을 잇고자 홍법강원 건립불사의 대원력을 세웠다. 12월부터 제1차년도 계획으로 강주채 건립을 추진 중이다. 불사품목은 대들보, 상량보, 추녀, 기둥, 주춧돌, 도리, 문짝, 서까래이다. (031)527-1951

●불광사 겨울강좌=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이 겨울강좌 수강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겨울강좌에는 의식집전교육(4주), 〈천수경〉 강좌(6주), 유식삼십송 읽기2(10주)의 세 강좌가 개설된다. 아침반(오전 10시), 저녁반(오후 7시 30분)이 운영되는 의식집전교육은 1월 8일 개강한다. 본공 스님이 지도하는 〈천수경〉 강좌는 평일 아침 · 저녁반은 1월 7일, 토요반은 12일 개강한다. 목경찬(불광불교대학 전임강사)씨가 강사로 나서는 유식삼십송 읽기2도 7일 오전반(오전 11시), 저녁반(7시 30분)이 개설된다. (02)417-2551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40〉

인간중심상담과 불교

상담심리학의 3대 세력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 인간중심상담이다. 인간중심상담은 인간의 무의식만 강조하는 정신분석이나 드러난 행동만 다루는 행동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났다. 정신분석, 행동주의 둘 다 내담자보다는 상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지시적으로 상담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지시적 상담이 아니라 비지시적 상담을 주창했고,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후에는 ‘인간중심상담’으로 정립시켰다.

인간중심상담에서는 상담 이론이나 기법보다 상담자의 신념과 태도에 주된 관심을 둔다. 인간중심상담자는 인간이란 유기체는 자체적으로 고유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 가능성을 건설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보았다. 곧 인간 존재 속에는 완전한 발달을 향한 자연적 경향성, 즉 실현 경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중심상담 신념 · 태도에 관심
최고의 상담가는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유기체인 인간이 현재 부적응 상태에 놓인 것은 자아 구조와 유기체의 경험 간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아와 유기체의 경험 간에 일치성이 있으면 잘 적응하는 상태가 되며,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경험에 개방적으로 되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간중심상담에서는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소중한 존재로서 존중하며,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 무조건적이며 긍정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수용하며,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내담자를 대할 때 진실성과 일치성을 갖고 임한다.

인간중심상담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불교의 인간관은 매우 비슷하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이란 깨달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본다. 인간중심에서는 잘 기능하는 인간이 최고의 지향점이지만, 불교에서는 깨달아 생사를 벗어나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불교에서는 힘든 중생을 위해 자비(慈悲)로운 마음으로 섭수(攝受)한다. 자비(慈悲)란 다른 이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고[慈, 與樂], 불이익과 고통을 덜어주는[悲, 拔苦] 인간애를 의미한다. 불교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수행법이 있다. 그 가운데 사무량심(四無量心)이 대표적이다. 사무량심은 초기경전에서부터 강조해 온 실천법으로 모든 중생을 향해 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의 네 가지 마음을 무한히 가진다는 뜻이다. 자와 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희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며, 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애증친원(愛憎親怨) 없이 마음이 평등한 것을 말한다.

또한 인간중심에서 강조하는 상담자 요소를 완벽히 갖춘 분이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로저스가 강조한 상담자의 자질과 전문적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 타심통(他心通)과 천이통(天耳通)이 있어서 내담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며 누진통(漏盡通)이 있어 이 세상의 괴로움을 다 했으며, 괴로움을 다하는 방법 또한 참답게 터득했다. 세상의 물심 현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어 ‘정등각(正等覺)’이며, 사람을 다루는 데 최고의 능력을 가진 ‘조어장부(調御丈夫)’이다. 인간중심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담가가 바로 석가모니인 것이다.



그림 : 문병성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꿀이다.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 급 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군경스포츠연맹

석청의 효능은?

석청에는 일반 토종꿀에 비해 비타민, 토코페롤, 칼슘, 게르마늄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과당, 포도당, 칼륨, 아미노산, 무기질 등 70여 가지의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물질이 골고루 들어있다. 이런 이유로 꼭 약용이라는 부분을 떠나 일반 강장식품으로도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석청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생리작용이 원활해져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허열이 제거되고,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된다. 네팔 왕실 산하의 '히말라야 석청 연구소' 에 따르면 석청은 현대인의 불치병인 암, 만성신경통, 혈액순환 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중풍, 야맹증, 간염, 두통,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복용 사례에도 불치병인 암, 몇 년째 어깨가 결렸던 견비통, 만성신경통, 치질, 변비가 석청을 복용한 후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석청은 일반 꿀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및 빈혈 예방, 피로회복, 불면증 해소, 숙취, 기침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이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빠랑게가 사는 고산족 마음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아래의 보급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석청보급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아동들을 돕기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병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미국서 불화 시연하는 한국의 세 스님

설민, 명천, 성윤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학과 3학년 비구니 설민 스님(사진)과 명천 스님(경남 함양 향운암 주지), 성윤 스님(통도사) 등 불화가 세 스님이 벽안의 이방인들에게 한국불화의 전통 기법을 선보인다.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 박물관'에서 외국 관람객들에게 한국 불화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 행사에서다. 2003년 같은 장소에서 불화 제작 시연을 한 뒤 '관람객 반응이 좋았다'며 박물관 측이 다시 초청 이벤트를 마련한 것.

이번 행사에서 관음탱화를 전시하는 설민 스님은 지난 1년 내내 학교를 마치면 인근 암자의 작업실에 틀어 박혀 길이 2.8m 족자에 '수월백의관음(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 · 사진)' 탱화를 그렸다. 미국에서 전시하는 것이 한 달이라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작업분만 남겨두고 거의 마쳤다.

설민 스님은 "2003년에 처음 시연할 때는 현지인들이 중국 불화인 것으로 착각하는 일도 있었다"며 "두 번째인 만큼 차별화된 한국불화의 전통 기법을 자세히 보여 주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어 스님은 "한국 불화는 작품 수가 많지 않지만 가는 선을 수없이 그려 양감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세밀하다. 수 개월에 걸쳐 완성되는 일종의 수행 과정인 작품 과정까지도 알려 귀중한 유산임을 홍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연회에서 또 다른 불화가인 명천 스님도 불법을 수호하는 장군 모습의 보살 그림인 '동진보살' 탱화를 그린다.



시연이 끝나면 수월백의관음도와 동진보살도 등 완성작 2점을 걸어 넣고 스님들이 직접 염불을 외우며 그림에 생명을 불어 넣는 '점안 의식'을 진행해 우리 불교 문화의 다채로운 모습도 보여줄 예정이다. 또 관객이 <반야심경> 등의 경전을 목판으로 직접 인쇄하고 신라 향가 14수의 서예 작품을 볼 수 있는 부대 코너도 마련해 한국 불교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 태생인 설민 스님은 출가 전 중2 때부터 6년 동안 개인 교습으로 서양화와 동양화 등을 배웠다. 고1 때는 스님이 되고 싶다며 막무가내로 사찰을 찾았지만 '고교 졸업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은사스님의 면박에 발길을 돌렸다. 이후 제주대에 입학한 지 1년도 못 돼 출가를 했다. 그림은 속가 시절 취미로 접어둔 채 동료스님들과 경남 김해에 흙집을 짓고 수년 동안 수행만 했다.

설민 스님이 그림에 대한 열정을 되살린 것은 1991년. 법당에 걸어 놓을 불화를 사러 가게를 들렀는데 상업적인 그림밖에 없어 직접 그려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후 전통 불화에 대한 책을 읽으며 탱화 2점을 그렸다. 그 작업이 인연이 돼 1998년 부터 매년 한점씩 꾸준히 작품을 내놨다. 2003년 불교 미술전에서는 '사천왕 탱화'로 특선상을 받기도 했다. 명천 스님도 불화를 그리게 된 동기는 마찬가지다. 해외전시는 오히려 명천 스님이 선배다. 스님은 2001년 '사경변상도(무구정광대다라니경)' 3점을 그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 박물관에 기증했다. 스승 없이 15년간 수없이 습작하며 갈고 닦았다.

명천 스님은 "앞으로도 기회만 된다면 우리 한국불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반가사유상 등 불교문화재 미국 나들이

미국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

12월 7일 미국 휴스턴 미술관에 한국실(사진아래)이 개설됐다. 한국실은 토기와 도자기, 불교미술, 여성 장신구, 현대미술품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조선시대 용무늬 철화백자 등 다양한 문화재가 전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은 이번 개관을 위해 주요소장품 37점을 대여했다. 이 가운데 35점은 2년간 전시되며, 국 보 인





금관총 출토 신라 금관(제87호)과 허리띠(제88호)는 2개월간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사진 오른쪽)과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입상, 고려시대의 금동여래좌상 등 불교 문화재 전시는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휴스턴 미술관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유럽, 아시아, 남북미, 아프리카 문화재 5만500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25만명이 관람하는 미국 남부의 중심 박물관이다. **조동섭 기자**

동방대학원대 '중국 명비 탁본전'

19일까지 백악미술관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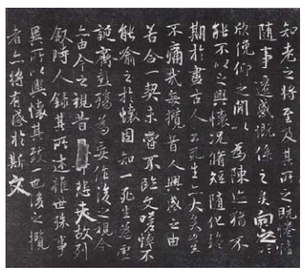
동방대학원대가 (재)예문와와 함께 '중국 명비 탁본 전시회'를 12월 19일까지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한시대의 '석문송'과 '장천비', 동진시대의 '난정서', 북위시대의 '장맹용비', 성당시대의 '쟁좌위첩' 등 25여점이 선보인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석문송(石門頌)'과 '난정서(蘭亭序)'다. 석문송은 높이 261㎝, 넓이 205㎝, 22행으로 매행 30자 혹은 31자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 편액에는 '故司隸校尉楗爲楊君頌: 사례교위 양맹문을 기리는 송을 세운다' 뜻의 열 글자가 쓰여 있다. 서명은 예서로 돼있으며, 모두 617자로써 중국 동한시대의 유명한 각석이다. 또 '난정서'는 왕희지와 손작 등 41인이 난정(지금의 절강성 소흥)에서 음주와 시를 지으면서 분위기가 고조될 즈음에 왕희지가 쓴 서문이다. 미불은 이것을 두고 "천하제일의 행서"라고 극찬했다.



동한 '석문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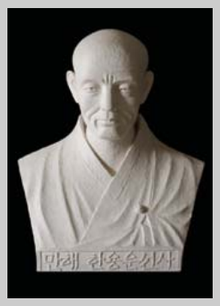




동진 '난정서'

이 비첩은 처음의 초고가 28행 324자로 돼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용본(神龍本)'이 가장 예술적 가치가 높다. (02)745-8052 **김주일 기자**

이 땅의 정신세계 풍요롭게 일군 63 선지식 조각전



깨달음의 길을 간 수행자 63인의 초상이 선보였다. 아도화상, 이차돈, 원광 법사, 자장 율사, 원측 대사, 원효 대사, 의상조사, 지장 대사, 도선 국사, 도의 국사, 부설 거사 등. 지난 1600여 년 동안 이 땅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일구어온 이들은 시대의 빛이며 거울이다. 바라보는 초상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니?'라고 묻는다. 이런 대덕의 얼굴엔 수행자로서 엄정함과 자비로움 그리고 정신의 형형함이 가득하다.

인사동 그라우 갤러리에서 12월 12일~12월 18일까지 이성도 교수(한국교원대)의 '한국 고승대덕의 초상조각전'이 열렸다.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끝)

천불산 청량암

청량암(淸涼庵) – 가야산 일천봉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남산 제일봉에 자리한 암자.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듯
가야산 일천봉우리도 저마다
제 몸에 드는 길을 하나씩 갖고 있다
산이 산에게로 돌아가는 길마다
고풍스런 절집의 연등이 내걸려서
그 길을 따라가면 연화세상(蓮花世上) 일 듯 싶다.

미봉스님 초청 사주 친견

전국의 명산에서 30여년 수행 정진한 미봉스님



미봉스님은 전국의 명산에서 90여년 수행 정진하며 명리학을 참구하신 스님으로 세간에 알려진 유명한 스님이시다.

초년, 중년, 장년 이렇게 세 번 온다는 '나의 운'은 언제일까?
운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부귀빈천이 나누어 진다고 한다.
당신의 운세를 미봉스님께서 '영험한 법력'으로 풀어 드립니다.

스님은 개인의 사주에는 정명(正命), 수명(隨命), 조명(遭命)의 세가지 사주가 있다고 한다. 정명이란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길함이 저절로 이르는 것인데, 전생에 닦은 선업의 공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둘째 수명이란 힘써 노력하면 길복이 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대로 흉화가 닥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조명이란 좋은 일을 하여도 재앙이 닥치고 원하는 바도 아닌데 밖에서 부딪혀 흉화를 만난다. 이런 명은 전생에 크나큰 악업의 과보로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 명을 유추하여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미봉스님은 전국의 명산에서 30여년 수행 정진하며 명리학을 참구하신 스님으로 세간에 알려진 유명한 스님이시다.

스님은 무자년 쥐띠 해를 맞이하여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동 역사내에 있는 출판사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개인의 사주와 운세를 봐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고뇌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 정진한 공부를 회향하는 자세로 상담에 임하겠다고 하신다. 유난히 힘겨운 분들이나 2008년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미봉스님을 만나볼 것을 권해본다. 친견 접수비는 3인 가족 기준 2만원 이며, 전화로 사전예약접수 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친견을 할 수 있다.
-도서출판 국부카르마 제공- 문의:(051)583-9923~5

이런 분들은 미봉스님을 친견하세요
•사업 •매매 •취업 •승진
•삼재 •공부 •건강 •결혼

띠별 원진살
서귀원두각 – 쥐가 암 쥡난 것을 싫어하니 상극이다.
우천마봉경 – 소가 말보고 발을 젓건다고 싫어하니 상극이다.
호협견해성 – 범이 개 음음소리를 싫어하니 상극이다.
토경원재성 – 토끼가 원숭이 음음소리를 싫어하니 상극이다.
용협견흑 – 용이 돼지 앙글 검은 것을 싫어하니 상극이다.
사협괴취당 – 뱀이 닭 주둥이 뾰족한 것을 싫어하니 상극이다.

일 정
12월26일~12월31일 (6일간)
선착순 예약접수 받습니다.

예약접수
051)583-9923~5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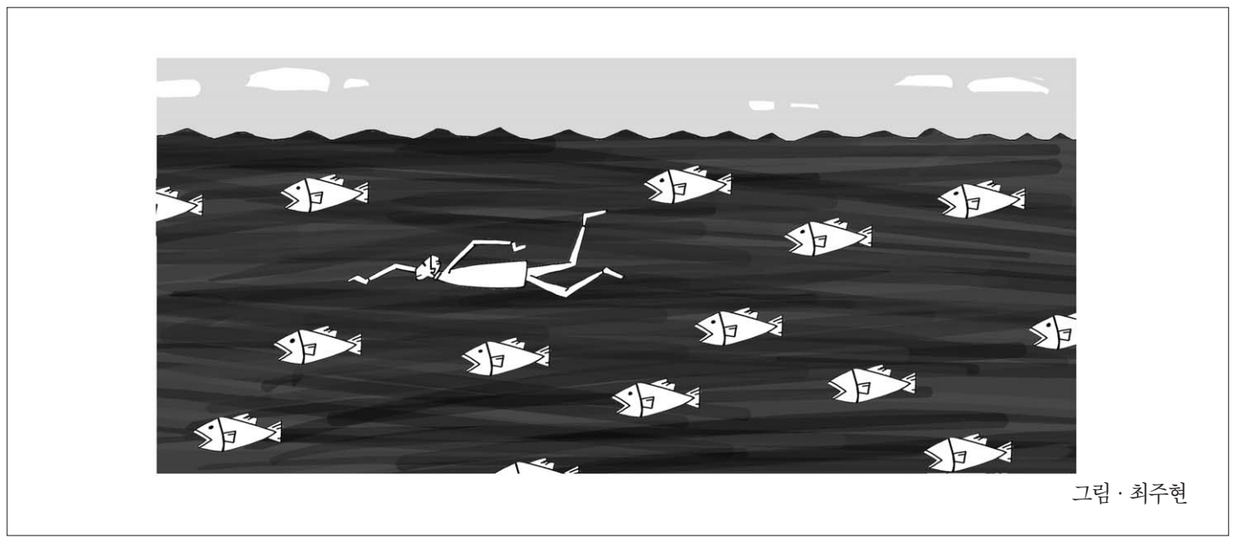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공부 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 산 물질만 봐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은 영령들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다니는 그 마음, 세상에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기에,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기에,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기에 그렇게들 인연줄이 질기고 질겨서 그걸 놓지 못해 불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립니까?

그러니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 별성에도 살고 있다. 여기 모습대로 거기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그건 화신(化身)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그 모습들은 화신으로서 모두 보현보살(普賢菩薩)로 화해서 영계들이나 산 사람들이나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化)해서 직속 왕래를 해보세요. 얼마나 떳떳한가?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러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빛보다 더 빨리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기복으로만 만날 빌고 "아이구,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를 씁니까?

나는 이날까지 나 살려달라고 빌어본 예가 없어. 항상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팔랑개비대만 쥐고 다녔다고.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대만 쥐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대를 쥐면 나한테도 바람이 있지. 지수화풍이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저절로 돌아갈 거라고. 나는 그 대만 불들고 다녔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을 안 했으니까 고통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우리도 악과 선을 다 놓을 수 있다면, 또는 집안에서 병 문제가 생겼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지금 간암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병원이냐고, 의사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난번 여섯 달 전에도 우린 그렇게 해서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난 모르는 일인데 '아휴, 나아야지. 자식들이 어린데 나아야지.' 했대요, 글쎄." 그랬더니 나았대요.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문제라고요. 나한테 물어서 되는 줄 아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물론 '나무때기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가지.' 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수 해를 그렇게 원주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병만 고쳐주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아니야. 그건 잠시 잠깐 병이 나았으니까 잘살겠지만 영원토록 끊임없는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은 그 업보를 스스로 녹이지 않는다면 항시 그런 게 닥쳐오니까 말이에요. 잠시 잠깐 그렇게 해줬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런 소리도 듣기 싫다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이 진짜로 어딜 가나, 하다못해 돼지 새끼, 벌레 새끼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지, 누가 나를 믿으랬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예가 없어요. 자기 주인공 즉, 자기를 믿으라고 했지. 그저 생각이 없는 짐승이나 생각이 있는 짐승이나, 생각이 없는 영계나 생각이 있는 영계나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영령들, 그 애처롭고 참혹한 우리 산 넋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이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영, 혼, 넋 이렇게 부르죠. 이런 거는 업식으로서 많이 살던 습이 한데 뭉쳐진 그 덩어리라. 어떠한 업식이야. 그 업식이 영령들이야, 그게 다. 그러니 중생이라 이 소리지. 그 참혹한 꼴을 보세요. 내용적인 것은 다 말을 못하지만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생(四生)의 종류, 또 용도대로 그러한 문제가 덩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사람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갖추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가, 저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보기라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업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이라면 이다음에 죽어서 사람으로만 태어나라는 보장을 누가 하며, 또는 사람 속에서도 업식이 뭉쳐진 것이 사람인데, 사람 이 자체가 바로 중생들의 소굴이거든. 여기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참인데 사람도 못 된다면 부처 될 일은 까마득하지 않으냐 이거야, 부처의 뜻을 알려면. 그러니 누가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선 병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죽든 살든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 벌써 스님과 첨보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님하고만 첨보되는 게 아닙니다. 저 은하계의 별성들이 다 첨보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 응. 한마음이라는 걸 소홀히 생각하고 조그맣게 쓰지 말고 좀 더 지혜로운 지각을 가지고서 좀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아량, 지혜, 자비를 가지고 넓게 포용하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에도 있지만, 몇백 년 전에, 아니 삼천 년 전이라고 합시다. 부처님께서 그때 방편으로 하셨으니까.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다 놔야 된다 하는 경도 있을 거고, 또는 계율을 아주 돈독하게 지켜라 하는 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다 알고 나면 계율을 지키라고 말을 안 해도 범하지 않으니까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키는 게 돼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계(五戒)도 못 지켜요. 계율이라는 거에 걸려서 말이죠. 나는 오계(五戒)를 설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때에 따라서 부득이 살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살생이 아니다. 부모를 위해서, 하다못해 물고기 한 마리를 죽였다 할 때에 그것은 내 살, 내 생명, 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도리를 알라." 이랬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괜히 남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 죽여서만 죽이는 게 아닌 일이 또 있죠. 남의 식구들을 몽땅 짓밟아 버리는 거, 하나 죽이면 식구가 전부 못 살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런 경들은 전부 무의 법을 말했어요. 무의 법에서 말하고 유의 법에서 말하고 한데 합쳐서 현실로 내놓은 것이 『법화경』이에요. 또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글자 수는 적지만 편집할 때 딱 간추려서 해놓은 거죠,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읽을 때에도 뜻을 잘 알고 보면 거기에는 『금강경』도 들어 있고, 『법화경』도 들어 있고, 『화엄경』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또 아까 『천수경』 뜻으로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를 읽었죠? 그것이 전부 설법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하는 것도 바깥으로 하지 마세요.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천(天) · 지(地) · 인(人)하고 연결돼 있으니깐요. 천 · 지 · 인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전부 한데 있죠. 그것에서 알게 되면 대천세계(大千世界)를 알게 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대천 연화장불(大千蓮華藏佛)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미래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이렇게 삼세(三世)를 굴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휴! 스님,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때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삼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삼십, 삼백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수명이 길고 현실은 수명이 짧습니다.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되고 십만 년이라고 해도 되지만, 오백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한 달도 될 수 있고 일 년도 될 수 있어요. 보통 수명이 일 년이다 하면 그것은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돼. 또 거기서 일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하루밖에 안 돼. 또 하루라 하면 여긴 한 찰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찰나도 한 찰나가 없으니까 한 찰나라는 건 아예 그냥 없는 거를 말하고, 없기 때문에 한 찰나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림하는 데 걸음 떼어놓으시는데 한 찰나에 떼어놓으시죠?

그래서 과거도 떼어놓은 발자취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현실도 없다 하는 것은, 이 공부는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마음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삼세심(三世心)이 일심(一心)이요, 일심이 삼세심이니라. 그래서 사천세계(四千世界)가 바로 원심(圓心)이야, 원심! (주먹을 쥐어 보이시고) 그래 그것을 다 포용하면 원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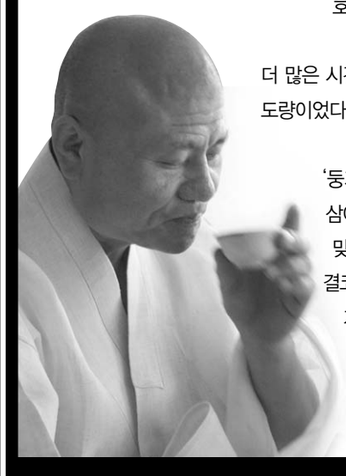
불교용품 및 불교서적

부산시청 · 경찰청 바로옆
부산불교회관 1층, 73평에
불교용품과 불교서점등을 함께 운영할 불자님은
꼭 한번 와 보십시오.
기존업체인 "백광"이 성업중, 사세확장으로
이전할 예정인 이곳은 부산 최고의 위치와
여건을 갖춘 부산불교회관 1층 점포입니다.

자세한 문의(여여선원 원주실)
051)853-5486~7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둥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둥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북스 (051) 244-1251 (02) 2198-5151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볼 수 있어야

☞19면에서 계속

심력을 얻어서 전체 구정토를 왕래하고 그 별성과 더불어 같이 운행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면 바로 그것을 불(佛)이라고 해도 좋고 자유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어떠한 악의 덩어리가, 마음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선 보이지 않는 데 다니면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있을 때 돌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이 바로 내가 된단 말입니다. 업식으로 몸뚱이가 뭉쳐졌다고 그랬죠? 즉 말하자면 이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스무 개, 백 개, 천 개, 백억으로 돼 가지고선 누구를 살리려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 가지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걸 참 어떻게 되짚어서 얘길 해드려야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생활이 그대로 천체심성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사님들이 천체물리학을 연구하고 그러지마는 이것은 물질로써 연구하는 것이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옆에 누가 와 앉아있어도 못 보는 걸 어떡합니까? 전자의 선배들이 지금 후배가 연구하는 데 와 앉아있어도 몰라. 주욱들 앉아있어도 몰라. 그럼 그 노릇은 어떡합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줄이라는 얘깁니다. 아는 마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를 참,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죠.

옛날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어느 의학 박사가 말입니다, 죽었는데, 참 그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무척 애썼는데 후배들은 도대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어떤 남자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항상 공부하니까 그냥 그 박사가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남자는 그 박사가 전자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바로 태어난 줄 알고 아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타의에서 들어와도 자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타의의 선배가 죽어서 영령으로서 나한테 침입을 했어도 선의적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만들었죠. 그러나 진짜 공부는 악의적으로 했든 선의적으로 했든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걸 내 걸로 삼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인공이다'라는 걸 아주 거기에다가 딱 놓고 '이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지' 한다면 그게 자의가 되거든요.

이것을 체험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것이 수많은 악마라도 다 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다면 천지가 편안해. 천지가 다 편안하면 백성이 편안해. 모든 사생(四生)이 다 편안하고, 사람 될 율이 100% 더 많게 되고, 그 몹쓸 인연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불국토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불국토(佛國土)가 다른 게 불국토입니까? 여러분이 참, 꿰뚫어서 자기를 자기가 먼저 알고 또는 남을 알고 상대를 알고 함으로써 둘이 아니게 공존하는 줄 알고 화합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만 가지 향이 나고, 만 가지 꽃이 피게 되고, 만 가지 열매가 맺고, 만 가지 맛을 아니 이것이 불국토다 이거야.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시고 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뜻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수억겁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누진(漏盡)으로부터 오신통을 그대로 하는 것만이, 우리 지금도 오신통을 하고 가지만요, 그 오신통도 떠나서 모든 걸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밖엔 없으니까요.

>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 뭐 또 죽을까봐 그렇게
> 살려달라고 애를 씁니까!"

나를 믿는다고요? 나는 길잡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믿는다면 나도 거기 첨보되어 있고, 저 부처님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또 거기에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부처가 스승이고, 부처는 중생들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평등진리죠. 따지고 본다면 어떠한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일 안 해주면 사장이 어딨습니까? 사장이 없으면 직원들도 없고요. 이것은 모두가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서부터 열까지 귀중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앞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은 발전할 겁니다. 지금 시쳇말로 이러는 거지, '깨달을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발전할 겁니다' 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내고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니 이게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다 여기 와서 나를 꼭 만나야만 하는 줄 아시지만 여기 스님네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급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한마음 내 주십시오." 하고만 가도 됩니다. 또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하고서 꼭 봐야 하고 여러분한테 꼭 목탁을 쳐서 해줘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도 않아요. 나는 결심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내가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피해나 끼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려가지도 않고 혓바닥을 깨물고 죽겠다고. 그리고 죽어서 천당엘 가려고 내가 이런다면 아예 살지를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살지를 않아도 고만, 살아도 고만입디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얘기해드리죠. 여러분이 죽으면 별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툰다 하는 것은, 별의별 게 다 돼서 별의별 이름을 다 가지고 서로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존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여기 스님네들한테 연락하시면 하시라도 빛보다 더 빠르게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천 리라도 좋고 만 리라도 좋고 강이 끼어도 좋고 산이 높아도 좋습니다. 산이 높아서 못 갈 일도 없고, 물이 깊어서 못 갈 일도 없고, 불구덩이라서 못 갈 일 없고, 죽은 세상이 돼서 못 갈 일 없고, 누가 못 가게 한다고 못 갈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자1(男):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득도한 사람이 죽어서 동물의 몸을 받고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득도했을 때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물의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스님: 득도한 사람이 왜 동물이 돼요, 또? 득도한 사람은 두 가지 여건이 있어요. 만약에 그 업식으로 잘못 저질러서 동물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득도를 했으면 벌레까지 된단 말입니다.

▶질문자1(男): 벌레가 됐을 때의 의식 수준은 어떻습니까?

▶스님: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 방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와 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면 한 세상이 오대양 육대주처럼 그렇게 장광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오라기 머리카락 같은 그런 거,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집어내서 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꾸 지혜롭게 만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해주니까. 그래서 벌레도 건질 수 있는 거죠.

부처는 천백억화신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소를 건지려면 소가 되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되고, 벌레를 건지려면 벌레가 되고, 불쌍한 거지를 도우려면 거지가 되고 이렇게 장광하게 그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잘못해서 벌레가 되는 것과 자기 위해서 벌레가 되는 건 또 다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깨달아봐야 그 마음을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말로는 내가 할 수 없어. 왜냐? 내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러분은 뜨거운지 찬지를 몰라요. 이 물컵을 내가 줘도 '찹니까, 뜨겁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말은 소용이 없어. 직접 자기가 먹어봐야 이게 뜨거운지 찬지 그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질문자1(男):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까지 그 의식 변천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요?

▶스님: 이런 얘길 한번 하죠. 그것도 맛에 불과한 거지만 그 느낌을 제삼자가 얘길 해주려면 말을 해야 되겠어요. 또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도 일찌감치 잃고 외딸을 혼자 키웠어요. 아주 애지중지 길러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켰죠. 이건 현실에 있었던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사고가 나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사십구재(四十九齋) 때도 그냥 몸부림을 치고 울고 그래요.

> "모든 걸 자유스럽게
> 자유인이 되게끔
>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 주인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님, 스님께서 우리 딸을 천도 좀 시켜주세요. 죽었어도 어디로 갔는지, 저를 좀 알게…."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날을 두고 그냥 성가시게 구는데 못살겠어요, 정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딸이 아무개네 집에 태어날 테니까 이다음에 그 어린애를 낳걸랑은 수양 손자로 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애지중지하신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죽는다고 하더니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죽질 않고, 이제 재산이 있건만도 뭐 팔러 다니는 척하고 그 집을 자꾸 드나들었던 모양이죠. 그 집을 다니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딸 얼굴하고 똑같아, 똑같아 아주. 점 하나 요기 (목 부근을 짚어 보이시고) 있는 거까지 똑같아. 그래 어머니가 너무 못 잊어 하니깐 그렇게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또 그렇게 인도를 했고요. 길잡이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지 뭐 귀중한 사람 아니에요. 밑도 씻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똥친 막대기라는 소리도 들을 만하죠. 부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능력으로서 참 그 딸이 그렇게 돼 가지고서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수양 손자로 삼아가지고 그 수양 손자한테 재산을 다 그냥 준 거예요. 만날 업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젠 돌아가시고 없겠죠.

▶질문자1(男): 그러니깐 자기가 체득을 하지 못하면 전혀 짐작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님: 그거는 열심히 공부해서요, 그걸 알려면요, 그거 한 가지만 알아서도 아니 되니까 여러 가지 다 알려면 벌써 나부터 알아야 돼요. 당신이 당신부터 알아야 앞으로의 전체를 알 수 있으니깐요.

▶질문자1(男): 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아는 과정을 좀 더 앞당기고 싶어가지고….

▶스님: 앞당기려고 한다면 절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세상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데 지금 내가 현실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전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질문자1(男):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하고 두뇌하고의 그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님: 마음이라는 건 통신이에요, 통신! 마음내는 거는 통신이요,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내 움죽거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내기 이전 마음, 그것은 한마음의 근본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냈다 하면 벌써 여기요. 어디 갈 때 (오른쪽 무릎을 만지시면서) 돌에다 부딪쳤어요. "아이구, 다리 아파!" 이럴 때 벌써 통신이 돼요., 머리로. 내가 이거 "아이구! 아이구! 다리야." 이러고 할 때 벌써 이 머리로 통신이 돼가지고 머리에서 벌써 발끝 손끝까지 다 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통신망이 그렇게 세포를 통해서 다 통신망이죠. 이게 혹성이라면 세포 전부가 통신망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합창단 보살님들의 선법가 공양이 있겠습니다.

▶스님: (합장하시며)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나 봐요. 여러분이 이 뜻을 잘 파악해서 진실하게만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대성공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대성공의 자유인이 될 겁니다, 아마.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
- 학생 포교(고교생, 대학생 등)
- 따주기 사회봉사 및 포교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생활속 비상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경기 등)

강좌세부 내용

가. 1일차(09:00 ~ 22: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공해)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나. 2일차(09:00 ~ 13:00)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수치의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보감, 내 · 외 궁합 비법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각 16명)
-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 **일정**
- ☞ **충남청양교육장** : 2008. 1. 12(토) ~ 1. 13(일)
  〈금요일 오후 도착가능〉
  40만원(순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 **부산교육장(부산평생교육원)** :
  2008. 1. 26(토) ~ 1. 27(일)
  35만원(숙식제외,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 준비물 : 필기구, 편한 운동복(츄리닝)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염 불 사**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173
- 설 립 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 1리 부락주민대표
- 이 장 : 임재민
- 주 지 : 서평원(정 봉)
- 신도회장 : 김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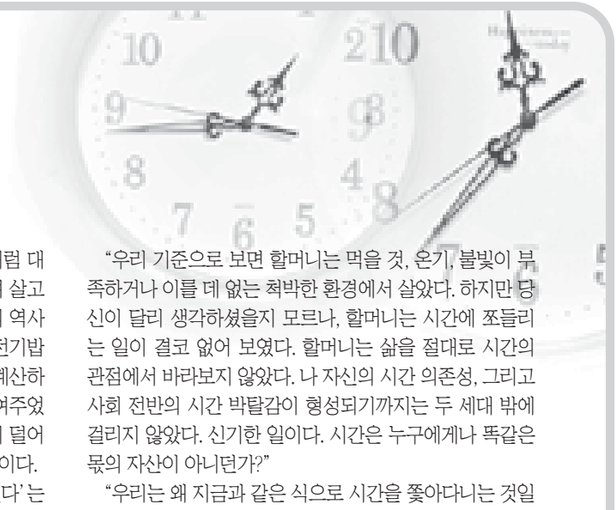
상기 설립자 대표는 귀 종단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염불사(염불암이 아닌)를 귀 종단에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니 이를 부인하지만, 혹 인정 한다 하더라도 주지를 설립자 동의 없이(귀 종단 종헌 제75조 권리의 보장에 위배)임명하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현 주지스님(정봉)과 염불사 신도회와 합의 하에 귀 종단에서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 12. 17

대한불교 원효종 대표(종정, 총무원장) 법하

현실에서 시간의 의미와 가치 찾기

시간? 시간이 뭐지?



다섯 살 난 아이가 "5년 후 나는 몇 살이 되나요?"라고 물으면 서슴없이 "열 살이 되지"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20년 후에는 내가 몇 살이죠?"라고 묻는다면 어떨까? 수치로서의 대답은 쉽다. "그야 백 스물다섯 살이지"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겠는가? 어른의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125세라는 나이는 실존적인 수치가 아니다. 그 나이까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의 단위, 그 분절체의 실재란 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열가지 생각
보딜 옌손 지음|이섬민 옮김
여름언덕 펴냄|8,800원

<벽암록> 제3칙은 '마대사 몸져눕다(馬大師不安)'이다. 마조가 아파 누워 있는데 원주가 찾아와 묻는다. "스님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마조가 답한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라고. 여기서 월면불은 극도로 짧은 시간을 일면불은 무한히 긴 시간을 뜻한다. 아파 누워 있는 마조에게 '아파 누워있는 시간'은 시간을 초월한 시간인 것이다. 마조의 대답이 <벽암록>의 세 번째 공안으로 자리함으로써 시간을 초월한 깨달음의 세계를 갈망하던 선사들의 기개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엿볼 수 있다.

시간. 우리는 늘 시간을 말하고 시간 속에서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속에서 시간을 허비한다. 물속의 물고기처럼 대기 속의 날짐승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재며 살고 있다.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시간단축의 역사다. 세탁기가 나와서 빨래하는 시간을 줄여주었고 전기밥솥이 나와서 밥 짓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 컴퓨터가 계산하고 글 쓰고 자료를 종합하거나 분석하는 시간을 줄여주었고 생산라인의 각종 자동화 기기가 일손을 엄청나게 덜어주었다. 기계의 발달은 시간의 절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무엇이 그리 바쁘고 무슨 일이 그리 많은가? 시간을 절약해 주는 온갖 장치들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현대인은 아닐는지?

스웨덴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저술가인 보딜 옌손의 <시간에 대한 열 가지 생각>은 인간 삶에서의 시간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짚고 있다. 인간의 한 평생은 70년 혹은 80년 덩어리로써의 생애가 아니라 자잘하게 조각난 시간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조각난 시간 채우기가 인생이라는 것이다. 옌손은 이러한 관점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통찰로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준다. 시(時)테크 전략 서적은 아니고 철학이나 물리학 서적도 아니다. 하지만, 점점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삶의 속도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 패러다임의 담론을 제안하는 옌손의 목소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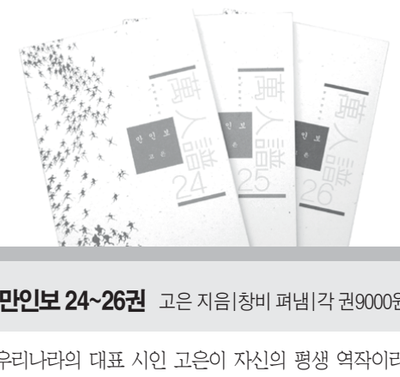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할머니는 먹을 것, 온기, 불빛이 부족하거나 이를 데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다. 하지만 당신이 달리 생각하셨을지 모르나, 할머니는 시간에 쪼들리는 일이 결코 없어 보였다. 할머니는 삶을 절대로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나 자신의 시간 의존성,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시간 박탈감이 형성되기까지는 두 세대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몫의 자산이 아니던가?"

"우리는 왜 지금과 같은 식으로 시간을 쫓아다니는 것일까?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사고 패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를 인공 시간의 지배하에 놓이게 한 것은 산업화였다. 인공 시간의 지배와 그 임박한 붕괴는 노동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노동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책에서 말하는 '열 가지 생각'은 우리 주변의 일상과 그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과 사고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자신으로써의 시간, 시계 속에서 분별되는 시간과 체험으로 형성되는 시간, 무엇을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 생각하는 시간과 세계화의 속도 등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입장에서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각 목차의 부제들이 하나의 격언처럼 흥미롭다. '삶은 3만번의 낮과 밤으로 이뤄진다'(제1장) '금방이 얼마나 쌓여야 15분이 되는가'(제2장) '시간은 리듬에도 반영된다'(제8장) '자신에게서 풀려나 새롭게 생각하기'(제10장) 등이다.

임연태 기자

고승들의 해학과 비판요소 가미



만인보 24~26권 고은 지음|창비 펴냄|각 권9000원

우리나라의 대표 시인 고은이 자신의 평생 역작이라 할 수 있는 <만인보>를 계속 출간하고 있다. 21~23권을 출간한 지 1년 7개월 만에 24~26권(395편의 시)을 출간했다. 고은의 <만인보>는 민초의 삶과 역사에서 잊혀가는 인물들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세 권에서는 주로 신라시대부터 근대까지 불교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고승들의 삶과 행적을 복원해냈다. 고승들을 경외의 대상으로만 그리지 않고 해학과 비판적인 요소도 가미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고은 시인이 한때 승려였음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킨다. 마의태자, 원광 등 역사적 인물과 이름 없는 승려들의 곡절 많은 삶을 시에 압축했고, 이회광 등 친일 승의 비열함도 비판한다. 종교적 아우라(예술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에 가렸던 사찰의 내밀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주지 자리 하나에 지옥 3천개인 줄 몰랐더냐/ 영천 은해사 주지 그만두고/ 봉암사 토굴에 들어온 지/벌써 4년 반// 이제 잠 오면 자고/배고프면/솔잎가루 먹고/ 율무가루 먹는다"('독살이 희만선사'에서) 향기로운 인물에 대한 찬양과 변절자에 대한 독설 사이에 해학 어린 시편도 보인다.

김주일 기자

탄허 스님 일대기 소설로…



소설탄허
백금남 지음
동쪽나라 펴냄|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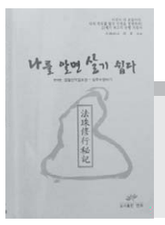
49년간 오대산 월정사에서 주석하며 유교 경전을 두루 섭렵하고, <화엄경> 등 난해한 경전을 번역해 국내 · 외 불교계의 찬사를 받았던 택성 탄허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엮었다. <십우도>, <칼의 어록>을 집필한 저자가 설명이나 주장이 아닌 '이야기'로 탄허 스님의 일대기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탄허 스님은 생전에 번역한 원고가 10만여 매를 넘겼음에도 사적인 글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스님이 남긴 일화, 설법, 대담, 살아 있을 때 교분을 맺은 이들로부터 들은 증언들을 토대로 앞뒤를 유추해 작품을 완성했다.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가의 모든 경서를 섭렵하고 노자와 장자까지 두루 통달했음에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혹을 풀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 유생의 모습, 갈등과 방황을 끝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의 의식적 변화 과정 등이 다양한 일화들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로 되살아난다.

김주일 기자

내 안 붓다를 찾도록 인도…



나를 알면 살기 쉽다
스라마나 석호 지음
도서출판 연화 펴냄 | 5만원

석호 스님이 현대판 점찰선악업보경-법주수행비기 <나를 알면 살기 쉽다>를 펴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을 아예 모른다. 약간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어렴풋이나마 안다. 완전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줄 안다. 이 수행서는 약간 지혜로운 자가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내 안의 깨어있는 붓다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서이자 현재의 모습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마음 과학에 의해 밝혀놓은 책이다. 법주수행에 사용하는 법주(法珠)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점치는 숫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법주는 0부터 36이 새겨진 37개의 구슬로 이뤄져 숫자의 차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줄에 꿴다. 염주와 유사하게 생긴 법주를 책과 함께 제공한다.

강지연 기자

티베트 불교 가르침 구도 소설



탄트라의 길
울리 올베디 지음|김인순 옮김
조화로운 삶 펴냄|1만4000원

<탄트라의 길>은 여주인공 마일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기억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지, 탄트라의 깊은 명상 단계를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는 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구도 소설이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화두는 '깨어나라'와 '춤을 추어라'이다. 깨어나기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눈뜨는 것이고, 춤추기는 자아와 우주가 하나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고향을 떠난 마일리는 카트만두의 한 사원을 찾아가 수행자가 되지만 비구승 쇠남과 사랑에 빠진다. 결국 마일리는 사원을 떠난다. 이런 그녀에게 사원의 요기니는 말한다. "사랑은 무지한 사람에게는 속박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저자는 소설의 이야기 구조를 빌려 이처럼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한 비구니의 삶에 비춰 흥미롭게 전개한다. 자신 또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저자 올베디는 섬세한 묘사로 신비로운 티베트 불교의 매력과 독특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4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5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7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성철	장경각
8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향덕	운주사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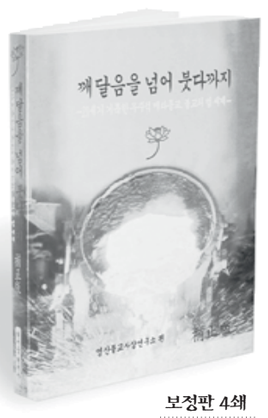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절찬리 판매중
개정판이 나와 발행 2년만에 11쇄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왕비 책봉 7일만에 폐위된 '비운의 여인'



중종 원비 단경왕후 - 온릉







아버지는 중종반정 반대로 죽임 당하고 반정 공신 압력에 왕비자리도 빼앗겨 70평생 '죄인의 딸' 멍에 속 불행한 삶

온릉을 방문한 날, 폭설이 내린다. 눈보라 속에서 제향이 진행된다. 동행한 사진작가 최 선생은 사뭇 흥분된 표정이다. '그림 좋다'를 연발한다. 온릉(溫陵)의 이름과는 달리 매서운 눈발 맞으며 비운의 여인이 누워 있는 능으로 향한다. 온릉은 평생을 자식 하나 없이 중종의 따스한 손길만 그리워하며 살았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 폭설은, 70평생 죄인의 딸이라는 멍에를 지고 춥고 시리게 살았던 여인을 따스하게 덮어주는 자비의 솜이불이 아닐까.

1506년 연산군 12년,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우의정 강구손이 좌의정 신수근에게 묻는다.

"좌상대감, 누이와 딸 중에 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오?"

그의 의중을 모를 리 없는 신수근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처럼 내뱉는다.

"주상이 비록 포악하나 세자가 총명하니 그를 믿고 살 뿐이오."

신수근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비통함을 숨기며 그렇게 대답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이다. 신수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였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옹립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던 훈구파의 박원종이 강구손을 통해 신수근의 마음을 떠본 것이다. 신수근의 누이는 연산군의 비 신씨이고, 딸은 진성대군의 부인이다.

신수근은 '매부를 폐하고 사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반정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신수근은 성희안 등 반정세력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누이와 딸은 일주일 간격으로 왕비 자리에서 폐위되었다.

12세에 진성대군과 가례를 올린 단경왕후 신씨는 1506년 반정으로 진성대군이 왕으로 추대되자 자동적으로 왕비에 올랐다. 그러나 반정공신들의 압력에 못 이겨 왕비 책봉 7일 만에 폐출되어 사가로 내쫓겼다. 그녀가 죽은 아버지 신수근의 원수를 갚을 것을 우려해서다. 중종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공신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왕비는 하성위 정현조의 집으로 쫓겨 갔다가 후에 할아버지 신승선의 집으로 옮겼다. 신승선은 성종 때 우의정과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명문가 출신인 단경왕후 신씨는 왕비까지 되었다가 그러나 7일간의 짧은 영화를 끝으로 50여 년간 그늘 속에서 춥게 살다가 죽었다. 조상복, 남편복이 있다고 해야 하나 없다고 해야 하나. 대답할 말이 우울하다.

중종은 그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쫓겨난 그녀가 보고 싶으면 궁궐 안 높은 누각에 올라 그녀의 본가가 있는 쪽을 바라보곤 했다. 신씨의 집에서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뒷동산 바위 위에다 신씨가 궁중에 있을 때 즐겨 입었던 분홍색 치마를 펼쳐 놓았다. 인왕산 치마바위의 전설은 여기서 유래됐다. 자신의 손아귀에 칼자루가 없었던 그는 사랑하는 지어미마저 지켜주지 못했다.

온릉은 가장 안 알려진 능이다. 서울 교외선 장흥역 근처 숲속에 있다. 변변한 안내판도 없고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비공개 능이라 근처 신도시 사람들도 그 존재를 잘 모른다. 능이 자리 잡은 곳은 명당이다. 그래서 능의 이름을 빌려서 마을 이름을 곧잘 붙인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능은 사릉이다. 인근 지역명칭은 능명을 차용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가 그것이다. 하다못해 갈비집 이름도 능명을 빌려온다. 그러나 온릉은 잊혀진 여인의 이름 같다.

눈발이 그칠 기세가 아니다. 제관들은 언 손을 호호 불며 잔을 올린다. 최 선생은 첫눈 맞은 초등학생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셔터를 눌러댄다. 불우한 여인의 인생 역정이 풍성한 눈발 속에 묻힌다. 여기서 서울 삼성동 정릉까지는 까마득하다. 그러나 지어미를 지켜주지 못했던 중종의 넋이 오늘만큼은 이 언덕 언저리를 맴돌 것이다.

반정공신들에 의해 꽃다운 스무 살에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는 남편이 왕이 되었지만 거창 신씨라는 혈연으로 말미암아 고모인 연산군 부인 신씨와 함께 폐비라는 운명을 같이 했다. 그녀는 아버지 신수근을 원망할까? 가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역사다. 신수근이 반정에 가담했다면,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백설 분분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온릉(溫陵)은

중종의 원비 단경왕후(1487~1557) 신씨의 능이다. 중종반정으로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부친 신수근이 반정에 참살되어 죄인의 딸은 왕비로 부적합하다는 반정공신들의 주청으로 책봉 7일 만에 폐출되어 사저로 쫓겨났다. 폐비 신씨는 자식 없이 1557년(명종12) 12월 7일, 71세로 승하했으며, 친정 묘역인 이곳에 장사지냈다. 명종은 큰어머니뻘인 신씨 장례에 장생전 관목을 내려 1등의 예로 장사지내게 하고 신수근의 손자 신사원의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1698년(숙종24) 현감 신규가 상소를 올려 노산군(단종)과 함께 복위할 것으로 주청했으나 조정의 의견이 분분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숙종은 연경궁 옛터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수는 국가의 제사를 관장하는 봉상시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739년(영조15)에 비로소 복위되었다. 새로이 상설을 설치하면서 추봉된 왕비릉인 정릉(태조 계비 신덕왕후), 사릉(단종비 정순왕후)의 상설을 따랐다.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고 능침 주위로 석양과 석호 각 1쌍을 배치하고 혼유석 1좌, 양측에 망주석 1쌍을 세웠으며 3면의 곡장을 설치했다. 한단 아래 문인석과 석마 1쌍씩, 중앙에 장명등이 있고, 능 아래 재실이 있다.

사적 제210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19. 면적 21만6711㎡(6만5670평).

불교의식(범음 범패)수강생모집

본 대학 연구원에서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별로 나누어 불교의식(범음 · 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31기)**

1. 서울지역 수강안내
- ◆개강일자 : 2008년 1월 7일(월) 오후 3시(목탁 지참)
- ◆출 강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본대학
- ◆통 신 : 지방 거주자(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수강안내
- ◆개강일자 : 2008년 1월 5일(토) 오후 1시 30분(목탁 지참)
- ◆교육일자 : 매주 토요일, 1시 30분 ~ 5시 30분(4시간)
- ◆교육방법 : 서울 교육방법과 동일(교육자료 배부)
- ◆교육장소 : 본 대학 부산교육원(법림정사) 부산시 초량동(부산역 앞) TEL 051)466-1959

3. 교육내용 : 송주편, 예경편, 헌공편, 재의식편, 시식편

4. 교육기간 :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31기)

5.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산상 기도 법회

히말라야 선원 – 네팔

해상 기도 법회

덕적도 밧지름 해변 – 대한민국

www.begood05.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옷 여러벌 껴입고 산행코스는 짧게

✓겨울철 등산 요령

매서운 추위에 실내에서 웅크리기 쉬운 계절이다. 이런 때일수록 춥다고 집안에만 머물지 말고 사찰을 품에 안고 있는 겨울 산을 찾아가 보자. 특히 낙엽 진 자리에 눈꽃이 핀 설경은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다. 건강도 살피고 눈요기(?)도 할 수 있는 겨울 산행은 하산길에 산사도 참배할 수 있어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털모자·장갑 착용 등으로 체온유지 각별히 유의
50세 이상 골다공증 의심 환자는 산행 삼가야

겨울 산은 날씨 변화가 심하다. 갑작스레 내린 눈에 길이 얼어붙는다. 등산로 사이사이 결빙된 길은 평소보다 산행시간을 길게 해준다. 때문에 겨울철 산행은 일몰 시작 전인 오후 4시 이전에 끝내는 짧은 코스가 바람직하다.

지도를 이용해 사전에 미리 등산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등산용 지도를 구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파란(www.paran.com)에서는 등산객을 위해 온라인 3D 등산 지도를 서비스한다. 최근 이 사이트를 이용한 한 네티즌은 "등산로 인근 사찰 · 대피소 · 야영장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제공돼 처음 하는 산행에 큰 도움이 됐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강한 바람, 추위, 결빙 등 각종 악조건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겨울 산행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겨울철 산행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초콜릿 등 간식 준비해야=여러 악조건을 이기며 산행을 하다보면 체력소모가 늘어난다. 땀과 함께 방출되는 칼슘 · 마그네슘 등 무기질의 손실은 근육 피로를 유발시켜 다리에 쥐가 쉽게 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초콜릿 사탕 등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간식은 필수다.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도 좋다.

▲여러 겹 얇은 옷으로 저체온증 대비해야=겨울철 산행에는 저체온증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산행 초반에는 땀을 흘리고 식히는 과정을 통해 비교적 체온이 잘 조절된다. 하지만 해발고도가 100m씩 높아질수록 외부 기온은 섭씨 0.6도씩 낮아진다. 초속 1m의 바람에는 체감온도가 2도씩 낮아진다. 여기에 눈 · 비를 맞거나 땀으로 옷이 흠뻑 젖으면 체온은 더욱 더 떨어지기 쉽다.

저체온증이 생기면 오한이 발생하고 손발이 차가워진다. 심할 경우 근육경직 · 탈수현상이 생기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의식이 흐릿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특히 노인들은 협심증 · 심장마비 ·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는데는 옷차림이 가장 중요하다. 산악인 엄홍길씨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초보자는 가벼운 산행에도 스패츠(발토시)를 착용하고 털모자 · 양말 · 장갑을 착용해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 양말 · 장갑은 여벌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등산화는 보온과 방수가 잘되고 약간 큰 것을 고른다. 빙판 길에 대비해 아이젠도 준비한다.

엄씨는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한다. 주간 산행을 하더라도 랜턴과 여분의 핸드폰 배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겨울 산을 찾는 불자들을 위해 "높고 낮음을 떠나 절대 산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항상 겸허하고 겸손하게 산을 찾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염좌 등 부상 주의해야=겨울철 산행은 빙판에 다치기 쉽다. 부상을 방지하려면 산행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 유연성을 키운 뒤 산행을 한다. 특히 등산할 때는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도록 한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여 넘어질 경우를 대비한다.

넘어져 다치지 않더라도 처음 산행을 하는 경우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줘 염증이 생기기 쉽다. 이 경우 대부분 산행을 마친 뒤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충분히 쉬면 낫지만 평소 관절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병원을 찾도록 한다.

넘어지면 발목을 삐끗하거나 접질리기 쉽다. 소중한클리닉의 여동현 원장은 "염좌에는 무엇보다 다친 부위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질린 곳을 풀어준다고 고통을 참으며 환부를 움직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일단 환부를 고정하고 2~3일간 얼음찜질 후에 뜨거운 찜질을 해준다. 다친 부위가 발목일 경우 베개로 괴어 높여주면 부기를 빼는데 도움이 된다. 약한 염좌는 환부를 고정하고 찜질을 병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치료된다. 하지만 심하게 다쳤거나 수일간 지켜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을 입었을 수 있다. 이때는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x-ray)촬영 등으로 진단을 받는다.

▲이런 분은 겨울철 산행 피하세요=골밀도가 낮은 골다공증 환자는 골절사고를 당하기 쉽다. 평소 골다공증으로 치료받거나 50세 이상 여성 중 골다공증을 의심받는 경우라면 겨울철 산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찬 공기는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위험하다. 갑작스런 추위는 뇌졸중 등 혈관계 질환의 발병을 높인다. 이를 예방하려면 평소에도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른다. 호흡기가 좋지 않은 사람은 바깥의 찬 공기를 오래 마시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다. 마스크나 머플러로 입과 코를 가려 찬 공기를 바로 들이마시는 것을 피한다. 혈당변화가 심해 저혈당으로 쇼크 받기 쉬운 당뇨병 환자와 빈혈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도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겨울철 산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동섭 기자**

겨울철 산행 필수품

아이젠, 스패츠, 방풍, 방수 기능이 있는 방한복, 초콜릿 • 초코파이 • 사탕 등 행동식, 스프레이 파스, 지사제, 두통약 등 비상약, 비상용 랜턴, 핸드폰 (여분의 배터리)



13.만성피로증후군

아침이면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괴롭다. 이렇게 계속되는 증상으로 몸에 좋다는 피로회복제와 각성제도 먹어 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곧 바로 누워야 하고,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잠자도 피로감은 가시질 않는다. 왠지 모르게 몸이 나른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다. 혹시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은근히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67%가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갖가지 원인으로 스트레스에 의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만성피로증후군이다.

만성피로 예방법

1.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한다.
2. 금연 / 금주
3.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4. 균형잡힌 식사를 한다.
5. 계획을 잡아 충분한 휴식을 갖는다.

두통·기억력 감퇴 등 지속적 발생
스트레스·불규칙한 생활이 원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전에 비해 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이유없이 몸의 통증을 호소한다. 예를 들어 목안이 자주 아프고 목, 겨드랑이 등이 붓고 누르면 아프다. 팔 다리가 저리거나 어깨 등에 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두통이 생기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증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만약 증상을 방치하여 병적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사회와 가정에서 받는 불안과 긴장, 스트레스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본다. 또한 불규칙한 생활이나 잘못된 수면 습관, 영양불균형 등도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

피로를 느낄 때에는 먼저 그 피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적인 원인에 의한 피로인지, 신체적 혹은 정신 사회적 원인에 의한 피로인지에 따라 그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피로를 나름대로 자가 진단하여 임의로 피로의 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전문 주치의와 상담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병적인 피로라면 대개 그 원인 질환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효과적인 피로 회복의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만성피로 증세가 심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만성피로를 기운의 소통이 정체된 기체증과 기허증, 혈허증의 증상으로 파악한다. 만성피로의 한방치료로는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 정서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부족한 기와 혈을 보하게 된다. 원기 허약으로 인한 피로에는 인삼 영양탕, 과로로 인한 피로에는 보증익기탕,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피로에는 귀비탕 온담탕 소요산, 운동부족으로 인한 피로는 보증익기탕 황기인삼탕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는데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체질감별을 통한 침의 시술과 부항치료를 통해 노폐물 배출과 면역력 증진을 돕는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만성피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로가 느껴지면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철분이 많은 음식,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 · 과일을 섭취한다. 흡연과 음주를 피하고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계단 오르내리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하루에 10분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만성피로증후군이 더 심해지지 않고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이것이 내 모습이다.
나의 전모를 알고 인생을 경영하라!
과거 · 현재 · 미래를 아는
21세기 최고의 수행 지침서
나를 알면 살기 쉽다
스라마나 석 호 지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을 아예 모른다.
약간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어렴풋이 나마 안다.
완전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 줄 안다.
이 수행서는 약간 지혜로운 자가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추천의 말, 저자)

모든 존재는 각각 〈내면의 완전성〉을 지닌다.
내면의 완전성이란 곧 붓다이자 다르마(法)이며, 삶을 꾸미는 에너지의 처소이다.
당신 속에 든 붓다를 깨울 방법은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 속의 붓다는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니며 활동하는 붓다를 보는 법이 여기에 있다.
법주(法珠)를 통하면 스스로 그 활동을 알 수 있으며
현실적 성공을 이루는 지름길을 찾을 수도 있다.
당신의 현재 모습 속에서 전생과 미래를 모두 동시에 볼 수 있다.
법주는 그것을 가능케 하며, 그대 내면의 완전성은
100% 바른 점찰(占察)로 인도한다.
당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수행에 의해
현재와 미래 모습은 수시로 바꿀 수 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각자의 모습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마음 과학에 의해
밝혀놓은 수행서이다.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www.bubju.kr

온라인〈농협〉 1343-02-005446 (예금주:이성한) 도서출판 연 화 Tel. 053)253-1923

‘부처님 말씀’ 지키는 수호신의 우두머리

불화 속의 명장면 (38·끝)

제석천도(하)

제석님은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 조선중기의 고승 서산 대사(1520~1604)가 지어 민간에 크게 유행,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회심곡>에는 ‘제석님께 복(福)을 타고’ 사람은 태어난다고 하여, 제석님은 ‘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나타나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넓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풍부한 현실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뜻을 지녔다 하겠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석님을 모시는 신앙을 그 유래가 매우 깊은데, 백제 무왕이 궁궐을 왕궁평에 옮겨 짓고 그 근처에 제석천을 모시는 제석사를 두어 왕실 및 국가의 안녕을 빌었다 한다. 이러한 제석신앙 전통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고려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궁궐 안팎으로 제석원을 두어 정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제석천은 부처님의 말씀, 불법(佛法)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팔부중, 금강역사, 사천왕 등 많은 수호신들 중에서도 범천과 짝을 이루어 수호신의 우두머리 격이다. 그렇기에 그 모습도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등장하는 여타의 우락부락한 수호신들과는 조금 격이 다르다. 석굴암에 나타나있는 통일신라 제석천의 모습을 보면, 수호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귀족적인 풍모를 뽐내고 있다. 또 본 작품(그림1)을 비롯하여 조선후기 다수의 제석탱화 및 신중탱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석천 역시 매우 여성적이면서 우아한 보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림2 : 부채 속에는 제석천이 살고 있다는 선견성(善見城) 궁궐이 보이고 그 밑으로는 해와 달이 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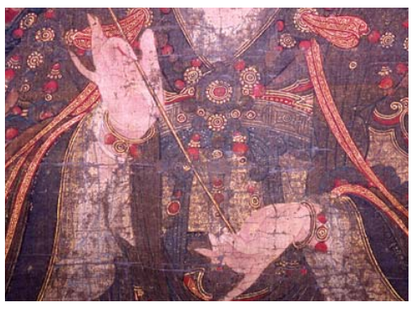


그림3 : 섬세한 손으로 부채대를 받치고 있다. 비단 천의와 구슬 장식이 화려하다.

제석천은 ‘도리천’이라는 하늘에서 인간세상을 굽어보는 하늘신인데, 도리천의 사방에는 봉우리가 있고 그곳에 8천(天)씩 모두 32천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주변 32천을 다스리는 제석천까지 합하여 도리천에는 총 33천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부른다. 그는 도리천에 있는 선견성(善見城)의 선법당(善法堂)에 머무는데, 본 작품에서 제석천이 들고 있는 하늘 부채에는 이 선견성의 모습(그림2)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선견성과 선법당, 제석천이 머무는 궁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이곳에서 인간세상의 선행(善行), 착한 행위를 굽어 살피고 악행이 판을 치지 않게 지켜본다.

<장아함경>의 ‘도리천품’에는 ‘매월 15일 사천왕은 몸소 나서서 천하를 돌아보고, 세간의 만백성이 효를 행하는지 불효하는지를 관찰하고, 선법당에 나아가 이를 제석천에게 보고한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고, 부모에게 효하지 않고,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재계를 닦지 않고, 빈궁한 이를 돕지 않는다 하면, 이에 천인(天人)의 무리는 감소하고 아수라의 무리가 증가되어 이를 걱정한다. 만약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과 어른에게 공경하고, 재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한다면, 반대로 천인의 무리는 증가하고 아수라의 무리는 감소하여 크게 기뻐한다’라고 쓰여 있다.

제석천은 선을 상징하며, 악을 상징하는 아수라군과 맞서는 것이다. 세상의 악이 줄어들어 제석천이 즐거울 때에는 국토가 안정되고 민심이 불안하지 않고, 반대로 그가 노할 때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세상에서 악이 늘어나지 않게 단속하는 하늘신이기도 하지만, 제석천은 석가모니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지킴이로서 그 기본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물론 불법을 지킨다는 것은 1차원적으로 말씀이 담긴 경전을 지키는 것, 나아가 그것이 상징하는 진리의 세계 · 불교의 세계를 지키는 것, 더 나아가 불법으로 통치되는 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앙으로까지 발전한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 승 홍경이 당나라로부터 대장경을 실어왔는데 왕이 친히 영접하고 대장경은 제석원에 보관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또 ‘주로 궁궐의 문덕전(文德殿) 및 수문전(脩文殿) 등에서 제석도량을 7일 동안 계속 베풀었다’라는 기록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들 궁내 관청들은 역대 문서 및 경전들을 보관하고 이를 왕에게 강론하는 곳이었다. 나라의 종교가 불교인 시대에 불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신앙과 직결되기에, 외적의 간섭과 침입이 빈번했던 고려시대에는 유독 제석도량이 빈번히 행해졌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불교경전의 수호신은 중국 명나라 황실의 영향으로 위태천으로 바뀌게 된다. 석가모니에게 설법을 하도록 권하여 범천권청(梵天勸請)으로 유명한 범천과 그 자리에서 같이 그 설법을 지킨 제석천, 그리고 후대의 위태천이 더해져 이 세 존상은 모두 불법의 수호신으로, 현재에도 무수히 그려지고 있는 신중탱화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주된 세 존상이기도 하다.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하늘에 제석천이 있다’라는 신앙은 우리 고유의 천신(天神) 신앙과 결부되게 된다. 국가에서는 환인, 환웅, 단군을 삼성(三聖)으로 모셨는데, 이는 삼신제석 또는 삼불제석으로서 무속에서는 환인제석, 환웅제석, 단군제석으로 불리어졌다. 이는 더 아래로 민간으로 퍼져나가 아기를 점지하고 보호하는 삼신(태신-태를 만드는 신, 산신-아기를 낳게 하는 신, 육신-아기를 기르는 신)으로도 전이되고, 세간에 유행하던 민간신화와도 결합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염원하는 것에 따라 신들은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신들도 시대에 맞추어 발전하고 변모하는 것이다. 제석신 역시 전래 이래 옛 사람들의 다양한 소원을 들어주며 그 신앙과 더불어 모습을 변모해왔다. 그 존상은 아직도 사찰의 탱화 속에서는 아름다운 제석신의 모습으로 살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그림1 : 아름답고도 근엄한 조선초기 제석천의 얼굴, ‘제석천도’ 일본 교토 세이타쿠인(聖澤院)소장

제석신앙은 백제 무왕을 시작으로 고려시대까지 전승

우리 고유의 ‘天神’으로 전이 민간신화와 결합하기도

<연재를 마치며> ‘불화 속의 명장면’을 소개하고 싶다는 필자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선뜻 신문 한 지면을 할애해 주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며 가슴 설레어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글을 써 나가면서 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린 것보다 스스로 배운 것이 더 많았다. 또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도 더 친절한 글쓰기를 하여야겠구나하고 절실하게 느꼈다. 아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즉 방편의 묘(妙)를 체득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전문 데이터야 공부하면 되지만, 나를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글쓰기가 되려면, 우선 인생 공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생 공부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에 얻어질리 만무하고 또 시간도 무척 걸린다. 깊어가는 겨울이다. ‘봄에는 태어나고(生), 여름에는 자라나고(長), 가을에는 수확하고(收), 겨울에는 저장한다(藏)’고 한다. 계절은 생각보다 항상 한 발 앞서 간다. 이제 모든 것을 안으로 간직하는 계절 겨울이다. 땅의 움츠림은 단순한 은닉 그 이상을 상징한다. 안으로 자양분을 깊이 숙성시키며 그것을 다시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뿜어낼 봄날의 빛을 기다리는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안으로 깊이 성숙한 뒤에, 다시 독자 여러분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만나 뵈올 새 봄날을 기약한다.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께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도봉 합장

연락처 : 017-377-0464, 02)886-8655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871-34번지(서울 포교원)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232-1번지

산삼이란?

●천종(진종)산삼 (天種, 眞種)
고산지대의 식물의 특성에 의하여 압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자란것으로 뇌두는 가늘고 싹대 역시 작고 가늘며, 잎수와 가지 숫자도 적다. 열매 또한 작으며 숫자가 적다. 뇌두가 가늘고 길며 약통에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에 살이 안붙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0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란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잘 크지를 못하며, 제일 커봐야 1냥 2~3돈 정도라 할 수 있다. 작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종(진종)산삼이란 참으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 최고의 식물인 것이다.

●지종산삼 (地種)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씨종이 한단계 진화하며 야생장뇌에서 1-2대 지난것이 지종산삼이며, 뇌두의 굵기가 진종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긴 형태도 중간이다.

●인종, 야생장뇌 산삼(人種)
야생장뇌란 재배장뇌씨가 새등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한단계 진화하며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뇌두가 두껍고 미에 살이 많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채취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종산삼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러나 천종(진종), 지종,야생장뇌의 어디에 속하는냐는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년조가 같으면 약효는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조일때 천종(진종)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종산삼보다 크기가 작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9증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名品紅蔘

사찰에서 직접 만드신 “홍삼 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는 100%순수 홍삼입니다. 완전 차별화된 최고의 국내산 6년근 수삼을 100일에 걸쳐서 구증구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리는 것)홍삼과 자기 몸에 발인 자체 홍기삼과 불암산 자정수(감로수)로서 게르마늄탕기에서 전혀 금속에 닿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최고를 추구하는 홍삼입니다.

◆6년근 한국산 수삼을 선정
◆황토 / 맥반석 가마에 장작으로 찐다
◆자연상태에서 건조
◆9증9포(홍삼) – 9번찌고 9번 말림

· 면역기능 증진 효과 및 암의 보조요법제로서의 유용성
·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과
· 두뇌활동 촉진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작용
· 신체조절기능의 항상성 유지작용
· 피로회복 및 지구력 증진효과
· 항발암작용과 암예방효과

※어혈푸는데 탁월 ※임산부 산후조리에 드시면 효과 탁월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데 1개월만 드시면 ok

약왕사 9증9포 홍삼 엑기스(두달분) 30만원 90ml 60포

◈ 입금계좌 :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 : 약왕사)
※판매수익금은 약사전 불사에 사용됩니다.

참선 약사기도도량 약왕사
☎ 054) 371-6665, 010-2513-6665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5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禪書畵 매입,판매
작고 고승들의 선서화, 불상, 탱화 등을 고가 매입, 판매
한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한 편안하고 격조높은 실내 분위기 연출 상담
선서화 박물관 건립 희망하시는 분 연락바람
30여년간 선서화,골동품을 수집하여 최고의 작품들만을 보유,서화 감정해 드림
禪書畵房 조성래 합장
011-9317-9199
부산 금정구 구서동

팔 자 술 강 의
• 연구해설반(실전반,개업반)으로 실전풀이 수업
• 변만리, 이석영, 박재완, 이병열, 마야비법의 고수들의 비법 및 교재 분석강의
• 매주 목요일 2시(월10만원)
도현사랑방(동묘역 1,6호선)
02)2236-7852
017-710-2420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허련)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 초능력 학회에서 무료 건강상담해줍"
병명도 없이 원인 모르게 아픈분 (빙의) 백방으로 치료 받아도 잘 낫지 않은분 몸이 늘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분 등을 체험해드립니다.
장소 : 백장사(경북 고령군 쌍림면)대구 포교당
대구시 남구 대명 2동 2009-1
(백장사에 운영할 스님을 모십니다)
017-501-2315
053)471-3123

역학, 전생요법
전생퇴행,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31)842-8023
011-772-4606
서울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명예)종교철학박사학위취득
• 학위 : 미국 종합대학교
• 자격 : 스님, 목사님, 종교인
• 서류 :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 4매
상담전화 : 080-654-2464

부산 선(禪)문화원
제 1기생 모집
선묵화, 참선공부, 체계적인 지도
범주스님 직접지도함
051)518-5900

흥천사 대한신불교
철학,시인,아기이름 짓습니다
백일기도,천일기도
고,대입기도 불사합니다
불사하시는 분에게 佛자를 드립니다
부처님 믿으시고 건강,행복하세요
불우이웃돕기도 합니다
016-478-5545
우체국 7121-0188-1426 황순자

염불과 법문 해드립니다
011-9596-4338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의식,서화, 의술 등등에 능통한 법랍30여년 재수 50대 초반의 청정 비구로써 도량은 여법하나 운영이 어려운 사찰을 불사도와드리며 안거할 수 있는 인연처를 찾습니다
비구,비구니,처사,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본 사찰과의 인연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실 60세까지의 비구, 비구니, 행자, 처사,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9906-0366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남산
(45~60세)
054)748-3530

처사 및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천년고찰
011-9176-4403

공양주 보살모십니다
가족처럼 함께하실 분
(숙식가능)
062)672-0009
010-6251-21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기도스님 필요하신 사찰 연락바랍니다
현대식 요사채면 좋겠습니다
010-4520-6787
054)433-6315

포교원에서 기도하실 비구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50세 이하)
051)542-4848
011-551-1719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576-273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남,여 행자님 구합니다
(월생활비지급)
▷부산지역
011-579-6444
051)761-1447

부전자리 원합니다
(50대 중반 비구승)
010-7134-004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평생 함께하실 도반으로 모십니다)
033)647-1502
033)647-1509

대사찰 창건주 같이 하실분 모심
운영권 지분도 같이함
직접 방문하여 사찰을 보고 의논바람
• 대략구성 : 2층전각 2채, 대웅전, 대불, 요사채
016-635-0618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공부 요양하실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 청강사
055)932-5706
016-9506-570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65세까지)
▷상운사 (강원도 산속)
033)482-3382~4
011-764-3661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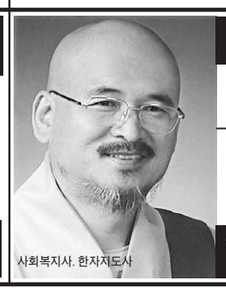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易) 정 통 命 理 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져 하는 분
전문가를 위한 學堂
命理學의 모든것
정통교재-명리학 비전, 명리학 비결
각권 삼만원
明陽 命理學堂 연락처 : 032)330-4684
032)503-4684, 010-8427-6199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역 학 공 부
• 사 주 초 급 : 월요일 18: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농장 입주자 봉사자를 모십니다
충남 청양군 대치면에 위치한 영농법인 선농원 농장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유기축산과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봉사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거사님을 모십니다. 거사님 내외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조건 :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근무동안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수 있으신 분 · 부부일 경우 식비 포함 월 200만원
2007년 12월 4일
(선농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산 1-2
(본 사) : 대전시 서구 갈마2동 1219번지 042)531-0026~7
영농법인 선농원 대표이사 장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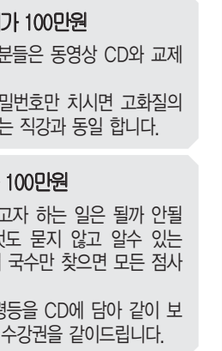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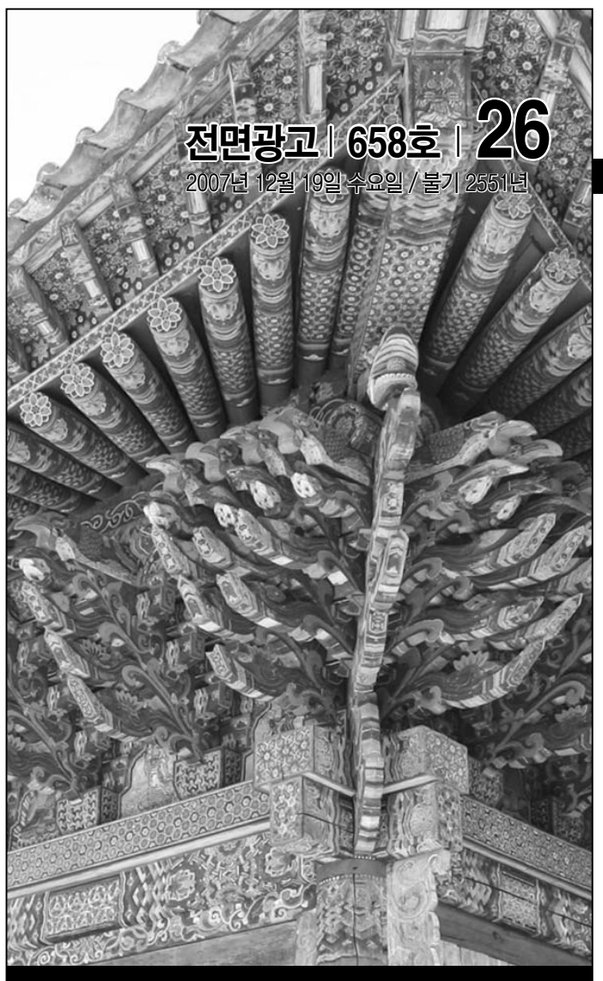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불자님께 드리는 글
일월산 관법사에서는 병마에 고통 받는 불자님들을 위하여 고심 끝에 청정고을 경북 영양천의 오지에서 생산된 자연산 돼지감자와 약나무만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경험으로 정성껏 다려서 병마에 고통 받는 불자님들께서 고민 없이 복용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 돼지 감자의 효능
▷ 당뇨(천연 이눌린이 다량함유)에 탁월한 효능 및 강장식품
▷ 각종 성인병 예방 및 고혈압, 위장, 대장운동 촉진으로 변비에도 효능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됨)
● 헛개나무의 효능
▷ 간경화, 지방간, 간장, 대장염 질환예방 및 치료
▷ 음주 후 간, 장, 알콜성 만성피로 해독 효능
● 복용방법
▷ 식 전 후 1봉씩 1일 2회 복용함
▷ 데워서 드시면 좋으나 차게 드셔도 무방함
▷ 1개월 복용 4만원 (택배비 본인 부담임)
입 금 : 계좌번호 (우체국 701151-01-001297) 예금주 관법사
주문전화 : 054)682-5808
관법사 총무 성덕 합장

大韓護國佛敎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위치 : 제주도
●법당 : 30평
●요사 : 60평
●부지 : 700평
●가액 : 2억7천

●위치 : 서울외곽도시
●법당 : 30평
●요사 : 80평
●부지 : 620평
●가액 : 43억(대금분할,지급가능)

●위치 : 경북
●법당 : 35평
●명부전 : 25평
●요사 : 70평
●부지 : 4,500평
●가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안내 (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건물 스라브 약30평(등기필)
● 법당 : 12평 ● 요사 방 3칸
●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 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억원

● 위치 : 남쪽 바닷가 진해
● 부지 : 1500평(주거지역)
● 법당 : 목조 43평(3포 5포)
● 지장전 30평, 요사채40평, 산신각5평
● 공양간45평, 대종각, 사무동(2층) 40평
● 버스진입 가능, 뒤편에 산세 아주 좋음
● 정남향. 탁트인 바다전망
●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액 : 15억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8,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부지 : 7천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9억
*도심부근큰가람가능
(법당+대지300평)9억

● 위치 : 기장 월내
● 대지 : 1,000평
● 법당 : 45평
● 요사 : 50평
● 가액 : 18억
*교통좋은 근교 신축사찰

● 위치 : 청송 보현산
● 부지 : 1,4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7억
*기가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사찰컨설팅(양도 양수 하실 스님 상담환영,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평수 : 1,200평
● 법당 : 전통사찰형식(내9포, 외5포), 경내석굴있음
● 요사 판넬건물 3동
● 국도2분거리, 산속 고속도로 5분거리
● 답사 후 가격결정
● 산세 좋고, 교통편리함
● 가액 : 9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220-4305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0-9757-5608
010-2871-528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상담 후 결정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
010-3996-2035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 한옥암자. 도심속 위치좋음
●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후 결정)
010-5169-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앞산 자락
● 대지 : 150평
● 법당 : 20평,요사채 : 20평
벌채 :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5억 5천
대구시내.근교사찰(터)
● 위치 : 2억 5천부터 20억
평수 금액 다양
● 사찰전문가와 친절상담
019-534-7239

사 찰 안 내

● 위치 : 고흥군 도화면 5분거리
● 법당 35평, 11년된 건물
● 산신당11평,종각,요사채2동
● 평수 : 1,000평
● 가액 : 1억 8천만원(가격절충)
061)832-31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사 찰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4호선)
● 평수 : 34평
● 2층 법당, 주지실
3층 방3,주방,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1-888-0130

촌집(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양산(통도사 부근)
● 대지 92평 ● 건평 25평
● 가액 : 6천5백만원
(밭 14평 무상으로 드림)
011-884-7767

주택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62평(2층)
● 1층 상가 3개, 방1 월70만원
수입있음, 2층 법당
● 8차선 도로 10M 인접
주택가 코너집
● 가액 : 4억2천만원
(융자 6200만원 포함)
031)257-5991
011-753-59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 평수 : 총60평, 법당 35평
● 특징 : 연등 500개,
영가등 250개, 인등200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90만원(조절가능)
시설비 : 1,000만원
031)911-9897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큰 대로변, 부산진 지하철역 부근
시내버스 각 노선 정류장 앞
● 평수 : 약 85평. 4층건물에 2층
● 법당 약20평, 방2, 주방,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약40평
● 위치가 좋아 불교대학, 선원 등
● 약사여래 삼존불
모든시설 완벽,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180만원
010-2563-139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부근
● 3층 50평
● 삼존불, 탱화 모셔져 있음
●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 전세 1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약간
● 스님 즉시 법회 가능
017-571-55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태평동 시장입구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130㎡(40평)(3층)
● 삼존불,후불,신중,칠성,
산신탱화,미륵불,동불(5자)
방2,주방,실내화장실,
에어컨 및 모든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42)525-5355
018-456-6339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입구)
불사한지 3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 100평
● 대웅전 약30평,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사용
연못 조경 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급 양도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 천연염색 체험장으로도 적합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9-245-892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2호선) 2번출구
● 평수 : 30평
● 2층법당,영가단,거실,주지실
공양간,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6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45-506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 삼존불, 시설일체
●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보살님,
역학하시는분환영
●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18-427-2256
063)543-555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법당 30평
(목조), 산신각 10평(목조)
● 납골 200기 시설
(100기 미분양), 요사완비,
지장대불, 사리탑 완비
● 가액 : 1억 9천만원
010-9115-6831

사찰 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500m(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30평(2층 건물)
● 1층 : 종무실, 주지실,
공양실, 방5 / 2층 : 대웅전
● 별채 43평 건물
위패당 및 영단
● 가액 : 15억5천만원(절충가능)
010-9757-72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142번지 형산 황룡사
● 대지 : 406평
● 대웅전 17평, 산신각 11평,
요사채 60평
● 가액 : 3억2천만원
011-542-098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체육관 앞
● 대지 : 45평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500만원
● 시설 A급, 즉시법회가능
011-9762-2286

사 찰 안 내

청정계곡, 산세수려 하늘이
내려주신 명당. 덕망과 불심이
하해와 같으신 스님 보살님께
사찰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대지 300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5평
● 방 5, 욕실, 화장실 5,
● 가액 : 3억5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 35평(3층 건물 3층)
● 옥상에 산신각 별도
방3, 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보살님, 법사님 모두 적합
032)541-221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원주시 시립박물관 옆
● 40평(법당, 방2, 주방 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800만원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작은규모로 처음 시작
하시려는 분
033)734-8630
010-8531-10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속초시 중앙
인구밀집지역(포교 최적지)
● 건물 4층중 3층 약 60평
● 법당(삼존불 및 영가단),
● 방3, 주방별도
전부 황토로 잘 꾸며짐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오시면 됨
010-4631-7621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덕월동 은혜사
● 대웅전, 아미타삼존불,
산신각 따로
● 시설비 : 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61)745-0108
010-8476-13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24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 최상급
● 가액 : 1억5천만원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함
010-9798-10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 법당 30평
● 상담실, 소규모 주방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674-509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대 사찰양도
● 가액 : 12억 ● 부동산 사절
011-563-15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원주시 문막읍
버스정류장 앞
● 2층 평수 2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
● 법사님,보살님,역학하시는분 환영
● 즉시법회가능
010-5185-1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
국민관광단지내
● 부지 : 토지 500평(대지)
● 건축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산신각, 용신각, 한옥 1채
총 180평 동남향, 최신시설
● 가액 : 8억(임대도 가능)
보증금 1억원, 월 150만원
011-706-7489(향봉)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9억

● 위치 : 동해시
● 대지 : 90평(200평)
● 법당 : 22평
● 요사 : 30평
● 가액 : 9천(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대 형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 / 시설비 답사후절충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아산 시내 중심가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2층 건물 2층
● 내년 3월부터 서울까지 지하철 운행(교통편리)
● 법당, 상담실, 스님방, 창고, 욕탕 구비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철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즉시법회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 평수 : 72평 (아파트 약4천세대 상가 5층)
분양받았음
● 모든시설 최상급, 산사와 같은
포교원주변 자연경관수려, 교통편리, 주차편리
포교에 원력있는 스님 최상의 조건
● 가액 : 농협융자 3천만원 안고 1억 3천만원
016-9878-1282



불자 세상보기

허 남 결
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교수

돈 있어야 '효도'를 살 수 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너희들에게 물려줄 테니, 앞으로 우리에게 효도할 생각 없나?"라고 물으신다면…. 요즘 매스컴에 소개된 어느 대학교수의 연구결과가 장안의 화제다. 그것은 '돈이 있어야 자식들의 공경을 받는다'는 세간의 속설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세계 27개국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과 만나는 빈도가 잦아지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부모의 소득이 1% 높아지면 부모와 자녀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날 확률은 통계적으로 2.07배나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따로 사는 부모나 친지들과 서로 왕래하는 횟수도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51.9%가 '가족이나 친족'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전언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뿐만 아니다. 얼마 전부터 일부 계층에서는 '효테크'란 말도 유행이라는 소식이다. 한 마디로 말해 부모를 자~알 모시는 행위가 곧 자식들의 현명한(?)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윤리에서 강조하는 '자리이타행의 원리'를 곰곰이 되새겨 보게 된다. 왜 부처님은 '이타자리행'이라고 하지 않고, '자리이타행'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엄연한 자연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도 부처님은 '이기'와 '이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타'를 우선하고 '이기'를 희생하는 삶보다는 '이기'를 앞세우되, 가능하면 '이타'까지 배려하는 행위를 윤리적인 삶의 한 형태로 권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모와 자식들에게 적용하면 논의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부모와 자식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상대방의 그것보다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는 양측의 윤리적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과 어긋나지 말아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의 부모-자식 관계가 너무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관계로만 인식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 그 결과 부모와 자식들은 일종의 상호 채권-채무자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 대한 윤리적 기대의 충족 여부로 대부분의 경우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돈이 있어야 자식들의 공경을 받는다'거나 '효 테크'라는 금융상품의 등장은 그와 같은 인간적 불편함을 자본주의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 아니겠는가?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효도라는 '정신적 이익'을 얻고 싶고,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싶은 양측의 계산(?)이 그런 식으로라도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서글픈 일이긴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한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경이 되고 있음을 또 어쩌랴!

다행히 윤리학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거나 또 그것을 도구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윤리학적 접근방법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또한 어떤 조건하에서도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이 있음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이를 내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도덕형이상학적 관점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건전한 도덕상식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전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후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불자들은 돈으로 '효도'를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불자의 눈

'죽음의 바닷가'에 자비를

서해 태안반도 일대가 무참하다. 한 순간의 실수로 유출된 원유가 태안반도 일대를 죽음의 바닷가로 만들어 버렸다. 그곳에 회생을 위한 손길이 분주하다.

불교계도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생태계 파괴를 조금이나마 막아보려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아쉬움도 크게 느낀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의 구호조직은 더디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재난의 현장에서 구호구난 활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 '뒷북'을 친다는 것이다. 불교계에는 재난 구호단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조계종과 천태종이 구성한 두 단체가 전부다. 그래서 복지재단이나 단위사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구호구난 활동에 나서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조직체계도 미약하고 기동력이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번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답답함은 지울 수가 없다. 조계종 복지재단과 총무원, 일부 사찰의 움직임이 눈에 뜨일 뿐 태고종이나 진각종 등 일련의 종단들은 공식적인 활동과 봉사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연말이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시절이긴 하지만, 태안반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거기에는 많은 일손과 장비들이 필요하다. 불교계의 구호의지가 한 두 번의 자원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생명의 종교, 환경 지킴이 종교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불교계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해 나가길 바란다.

성직자가 '정교분리' 훼손하다니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종교계에 수상한 바람이 불고 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상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이명박 후보를 초청한 '줄대기용 행사'가 열리고 또 일부 스님들이 공개적으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도 유사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

성직자들이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냄새'나는 행사를 열거나 무리를 지어 공개적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돈을 주게 된다.

불교계의 수행자나 다른 종교의 성직자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여야 한다. 종교는 정치와 엄연히 분리될 때 생명력을 갖는다. 인간의 바른 삶을 이끌고 사회의 바른 문화를 이끄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종교는 신성을 추구하고 정치는 욕망에 휘둘린다. 그래서 종교가 세속의 잇속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에 발을 담그는 것은 자아의 망각이고 직분을 망각한 추태일 뿐이다.

최근 불교계와 이웃 종교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선거판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에 바쁜 현상을 두고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성이 존중된다지만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정교분리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회적 원칙이다. 그것을 종교인이 앞장서서 훼손하다니, 그 업보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자중을 촉구한다.

'종교자유' 칼럼 40. 정치권과 정부에 바란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인 과세·종교인권 보장 등 헌법 준수 의지 요구 돼

최근 한 대학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교수들은 '차기 대통령이 깨야 할 금기' 중 첫 번째로 '종교계 비판'을 꼽았다고 한다. 부패하고 세력화된 종교계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짐이 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그 배경일 것이다. 그동안 종교로 인한 사회갈등을 애써 외면해온 정치사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의 세속적 이해관계 때문에 종교가 권력화 하는 것을 부채질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거꾸로 정치권이 공룡처럼 커져버린 종교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한심한 꼴이 되고 말았다.

2007년 대선 후보들의 종교문제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종교인 과세'나 '교육법 · 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조항 추가' 등의 질의에 대해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입장으로 성실히 답변한 데 반해, 정동영 후보는 긍정적인 듯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여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회창 후보는 무응답 내지 소극적이었고, 이명박 후보는 아예 공식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경우 "강력한 지지세력인 기독교계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헌법을 준수해달라는 국민의 뜻보다 장로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개신교계의 뜻이 더 소중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종교계에 뒷덜미를 잡힌 우리나라 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고 우려스럽다.

헌법 상 당연한 문제제기를 두고 대통령 후보들 간의 인식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증거다. 그나마 종교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아직은 민노당 정도지만)에서 그동안 '금기'로 여겼던 종교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이끌 지도자로서 치명적 결격사유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80% 가량이 가톨릭 신자인 멕시코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공식적인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종교계와 정치권의 불필요한 접촉을 억제하는 법을 만들거나 시민운동을 벌여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견제세력으로 살아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문제화 될 조짐이 보이는 종교인 과세 문제도 조세형평과 국민감정을 고려해 바로잡아야 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연봉 10억이 넘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종교서비스업'이란 특수업종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관행이란 이름으로 세금을 안 내는 '특수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꼬박 꼬박 세금을 내는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며 사회정의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2006년 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에 8만 명이 참가해 86.3%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민의 종교인권 보장과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중립도 시급한 문제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된 헌법 제20조도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에 비해 일본 헌법 제20조는 1.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 받지 않는다", 3. "국가 및 어떤 국가기관도,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헌법을 손대기 어렵다면 하위법에서라도 실질적인 힘이 실리도록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종교사학에서 학생들이 특정종교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강의석씨 사건에서도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한 대광고의 강제예배 건은 승소했지만,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오히려 "학교를 강제할 법규"가 없다는 핑계로 직무유기를 해온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까지 국민 개개인이 힘겹게 싸워서 지켜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며 기본권 보호는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단 말인가. 처벌조항이 없다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장(법)' 타령만 하고 '일(감독)'을 하지 않는 종(정부)에게 주인(국민)이 그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국민은 피곤하고 허탈하다.

前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퐁피두는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정치인을 말하고,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는 정치인을 말한다"고 명쾌하게 구분하였다. 얄팍한 계산에 매달려 헌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조차 외면하는 사람은 정치꾼일 뿐 진정한 정치가일 수 없다. 종교 관련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성 정화교육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이며 조선시대 승병들의 동해안 본부였던 함월산의 전통사찰 골굴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해 제 32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 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를 통한 심성 정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외국인 사범과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로서 주지스님이 직접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을 지도합니다.

※ 언 제 : 2007년 12월~2008년 2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3주, 한달 이상) 매주 일요일 입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1개월씩 4회 이상 수련 시 1단 승단 심사 자격 부여)
※ 대 상 : 초등, 중등 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회비 : 1일 3만원 · 1주일 21만원 · 1한달 7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골굴사)
* 접수 및 문의: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 수련내용:
1. 불교의 아나파나사티 명상 · 선요가 · 선기공 · 선무술 · 불교한문 · 전통문화(판소리,승마,다도,전통춤)
2.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 (이명미 교수님, 무용학)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인성교육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회화를 원어민이 지도합니다.
5. 화랑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느끼는 승마체험.

* 준비물 :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개인 컵 장갑 · 모자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일과표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시	기상	10시	오전 선무도 수련	13시	독서와 사색	18시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및 행선	11시	108배 참회기도 · 자아를 향한 서원	14시	전통문화 강습(판소리,다도,승마 등)	19시	저녁 예불
7시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15시	오후 선무도 수련 · 등산	19:3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8:30	불교 강의 · 영어회화	12시	점심 공양	16:3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21시	점호 및 취침

◈매주 1회 성지순례 : 장항사지 · 감은사지 · 문무대왕릉 등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16번째 '108산사 순례 기도회'
종로 조계사











① '조계사' 글씨가 새겨진 염주알을 나눠주고 있는 선묵 혜자 스님.
②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순례 참가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③ 선묵 혜자 스님이 김태현 제17보병사단 연주사 주지 법사(사진왼쪽)에게 초코파이 4만여 개를 전달하고있다.

불교 1번지에서 1등 불심으로 기도

불자라면 번뇌 · 업장을 소멸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전국의 산사를 찾아가 참배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쫓아가다보면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기란 녹록치 않다. 그나마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나 불교 명절 법회 등이 열려야 절을 찾게 마련이다. 이런 현실에서 1년 넘게 4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식구들을 이끌며 '기도와 봉사'로 불심을 과시하는 스님이 있다. 6~7년 일정으로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이끌고 전국 사찰을 돌며 '기도와 봉사행'을 실천하고 있는 선묵 혜자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이다.

스님은 12월 7~8일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16번째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봉행했다.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조계사 곳곳에서 돗자리나 신문지를 펴놓고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순례객들의 뜨거운 불심은 추위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순례 회원들은 행사에 들어가기 전 <천수경> 독경에 이어 대웅전 부처님을 향해 108배를 올렸다.

"기도와 봉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조건 없이 봉사하면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봉사하는 동안 모든 번뇌 · 망상이 소멸되고 저절로 깨달음도 온다고 봅니다."

선묵 혜자 스님이 순례처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기도회 회원들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혜자 스님은 순례단을 이끌고 매월 사력이 깊은 사찰 한 곳을 찾아가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신심이 깊어지고 고부간 갈등도 사라지며 효심도 늘어가는 사실을 목격했다. 순례단 중에는 부부 참가자도 많은데, 부부애가 무척 돈독해졌다고 한다.

서상준(62) 거사 · 김명화(58) 보살 부부는 "그동안 부부가 함께 절에 가는 일은 드물었는데 여행가는 기분으로 한달에 한 번씩 손잡고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기도와 봉사를 하니까 연애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라며 이제는 매월 순례가 기다려진다고 즐거워했다.

이제 108산사 순례는 단순한 참배 행위가 아니다. 전국에서 온 4000여명의 대규모 순례단이 산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대웅전 앞마당에서 부처님께 정성껏 108배를 올린다.

수많은 인파가 한마음이 돼서 법당이나 절 마당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절을 올리는 모습은 장엄하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108번의 절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겸손해짐을 느낀다고 한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몸을 낮춘 효과다. 이때 혜자 스님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방문 사찰의 이름이 들어간 염주알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이번에는 '조계사'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을 지급했다. 염주알을 공손히 받아 염주 주머니에 넣은 순례단은 각자 가지고 온 초코파이 한 통과 쌀을 대웅전 옆에 모은다. 초코파이는 인근 부대 장병들에게, 쌀은 참배 사찰에 나눠 주기 위함이다.

이날 초코파이 4만여 개는 제17보병사단 법당 연주사 김태현 법사에게 전달됐다.

또한 각 회마다 복지기금으로 전달되는 108만원은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을 통해 종로구 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순례단은 북서울 농협에서 마련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아카시아 꿀, 참기름, 된장, 오이, 당근 등 농산물을 구입해 농촌 살리기 운동에 동참했다.

혜자 스님은 해인사를 순례하고 나오는 길에 사찰 입구에서 산나물을 파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생각해냈다고 한다. 이후 가는 곳마다 산사 주변에 직거래 장터가 생겨 단시간에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108산사 순례는 앞으로도 6년 이상이 더 소요되는 대장정입니다. 끝까지 마쳐야 108염주를 만든다는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해 나이 많은 회원들은 이 기간에 아플 수도 늙을 수도 없다며 각오들이 대단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살님 한 분이 이 기간에 운명하셨는데, 그 따님이 대를 이어 사찰순례에 나서겠다고 참가하고 있어 감동스럽고 또한 책임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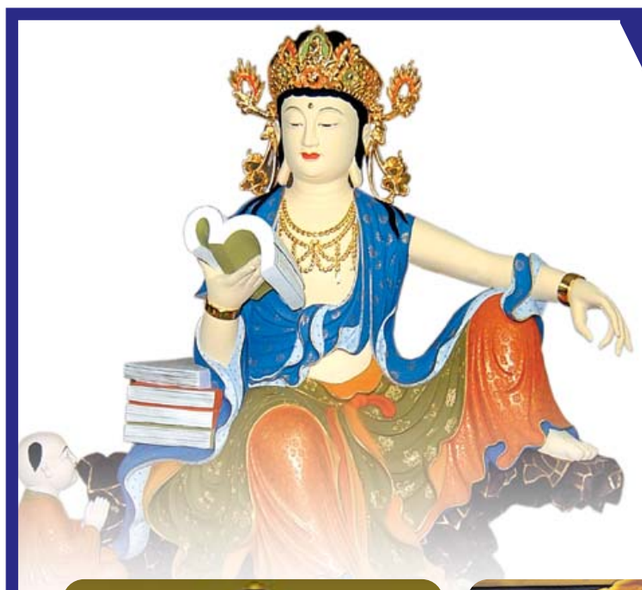
한편 이날 조계사 순례기도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신명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대선후보 부인 민혜경 여사, 문국현 대선후보 부인 박수애 여사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해 첫 순례는 1월 11 · 12일 양일간 수원 봉녕사를 찾아갈 예정이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